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한국불교 문화사업 중로구 수송동5번지 불교회관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한국인의 소화 위장약 - 노루모®

회장 노대풍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12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54 호

대학시절 나는 바둑에 미쳐 기원에서 살았다. 을지로4가 국도극장 건물에 붙어있는 국도기원이다. 이 기원의 원장은 바둑을 재미있게 둘뿐 아니라 〈삼국유사〉나 〈삼국지〉 같은 어려운 한문 원서를 독해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 가끔은 그의 원서 강의를 듣는 재미도 참 고소하였다. 기원이 파한 후에는 원장을 비롯해 마음 맞는 바둑꾼들이 목로주점을 찾아 밤 늦도록 정담을 나누곤 했는데 그 분위기가 지금도 향수로 남아있다.

그 시절 나의 일과는 이렇게 기원출근, 기원퇴근으로 일관하였다. 학교는 아예 문전에도 가지 않은채 한 학기를 기원에서 보냈다. 시골 부모님께서 부쳐주신 학교 등록금이 기원비나 목로주점 비로 전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어느날 오후 예의 이 기원에 어머님께서 나타나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권 오 현

셨다. 어머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앞장서 학교로 나를 이끄셨다. 그리고 경리과에 들려 밀린 등록금을 내 주셨다. 참으로 긴 - 시간동안 말씀이 없던 어머님은 시골행 버스를 타시면서 한마디 하셨다. "공부는 때가 있는 것이니 바둑도 좋지만 졸업은 해야한다"는 말씀이었다.

어머님의 영정 앞에서

불효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후 후회한다 했던가.

그 사건 이후 학교공부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나 참 바다나 산보다 깊고 높은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나는 때때로 호곡한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혼자의 힘으로 치뤄내기 어려운 일을 당할때 나는 어머님 영정앞에 엎드려 '꺼이 꺼이' 우는 버릇이 생겼다. 이 행위는 '사모의 염(念)'일 수도 있고 참회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다. 또는 매달림인지도 모르겠다.

매를 들어 자식을 가르치시기 보다는 스스로 뉘우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어머님은 그래도 아직 내 주위에 계시며 어떤땐 노여워 하시고 어떤때는 웃어 주신다.

이럴때 나는 가끔 부처님 상호와 어머님 모습이 겹쳐짐을 느낀다. 그리고 철없이 바둑집에서 한철을 보낸 부질없던 시간을 무릎 끓고 참회한다.

"어머님, 다시는 등교않고 바둑두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교방송 전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성보관리 '구멍'

해인사 판전에 연탄난로 경판 판가없이 땅바닥에

흑석사 국보 파출소무기고 보관도

성보 문화재가 문화재관리국과 사찰측의 방심으로 주먹구구식관리가 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대장경 판전(국보52로)중 동사간고 보수공사가 등집기에 무리하게 강행돼 동사간고의 경판을 서사간고로 옮기면서 공간이 부족하자 관가도 없이 땅바닥부터 겹겹이 쌓아두는 등 졸속으로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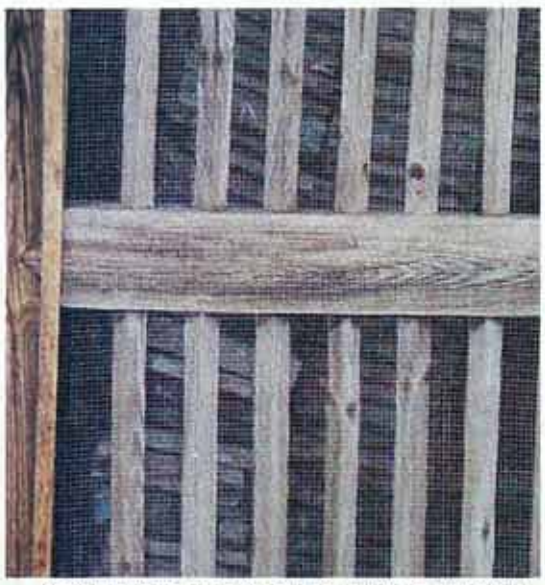
또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국보 282호)이 1년2개월동안 이산파출소 무기고에 보관돼오다 지난 7월 온양민속박물관에 위탁 보관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이 잇따라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성보 문화재 관리 허점은 예산 부족과 관계자들의 의식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보문화재 보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문화재관리국은 대장경 문제로 물의가 발생하자 3일과 5일 직원을 해인사로 급파, 대책마련에 나섰고 해인사측은 동사간고안에 피워온 연탄난로를 치웠다.

해인사는 11월2일부터 동사간고 지붕기와 및 서까래 해체보수를 강행 90%정도 공사가 진척됐는데, 올해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전보수비용으로 책정된 4천2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정부예산회계법상 국고로 다시 환수되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인사 관전보수부장 남일스님은 "초 국보급 문화재 보수공사를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자체가 지도소홀"이라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 전유태 보수과장은 "관전보수는 해인사 직영공사이며 합천군이 공사감독을 하고 문화재관리국은 기술지도만 할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관전 수리작업 의견서를 합천군청에 제출한바 있는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는 "동사간고의 경판들은 상태가 좋지 못해 서사간고의 경판들에 균해와 충해를 전염시킬 위험이 높다"며"경관에 대한 응급조치를 비롯 임시경판고를 설치, 공사기간동안 이전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흑석사는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나온 경전류 7종 14점, 직물류 38점, 기타 5종등 일괄 국보로 지정된 성보문화재를 도난우려가 극심해 시의회와 협의해 인근 파출소 무기고에 보관해 왔었다. 흑석사 주지 부봉스님은 "내년 영주시 예산에 흑석사 성보전시관 건립 예산이 편성되면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호 · 윤기석 기자〉



◇해인사 판전 동사간고의 경판들이 서사간고로 옮겨지면서 공간부족으로 땅바닥부터 겹겹이 쌓여져 있다

조계종 내년 '신도교육의 해'

포교원, 총무원장에 건의…3원장 곧 논의

조계종포교원은 전법의 해 2차연도인 내년을 '신도교육의 해'로 정할 방침이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3일 "내년 전법 사업을 성과있게 치뤄내기 위해서는 신도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감조하고 "총무원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고 "총무원장과 포교원장 교육원장 등 3원장이 곧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혜스님은 신도교육 체계화를 위해 연초에 공청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출판된 〈불교입문〉에 이어 신도교육용 〈신도교리서〉와 강사용 지침서도 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도교육 의무화와 관련된 종법 또는 종령 및 규칙의 제정도 함께 추진, 일선 사찰의 신도교육 의무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률적인 시행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 도심 및 산중, 전통사찰 등의 특성에 맞는 신도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혜스님은 "신도교육이 어려운 곳은 본사에서 수련회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노란연등 달기' 전개

북돕기불교추진위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는 11월 29일 5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열고 '연말연시 노란연등달기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북녘동포 겨울나기' 2차 100일결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불교추진위는 이를 위해 노란연등을 제작, 각 사찰에 배포할 계획이다.

불교추진위 유지원 사무국장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북녘동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예상, 나라경제 회생과 북녘동포의 건강을 기원하는 연등달기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불교추진위는 △옥수수보내기를 위한 달러모으기 △연하장 안보내기 △통일저금통 배포 등의 캠페인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부산불교 북돕기 모금등 잠정중단

부산불교 북녘동포돕기운동본부(집행위원장 한재구)의 활동이 내년 1월까지 중단됐다.

지난 6월 결성이후 부산불교 북녘동포돕기운동본부는 은행계좌와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모금운동을 전개해왔으나 성금 모금액이 2천5백만원에 그치는 등 활동이 저조했다.

운동본부는 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활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모금함 회수, 성금 관리 등을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에 일임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운동본부가 활동을 재개한다해도 경제사정, 사회불안, 부산불교계의 인식부족, 조직적 활동부족 등으로 부산불교 북녘동포돕기는 당분간 전망이 불투명하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

월주스님 '경제위기' 성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4일 현 경제위기에 대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월주스님은 성명에서 "외부차입에 의존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기업과 안일하게 대응한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 소모적 정쟁을 되풀이 해 온 정치권에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주스님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산업구조 조정 △금융실명제 부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원로의원 선출논의

조계종 11일 원로회의

지난 6월 조계종 12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새 원로의원 스님의 선출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원로회의가 11일 오후2시 총무원 4층에서 열린다.

이날 새로 선출될 원로의원은 종산(보살사조실) 보성(성광사방장) 정천(문수암조실) 법전(해인사방장) 정무(영월암조실) 도원(파계사조실) 녹원(동국학원이사장)등 7명이다.

원로회의는 또 종단주요현안 등 종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제3회 신행수기 공모

마 감 12월15일

현대불교신문이 제3회 신행수기공모를 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는 회를 거듭할수록 감동과 신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공모 내용

△주 제: 생활속 수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내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우 110-170)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8년 신년호
△시상내용
- 유마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상품(부처님상조각 순금메달)
- 본사사장상: 상장 상품
- 특별상: 상장 상품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사찰경제도 'IMF 한파' 23면
禪詩에 담긴 큰 깨달음 8면
경주 남산 마애불 붉은입술의 신비 24면

다이옥신 공포를 해결한 경이의 소형 소각로

■ 영우 소각로 특징 ■

◆ 세라믹 필터 장착! 매연해결
연돌 하단부에 설치된 특수 세라믹 필터는 다이옥신의 독성을 제거하는 영우소각로 특유의 기술입니다.
◆ 대형 소각로보다 월등한 기능
포항공대 - 英 sal사 측정 · 허용기준치 이하 …0.3 나노그램
◆ 초고온 하향식 연소방식
국내유일 특허획득 125893호
◆ 각급학교, 관청, 기업체, 사찰, 교회등에 2년간 400대 납품
◆ 상시 A/S반 대기
◆ 저렴한 가격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100% 자체기술이므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쌉니다.

매립지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때문에 한계에 봉착
이제는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사찰 쓰레기 고민을 매연없이 완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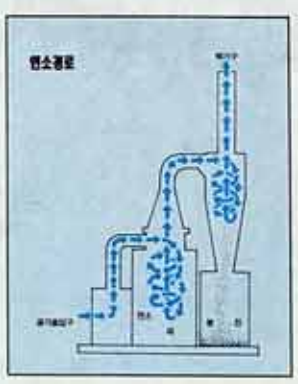


■ 대표모델 : 시간당 소각능력 50Kg

■ 소각대상물
폐지, 폐목, 폐섬유, 폐합성수지(PE, PP), 생활쓰레기, 기타 산업폐기물등
※ 수분 30% 이상의 젖은 폐기물이나 프라스틱 및 폐고무가 많이 섞여 있을 경우 소각초기에 연기가 비칠수 도 있습니다.

■ 설치하면 좋은 곳
관광사찰, 각급학교, 관공서, 군부대, 산업체, 국 · 도립공원,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APT 단지, 병원 및 농어촌, 자연 부락단위등





소각로 제조전문
영우실업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1
TEL. (0344)64-7236, 62-3488, 62-2470 FAX. 62-7012
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사리현동 267-2
TEL. (0344)62-9351

사 설

스님들의 민족문화 수호

불교계가 민족문화수호에 적극 나선다. 조계종은 이번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민족문화수호와 전법을 위한 조계종지도자회의'를 열고 그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시의 적절한 결사이며,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의 문화정책을 냉철히 평가하고 잘못된 문제점을 들추어 내며, 민족문화수호와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불교권 안에서는 수행과 전법을 통해 요익중생의 보살행을 실천할 것과 21세기 민족문화를 선도하는데 불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라경제의 총체적 파탄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좌절감속에 빠져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원조를 받게되어 당분간 경제신탁통치의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5천년동안 민족문화유산을 지켜온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은 잘못된 국가경영과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민족의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서구의 물질만능의 문명을 너무 신봉하는데에서 온 점도 있다. 정부의 문화정책은 그동안 너무 서양문화 두대와 함께 개발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시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민족문화가 말살되고 그 정통성이 상실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사회전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신문화보다는 물질을 중시하는 의식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을 바로잡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불교계가 수행과 전법의 원력을 모아 나라와 민족의 비전을 제시하여 정치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피폐된 민족정신과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중흥시키는 일이야말로 불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길이다. 삼보정재이고 민족의 성보인 불교문화재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에 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조계종지도자회의는 매우 의미가 깊으며 이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천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많이 가져왔으나 선언에 그치고 실천이 미약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22일에는 조계종에서 전국 본말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갖고 사찰환경의 보호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적극 나섰었다. 또한 지난 연초에는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선언과 다짐들이 우리사회에 경각심을 불어 넣고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와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

둘째, 물적·인적 기반의 조성이 시급하다. 각종 민족문화유산을 지키는 사업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의 내년도 문화관련 예산은 당초 주관부서가 요구한 액수의 30%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성보의 현황조사나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실태조사 등에 관한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그밖에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범불교적인 기구의 확충, 불교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공연단의 상설화와 공연장의 건설, 국제불교문화교류의 확대 등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갑사경내지 5천평 '강제수용'

건교부 야영장조성 확정…교계 "법적대응"

갑사경내지 5천여평이 야영장으로 강제수용키로 결정, 조계종 총무원, 6교구본사 마곡사를 비롯 교계의 법적대응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설교통부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1월 2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감남)이 추진해온 갑사 경내지내 야영장 조성공사를 허가했다.

3일자로 발송된 중앙토지수용위 갑사토지 수용재결서에 따르면 갑사토지가 수용됐음을 통보하고 수용시기는 12월 30일로 명시했다. 이에따라 12월 30일까지 보상비 15억원이 공고되면서 토지소유가 집단시설지구내 국유지로 변경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대해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와 갑사는 10월 10일자로 발효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고 중앙토지수용위 재결위에 이의를 신청한뒤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갑사가 속한 6교구 본사 마곡사는 이번조치와 관련 "본·말사가 연합하여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담당자인 김경출씨는 "계룡산국립공원 갑사집단시설지구 건립이 최종 확정된 87년 3월 조계종총무원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났다"며 "갑사에서 토지보상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공탁신청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갑사 토지가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야영장 설계작업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는 시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총 30억원의 예산중 이미 4억원이 집행돼 예산환수가 안되는 만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교계와 계속적인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원우 기자〉



◇ 동국대학교는 3일 교수회, 노조, 총학생회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경제로 나라경제 살립시다'를 슬로건으로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창덕궁·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3일 창덕궁과 수원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창덕궁은 동아시아 궁궐건축 및 정원디자인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형식의 탁월함을, 수원화성은 근대 동서양의 과학을 통합 발전시킨 건축물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석굴암과 불국사, 팔만대장경·장경판전, 종묘와 함께 5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역사적·미적·과학적 관점에서 인류의 공동자산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先 이사장 선임 後 사장 추천"

진흥원 서돈각이사장 'BBS인사' 입장 표명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불교방송 사장직대·사진)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사장직대 영담스님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불교방송 사장직대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과 함께 매년 불교방송에 지원해 왔던 5억원도 불교방송 측에서 임대료 수도세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재지원치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서이사장은 "새 이사장이 선임된 후 사장 추천 후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추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선 사장 선임'을 주장하는 영담스님 의견에 반해 '선 이사장 선임 후 사장 추천'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표명했다.

현재 불교방송 경영상태는 공금횡령사건과 관련해 입은 23억 2천만원의 손실 외에도 10월말까지 적자 결손액 15억3천만원, 누적된 임대료 기자재 미지급금 16억원 등 31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서돈각 이사장은 "하루라도 빨리 이사장·사장이 선임돼 직대체제가 해체돼야 늘어나는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사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있으나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지연 기자〉

신행단체·동국대 경제살리기 '앞장'

실천지침 결의…절약 가두캠페인 전개

불교계의 경제살리기운동이 교계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이 2일 예산의 10% 긴축집행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조계사 청년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동국대 등이 절약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중앙승가대학은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침을 마련, 청정승가의 절약정신을 발휘하자고 촉구했다.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3일 교내 예술극장에서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금요일 캠퍼스 차없는 날 △절전·절수 및 생활장터 이용 등 5개항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동국대는 입시경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집행을 10%감축키로 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은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했다. 범국민 운동본부는 1일 서울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경제대란에 대한 현명한 국민적 대처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조계사청년회(회장 이종찬)는 11월29일 조계사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결의문 및 6대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대구광역시 불교신도회(회장 최동원)는 11월 21일 회장단회의에서 △과소비풍조 근절 △해외여행자제 △외국제품 구매근절 △소액달러 환전 등 4개항의 경제살리기 실천지침을 정하고 각종 법회나 강연회에서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신도회는 결의사항을 10일 열리는 임원회의에 상정해 신도회 사업으로 진행키로 했다.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류승무)는 4일 △오후불식을 통해 청정승가구현 △국산학용품 사용 △외국음료수(커피 콜라) 마시지 않기 등 5개항의 학인실천지침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21면〉

임원선임등 논의할듯 12일 불교방송 이사회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스님은 2일 조계종 파견이사 간담회를 갖고 제29차 재단이사회를 12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하 도후 영담스님은 12일 이사회를 개최 △98년 재단·방송 예산심의 및 승인 △조계종 이사 사퇴 △사장 선임 △이사장 선임 △이사 및 감사 선임 △지방국 설립 승인 △청주지국 분사무소 등기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조계종 전법시범도량 6곳 선정

인천-종단직영 포교당, 목포-불교대 '개설 추진'

조계종 전법시범도량으로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와 경기화성 신흥사(주지 성일), 경북상주 남장사(주지 성웅), 경남 거창포교당(주지 주현), 광주 향림사(주지 천운), 전북불교회관(대표 강건기) 등 6곳이 선정됐다.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는 2일 총무원 4층회의실에서 전법도량 지정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전법의해 조직위원회는 6개 사찰은 지역을 안배해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거점사찰과 시범사찰을 다양하고 폭넓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법시범도량으로 선정된 사찰에는 지정서와 전법도량 현판, 지원금이 전달되며 전법도량 지정규정에 의거해 법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법의해 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거점지역에는 신도교육 위주의 종단직영 포교당 개설(인천), 목포지역의 경우 관할 교구본사인 대둔사와 이 지역 조계종 사찰이 함께 불교교양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문화재는 신경 안쓰고…

알솜 Alsom은 수맥·전자파 차단과 단열을 동시에 해결!



알루미늄단열재 생산 15년의 경력과 기술로 신제품 개발

· 실용신안특허출원 제26706호 · 실용신안특허등록 제89207호 · 상표등록특허출원 제45121호

고순도의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최초로 개발된 수맥·전자파차단 단열방습지 **알솜 Alsom**은 간편한 시공으로 수맥·전자파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단열과 습기, 독성등을 동시에 차단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으로 냉·난방의 열효율을 한층높여 연료비를 현저히 절감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알솜 1000
- ■ 수맥파의 가공할 위험 차단효과!
- ■ 전자유해파의 피해 차단효과!
- ■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경이적인 단열효과!

용 도 : 신축주택, 아파트의 난방파이프 바닥 등 기존주택의 장판면이나 침대

알솜 500
- ■ 수맥과 전자파를 동시에 차단하고 이동이 간편하며 실내에서 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만든 메트형 제품

용 도 : 전기장판, 전기담요 상부 일반요, 침대(병원침상 등)

알솜 100 단열과 방습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모든 건축물, 축사, 창고등의 바닥이나 벽체및 천정에 사용

전국대리점모집

본 제품의 특성

수맥파 차단 및 방습, 방수, 방음효과	: 순도 99.6%이상 고순도 알루미늄과 아스팔트와스등 복합소재 사용
단 열	: 알루미늄의 뛰어난 열전도·반사율로 인한 단열
독성차단	: 시멘트 몰타르등의 유해성분 차단
편리한 시공	: 줄무늬를 인쇄하여 절취가 편리하고 재질이 유연하여 사용이 간편
파격적인 가격	: 알루미늄재질 사용으로 가격저렴

제조원
삼민산업주식회사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91-8 (시화공단 4나-109호)
TEL : (0345)498-5533 (代)
FAX : (0345)498-8998

"절부터 환경보호 모범"

조계종 '사암 환경시설 의무화' 의미

종단 현실직시 환경행정 '박수'

해당사찰 실행·예산확보 '관건'

사찰주변 환경훼손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찰도 주변 환경보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자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찰환경위원회(위원장 능관·사회부장)가 지난달 26일 각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에 발송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공문은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자구책이 종단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찰의 생활오수가 인근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과 관련, 내년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사찰도 환경파괴로부터 더 이상 해방구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한 행정조치여서 주목된다. 이로써 조계종 산하 사찰은 29일까지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6월30일까지 화장실, 후원등 생활오수에 따른 정화조, 쓰레기 소각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이 실태조사나 시설설치는 우선 예산이 요구되므로 예산확보가 과제이다.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은 행정명령 시달, 협조요구등 원칙적인 선언성 입장보다는 구체적으로 일선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과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사찰은 오수처리를 자연발효에 의한 전통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찰 참배객 및 관람객 급증, 각종 세제사용 증가 등으로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찰도 환경오염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사찰 생활오수가 인근 하천은 물론 계곡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대두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 사찰이 예전처럼 환경지킴이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오수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사찰측의 의식전환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사찰이 생활오수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즉 후원의 배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뭐그리 대단하냐"는 식이였던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그러나 사찰이 현 상황에서 하천오염에 큰 영향이 없다고 계속 방치한다면 많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즉 자체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과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찰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장애를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환경부 생활오수과의 한 관계자도 "사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발효방식으로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생활문화가 변한만큼 사찰도 오수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경부는 최근들어 사찰환경문제가 일부 지자체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어 금명간 실사를 벌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총무원의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당해사찰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게 지배적이다.

김중근 기자



◇불교운동본부는 북녘동포돕기운동을 교계 전체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사진은 불교운동본부의 '겨울옷 보내기 운동'.

"16억 모금 동포아픔 함께했다"

교계 북돕기운동 전개 1년

의약품·옷 보내기도 전개

두단체 따로 활동 '아쉬움'

동체대비 무아일체 사상의 실천으로 사부대중의 폭넓은 동참을 이끌어낸 교계 북녘동포돕기운동이 12일로 1년을 맞는다.

교계 북녘동포돕기운동은 작년 12월12일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5월6일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효림스님)가 결성되면서 북돕기운동은 전종단, 전국사찰로 확산됐다.

현재까지의 모금액은 불교운동본부 8억7천여만원 불교추진위 7억7천만원이며 총 10차례 식량지원을 했다. 두 단체의 모금운동이 갖는 의의는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으로 '동포살리기'를 통해 대사회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불교계의 한계를 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는 교계 북녘동포돕기운동이 일회성 모금운동이 아닌 거시적 관점의 통일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준비하는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두 단체 모두 통일을 준비하는 교계 공식기구로 도약하기 위해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단체의 노력이 남북불교교류 등 문화교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보완,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정은 기자

목어

"누굴 쩍을까"

"누굴 찍을까"

대통령 투표일이 1주일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다고 한다.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92년 제14대 대선에서는 1주일전까지 지지후보를 결정못한 유권자가 약 32%였다. 마음에 드는 대통령감을 못찾아 이리재고 저리재는 부동표다.

부도난 이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이니 어찌 소홀할 수 있겠는가. 누가 진정한 지도자 일까.

어떻게하면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은 자비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 매달 나라일을 두루 순시할 때에는 수레에 의복과 약품 등 갖가지 생활용품을 싣고 나가 가난한 사람과 병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장례를 치러 주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만날때면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 자책하였다. "내가 덕이 있었다면 백성들도 풍족하게 지낼텐데, 내 덕이 부족한 탓으로 백성들이 가난하구나. 그러니 백성들의 가난은 곧 내 자신의 가난이나 다름없다."〈육도집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증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왕으로서 다음 10가지 일을 이루는 자는 장구하지 못하고 나라에 도둑이 많이 생기리라. 인색한 나머지 작은 일에도 노하여 도리를 살피지 않는다. 재물에 집착한다. 남의 말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뺏는다. 그릇된 일을 도와 바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의 여인에 집착한다. 술을 좋아해 정사에 소홀한다. 가무를 즐긴다. 긴 병을 지니고 있어 건강치 못하다. 총성스런 신하를 신임하지 않아 강한 보좌자가 없다."

비슷한 정책과 공약, 서로 비방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말씨름만 가지고는 선택이 어렵다. 겉만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후보들의 속살림을 들여다 보자. 백성의 가난을 자기 허물로 여길 수 있는지, 마음이 넓은지, 재물을 멀리하고 여론을 수렴하는지, 상황판단을 잘하고 건강한지, 총성스런 신하가 많은지 눈여겨 보자.

그런후 나라의 밝은 미래를 발원하면서 소중한 한표를 찍자.



수요 인터뷰

동국대 불교사회문화硏 초대원장 호진 스님

"불교연구와 사회실천 접목"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개원됐다. 초대원장을 맡은 호진스님(불교학과 교수)을 만나 개원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었다. 스님은 내년 2월 도불(渡佛)하여 1년간 프랑스불교를 연구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연구원을 개원하게 된 계기와 의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경주캠퍼스 개교 20주년이 됩니다. 또한 불교문화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승격한지도 5주년이 됩니다. 이에따라 불교관련학문을 심층연구할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절실해졌습니다. 연구소보다 격을 높인 연구원(院)을 설립함으로써 서울캠퍼스의 불교문화연구원과 더불어 본교는 2곳의 불교연구원을 갖추게 됐습니다. 기존의 불교문화·불교이론 중심의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사회·불교실천 연구를 집중시킴으로서 명실공히 대중을 향한 불교사회·문화를 꽃피운다는 취지로 개원하게 됐습니다. 각종 연구소가 통폐합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연구원 설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야를 연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불교학·선문화·불교아동·불교예술·불교사회등 5개 연구부서가 설치되어 각각의 분야를 연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문화연구부는 선학·선사상·선실천 등에 대해서, 불교사회연구부는 불교복지·불교의학·불교과학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이들 연구부는 매년 학술회의와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며 관련 연구논문과 서적을 출간하게 됩니다. 또한 불교관련 자료수집은 물론 국내외의 유관단체나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제휴를 통해 연구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조직구성과 재원마련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요.

▲원장외에 각 부서별 부장과 다수의 연구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사와 연구원, 조교가 있어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구위원은 각분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총장직속기구에 속하게 되며 불교문화연구원과 차별성을 두기위해 지역사회와 관련된 불교연구등을 연계시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금과 학술용역사업·출판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의 발전구상이 있으시다면.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요람인 신라불교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불교사회·문화연구의 메카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제반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현대와 미래의 불교에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불교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할 작정입니다.

-내년 2월 프랑스에서 불교학을 연구하신다는데…

▲특별한 연구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불교를 한번 더 살펴보고 싶었던 차에 시간이 허락돼 결심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여러나라 가운데 불교학문이 가장 발달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동안 유럽불교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후학지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주=이윤호 기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2월 테마여행 - 제주도 법화사지 外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은"

제주도에 부처님 제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려대장경〉법주기에는 석가모니 16제자 중 발타라존자가 탐몰라주(제주도)에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라산 서쪽 기슭 존자암지가 그 초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또하나의 한국불교 초전지 제주도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찰은 없지만 제주도는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사찰이 많았던 곳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인 관음사를 비롯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법화사지, 국내 최대의 법당이 있는 약천사, 제주 유형문화재1호 5층석탑으로 유명한 불탑사 등의 사찰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제주불교의 맥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12월 13일(토) 오후1시 · 김포공항
◇장 소: 법화사지 · 관음사 · 약천사 · 불탑사 · 목석원 · 금릉석굴원 · 산방산 · 수목원 · 용두암 등
◇회 비: 135,000원
◇안 내: 강창화(제주대 강사)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한국불교 신증본찰 선학원중앙선원 중흥불사 · 천일기도첫百日 전국 禪院長 · 祖室 · 方丈큰스님 특별초청

千日기도 첫百日 大法會

法水禪院 祖室 李性壽 大禪師 초청 제2회 한국불교전통선(禪) 중흥영산대설법회상

모시는 말씀

한국불교 신증본찰 **선학원 중앙선원**은 **송만공, 만해 한용운, 백용성** 큰스님께서 화주가 되어 창건된 선학원은 3·1운동을 주도한 국운창출의 원찰이며 **이효봉, 하동산, 정금오, 이청담** 대선사께서 한국 불교계 정화불사를 이끌어 오늘의 조계종 전통종단을 중흥한 찬란한 역사를 창조한 선학원은 한국선종불교로 이 時代의 聖地임을 自他가 아는 事實입니다.

이 時代의 佛敎 聖地인 禪學院에서는 특히 李成桂 太祖大王에 王師로 계시든 無學大師께서 宮터로 잡은 창덕궁(지금의 비원) 백도로 송만공 큰스님께서 손수 두분의 아미타불 부처님을 조성하여 한부처님은 선학원에 모시고 한부처님은 수덕사 정혜선원에 모신 선학원은 여러 명안조사님의 정기가 서려 있을 뿐아니라 선학원 중앙선원 동, 하안거 방함록은 전국 선원중 제일먼저 설여 있든 시절이 있었음을 돌이켜 볼 때 선학원의 禪風이 일면 한국 禪宗佛敎가 興하고 선학원의 위세가 가라앉으면 한국 禪宗佛敎가 혼돈을 겪는 것을 지켜본 후에로써 옷깃을 여미며 三寶佛께 발원하여 선학원은 34년 만에 단청불사를 계기로 삼아 한국 선종불교 중흥의 도량이 될 선학원 대작불사 서원을 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時代의 佛敎聖地 歷史的인 佛事에 선남선녀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있으시길 바라옵고 단청불사 千日기도 동참공덕으로 가정의 팔란과 고와 액이 소멸되어 다행다복한 주인공이 되시옵길 축원합니다.

아 래

특별초청 입제법어 **法水禪院 祖室 李性壽 大禪師**

신증소의경전 금강경 산림설법 삼장법사 윤성해대법사(선학원 중앙선원장)

■ 때 : 1997년 12월 12일(음11월 13일) 오전 11시
■ 곳 : 한국불교 신증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큰 법당**

▣주 최 : 한국불교 신증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 화주단**
▣주 관 : 신도회 · 운영위원회 · 합창단 · 108보리심회 · 선정회 · 청년회
▣문 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
TEL. 732-3327, 720-8583, 720-8584

불기 2541년 (음)11월 13일

한국불교 신증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千日기도 첫百日大法會

제2회 한국불교전통선(禪) 중흥영산대설법회상

法水禪院 祖室 李性壽 大禪師



◆ 약 력

· 서울조계사 주지 · 조계종 총무원장 · 지리산 황대선원 주석
· 부산 범어사 주지 · 세계불교 지도자대회(일본국주체)
· 가야산 해인사 주지 한국대표참석

한국불교 신증본찰 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34년만의 불사) 완료
④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⑤ 일주문전통양식 건립불사

2차
⑥ 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첫百日 전국선원장, 조실, 방장큰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設法會上主催 제1회~제10회(매 백일간격으로)
⑦ 선학원 창건 사적비 새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⑧ 한국불교계 정화불사 기념비 및 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⑨ 한국불교계 淨化史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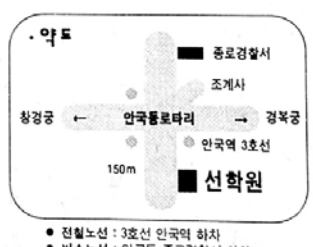
불기 2541년 (음)11월 13일

◆화 주 단

황자현심 이관음행 유정혜성 손진여심 윤보광심 정선덕행 송 경 헌 신 옥 순
민길상심 권지애심 정본각성 박선혜일 이법왕자 이보현심 김마하연 박보리성
오만덕화 김복덕성 박덕순화 이 광 덕 지 혜 장 곽성불성 고만덕성 김도월행
이보원심 운영위원일동

◆신 도 회

명 예 회 장 염무영월
고 문 양보타월 이선행화 이연화심 이 중 회 엄공덕화 정본각성
회 장 이관음행
부 회 장 이반야행 최 복 식 유정혜성 황자재심
총 무 신성지행 이법왕자
재 무 손진여심 신월명심
1 지역회장 이반야행
2 지역회장 유정혜성
3 지역회장 최 복 식
4 지역회장 황자재심
합창단단장 유정혜성
총 무 김진실행
108보리심회 회장 최 인 순
총 무 박보리성
선 정 회 남총무간사 이 상 희
여총무간사 김 근 나
청 년 회 장 이 상 훈



● 전철노선 : 3호선 안국역 하차
● 버스노선 : 안국동 종로경찰서 하차
(84, 132-1, 205, 543, 2, 8, 20, 153)



월주스님 동국대 발전기금 2억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일 총무원장실에서 불교종합병원 건립 등 동국대 발전기금 1억원과 경주캠퍼스 승려기숙사 건립기금 1억원등 총 2억원을 동국대 송석구 총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이어 월주스님은 3일 오전11시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에게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발전기금들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모금된 금액의 일부이다.



◇2일 월주스님을 방문한 조순총재와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대불교계 공약 11개항을 전했다.



◇국민회의 연등회 추미애 의원등이 사찰을 방문 스님들을 만나고 있다.



◇이인제 국민신당후보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 참석해 불교계 지원을 호소했다.

각정당 "佛心을 잡아라" 동분서주

한나라당 조순총재 조계종 총무원 방문
국민회의 연등회·자민련 중심 사찰방문
국민신당 서석재·한이헌씨등 표밭공략

제15대 대통령선거일(18일)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당 후보들과 당직자들의 '막바지 불심잡기' 행보가 분주하다. 각당은 불교특별대책반등의 기구를 통해 불교계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순총재는 2일 10여명의 당직자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 대불교계 공약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전달된 공약은 한나라당이 내놨던 기존의 5개항에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 불교방송국 지방망 확산, 성보박물관 건립지원등이 추가된 11개항이다. 한나라당은 범종교계를 향해 윤리도덕성 회복운동과 범종교문화회관건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11월26일에는 이회창후보의 부인인 한인옥씨가 조계종 총무원과 전국비구니회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소속 불자의원들은 지역사찰과 스님들을 꾸준히 접촉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찌감치 불교계 접촉을 시도, 교계기자간담회 종단대표자 간담회 등을 마친 세정치국민회의는 연등회와 자민련 불자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찰 접촉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민회의측은 대구·부산지역 공략을 위해 두 지역에 지역특위를 따로 구성, 대구지역은 박철언 주양자 의원이 부산지역은 추미애 정한용 한영애 의원 등이 뛰고 있다. 이들도 각종 법회참석은 물론 개별적으로 사찰을 방문, 스님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사찰배포용으로 '큰뜻 이루소서' '서원'등 홍보책자를 발간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신당은 국회정각회 회장인 서석재최고위원과 한이헌정책위의장이 불교계 공략을 지휘하고 있으며 이인제후보의 부인 김은숙씨도 불자임을 강조하며 불교계 접촉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법명이 진여심인 김씨는 이미 9월부터 전국의 1백40여 사찰을 방문했으며, 서최고위원은 자신과 인연을 맺어온 불교계 단체와 사찰들을 집중 방문하고 있다. 이인제후보는 1일열린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에 참석, 성보박물관 건립지원을 강조하며 한표를 당부했다.

임연태 기자

교 차 로



KTV '인간대학'서 특강



심중 부산자비사 주지는 8~9일 KBS 1TV 인간대학에 출연 '참되게 사는 길과 모정심리'를 주제로 특강했다.

강릉 관음사주지 맡아

현법 월정사 기획실장스님은 3일 강릉 관음사 주지로 임명됐다.

부평 불교聯 초대회장



홍제 부평 관음정사주지는 8일 '백운웨딩프라자 8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부평 불교연합회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에 추대됐다.

베를린 송년음악회 참가

병오 독일 보문사 주지는 14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97 송년 음악의 밤에 베를린 필하모니 싱아카데미 합창단원으로 참가해 슈베르트, 바하, 스트라빈스키 등의 곡을 연주한다.



북녘돕기 심포지엄 참가

법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스님은 5~6일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 '북녘돕기운동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룸비니 합창단 발표회

법민 대구은적사 룸비니합창단 장 스님(총무원 기획국장)은 11월28일 대구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2회 합창발표회를 가졌다.



봉사기금 마련 하루찻집



지도 대구자비의 전화회장스님은 4일 전통찻집 에운담에서 봉사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었다.

자랑스런 불자상 수상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은 (사)불국토가 주최하는 제5회 자랑스런 불자상에 선정, 9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서울대 불교동문 송년법회



전창열 서울대불교동문회장(변호사)은 3일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관음정사에서 동문회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창작무용 '꽃이여…' 공연



김복희 현대무용단장(한양대 무용과 교수)은 4~9일 정동극장에서 창작무대 '꽃이여 바람이여'를 공연했다. 이번 무대에서 김복희무용단은 '장승과 그림자' '진달래꽃' '삶 꽃-바람꽃' '피의 결혼' 등의 작품을 공연했다.

'대원가족의 밤' 행사



허성구 대원불교대학장은 대원불교대학 주최 '대원가족의 밤'을 11월28일 프레지던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가졌다.

연꽃 달력사진집 배포

모동신 한국자연환경사진연구소장은 최근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라는 달력사진집 1000여권을 동국대 등 교계단체에 보시했다. 이 달력사진집에는 족자용 브로마이드 2점과 12점의 연꽃사진이 들어있다.

97 '솟대 문학의 밤' 개최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은 5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97 솟대문학의 밤을 개최했다.

문체장관·청협회장상 수상





하영태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사진 위)과 **박법수** 경기지구 회장은 8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청협 '97 임시총회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공로로 문체부장관상과 청협 회장을 각각 수상했다.

KTV '인간대학'서 특강

심중 부산자비사 주지는 8~9일 KBS 1TV 인간대학에 출연 '참되게 사는 길과 모정심리'를 주제로 특강했다.

강릉 관음사주지 맡아

현법 월정사 기획실장스님은 3일 강릉 관음사 주지로 임명됐다.

부평 불교聯 초대회장

홍제 부평 관음정사주지는 8일 '백운웨딩프라자 8층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부평 불교연합회 창립법회에서 초대회장에 추대됐다.

베를린 송년음악회 참가

병오 독일 보문사 주지는 14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97 송년 음악의 밤에 베를린 필하모니 싱아카데미 합창단원으로 참가해 슈베르트, 바하, 스트라빈스키 등의 곡을 연주한다.

북녘돕기 심포지엄 참가

법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스님은 5~6일 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 '북녘돕기운동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가했다.

룸비니 합창단 발표회

법민 대구은적사 룸비니합창단 장 스님(총무원 기획국장)은 11월28일 대구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2회 합창발표회를 가졌다.

봉사기금 마련 하루찻집

지도 대구자비의 전화회장스님은 4일 전통찻집 에운담에서 봉사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을 열었다.

자랑스런 불자상 수상

최완수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은 (사)불국토가 주최하는 제5회 자랑스런 불자상에 선정, 9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수상식을 가졌다.

서울대 불교동문 송년법회

전창열 서울대불교동문회장(변호사)은 3일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관음정사에서 동문회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창작무용 '꽃이여…' 공연

김복희 현대무용단장(한양대 무용과 교수)은 4~9일 정동극장에서 창작무대 '꽃이여 바람이여'를 공연했다. 이번 무대에서 김복희무용단은 '장승과 그

'대원가족의 밤' 행사

허성구 대원불교대학장은 대원불교대학 주최 '대원가족의 밤'을 11월28일 프레지던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가졌다.

연꽃 달력사진집 배포

모동신 한국자연환경사진연구소장은 최근 '연꽃향기 누리 가득히'라는 달력사진집 1000여권을 동국대 등 교계단체에 보시했다. 이 달력사진집에는 족자용 브로마이드 2점과 12점의 연꽃사진이 들어있다.

97 '솟대 문학의 밤' 개최

방귀희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은 5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97 솟대문학의 밤을 개최했다.

문체장관·청협회장상 수상

하영태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사진 위)과 **박법수** 경기지구 회장은 8일 서울 올림픽파크호텔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청협 '97 임시총회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공로로 문체부장관상과 청협 회장을 각각 수상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봉은사 청년회 238,500원 △동아대 한의학과 190,000원 △이츤경 1,400,000원 △윤용숙 1,000,000원 △고상현, 송은아 200,000원 △윤성렬 150,000원 △손안식 100,000원 △이영길 100,000원 △고동우 100,000원 △김태완 70,000원 △최현숙 60,000원 △박연실 50,000원 △박영서 50,000원 △손영신 50,000원 △김희수 50,000원 △김동일 50,000원 △박기정 50,000원 △김태희 40,000원 △전병득 30,000원 외 △한 끼 굶기운동 803,500원

〈3일 현재 총 877,999,618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여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세계불교 시험… 마음을 비우고…

Focus



'띠리리리 리리리~♪' 4일 명성여중(교장 안은자) 1학년 시험시작 종이 울렸다. 시험때문에 긴장할만도 하건만 학생들의 표정은 여느 시험때와는 달리 밝고 자신감에 차 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집은 반드시 남겨놓은 은덕이 있다'라는 속담은 우리에게 어떤 이치를 가르쳐줍니까?
①모든 일이 무상하다 ②중생과 함께 놀자 ③중생의 고통을 없앤다 ④인과를 깊이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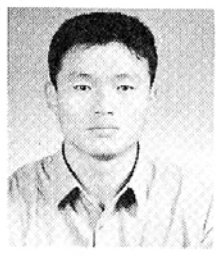
대만 불광사(창건주 성운스님)가 주최한 제2회 세계불교고사 현장이다.

세계불교고사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아프리카 등 2백여 나라에서 실시되며, 불교 기초교리 일반에 절 상식 등에 대해 출제된다.

도필선 기자

"정신과 물질 접속의 장 마련"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시삽 박춘동 씨



"과학과 동서양 철학, 타종교 이론과 불교의 이론을 비교하는 등 정신과학과 물질과학 양면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일 10~20대 네티즌불자들의 불교동호회인 PC통신 '나우누리 부처님마을' 제4대 시삽선거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된 박춘동(30·아카데미컴퓨터 대표)씨는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등 4대 통신 불교동호회 및 비불교 동호회·조직과 연대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회장은 △회원중 신청자에 한해 단계별 교리강좌를 개설하고 △신입회원들을 위해 〈불교 기초교리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또 △신앙심 고취와 포교를 위한 '나우불동 백일장'을 개최하고 △사찰답사반을 조직하며 △불교탄압등 불교계 현안에 대해서는 타통신 불동 및 불교언론과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다.

박회장은 부산 기장군 대자원에서 불교학생회(고등부) 활동을 했으며 서울대 법학과를 중퇴했다. 91년부터 96년까지 부산 기장군 횡금사에서 고시공부를 하다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김재경 기자

축 개관

법륜사 수향회관 입주자 모집

삼보귀의 하소서!
연로하신 노인들의 아름다운 회향을 법륜사 수향회관과 함께 하십시오.



■ 완공된 법륜사 수향회관은? ■

① 아담한 한옥과 편리한 현대식이 어울린 최고의 시설과,
② 자체 농사로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③ 욕탕 의료, 운동시설, 휴게실등을 갖추어
④ 가족과 친지분들이 오셔서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⑤ 지치고 얽히고 설킨 한과 고를 소멸할 수 있는 기도와 좌선 예불을 올리며
⑥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취미에 따라 비구니 스님께서 정성껏 모시며
⑦ 특히 치매노인을 10명까지 입주시킵니다.

평생 수향 분담금 안내

남녀총인원	65명	※ 자격 및 연령제한 없습니다.
방1실 ~ 1명	평생 수향하실 분 - 3천만원	◆특혜 : 치매노인 10명 선착순 마감 (4천만원-평생)
방1실 ~ 2명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5백만원	
방1실 ~ 3명이상	평생 수향하실 분 - 2천만원	
고 시 생	00명	(단, 3개월,6개월 이상자에 한함 - 일부 보증금, 월30만원)
문 의 처	본찰 법륜사 0543-955-1379	
	부산 법륜사 051-331-3084	

※ 빠른 시일내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접수마감 : 12월말까지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선주리 (해인사 길목, 경남·경북 경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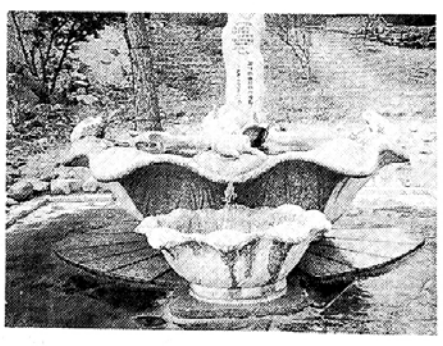
· 주지: 운 봉 · 총무스님: 자 혜 · 신도회장: 이 경 자 합장

석불, 천불전, 만불전, 석탑, 석등, 부도, 연꽃수각, 공덕비, 주춧돌등..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도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 기능올림픽 수상

작품 실적

- 전주시 효자동 일원사 불사 96년 초부터 현재 불사 조성중
- 108법 오층석탑 완성
- 지장불, 미륵불, 비로자나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대불 오불성전 완성
- 현재 좌불 만불전 조성중

※ 전국 각 사찰에 많은 불사를 하였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 표 김 옥 수 합장

주말마다 보살행 '7년째'

탐방 청주불교신행회

불우이웃을 돕는 보살행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보이지 않게 신행을 펼쳐온 모임이 있다. 7년전 청주불교 금강회관에 둥지를 틀고 구도와 교회사업, 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해 온 청주불교신행회(회장 신호식).

청주불교신행회는 첫째 일요일 혜능보육원, 둘째 일요일 청주양로원, 매주 셋·넷째 일요일 청주소년원(미평중·고등학교)을 방문해 봉사활동과 점심공양, 불교학생회 정기법회 등을 주관하는 한편 무의탁노인 6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1주일에 한 번씩 3명이 한 조가 되어 친부모처럼 모시고 있다.

또한 청주교육대학 불교학생회와 신흥고등학교 불교학생회에 매달 지원금을 보내고 매달 둘째 토요일 오전에 학교 특활시간을 이용, 학생법회를 법당에서 열고 있다.

6년을 넘게 이같은 보살행을 이어온 것은 결코 회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거사 20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업주부인 회원 150명이 한 달에 회비 5천원씩을 모으는 정도다. 이들이 남이 알아주건 말건 소리없이 보살행을 펼쳐 온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수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 매달 초사흘 기도법회와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를 통해 불교강의와 참선정진을 통해 보리심을 다지고, 매달 둘째 일요일 천도염불독송을 통해 회원들과 이웃의 애사(哀事)에 염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 때로는 염습등 장의교육도 시행해 궂은 일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

평소 기도로 보살심을 키워 온 청주불교신행회가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불사가 있다. 바로 청주소년원 불교학생들에 대한 교화사업이다. 6년전 지도법사인 진우스님(비암사 주지)의 3개월간 공개강의를 시작으로 교화사업을 펼쳐, 이제는 120명(전국 소년원 평균 불교반 원생 수는 40여명)으로 늘어난 불교반 원생을 친자식처럼 돌보고 있다. 한 달에 두번

소년원 양로원 찾아 가족처럼 돌봐
불교학생회 법회지원 등 교화 앞장



◇청주불교신행회 회원들은 매달 두번 청주소년원(미평중·고)을 방문, 법회도 보고 대화도 나눈다. 사진은 지난 1월 열린 수련회 및 수계법회 장면.

소년원을 방문해 준비해 간 점심공양을 함께 하고 부모가 되어 원생들의 고민과 꿈을 상담해 주는 한편, 정기법회와 수련회, 수계법회 등을 열고 원생들이 사회에 나가 선재동자 처럼 구도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있다.

청주소년원 종교위원이기도 한 신호식회장(52)은 "소년원에 불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만화 화엄경〉(불교만화사 刊) 처럼 호응이 좋은 책이 없었다"면서 "불자님들이 어려운 경전 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불서 법보시를 많이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불교신행회는 보이지 않게 펼쳐온 보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0431)53-3882

청주=김재경 기자



생명나눔을 위한 녹원스님 초청법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생명나눔을 위한 녹원스님 초청대법회를 11월 28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법회에서는 녹원스님(동국학원이사장) 법문에 이어 박영남씨의 투병사례발표, 환자의 쾌유를 바라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수덕사주지 법장스님, 불교TV 사장 태응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 송석구 동국대총장 등 신장기증자와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대구불교신행단체聯 창립법회

'대구광역시 불교 신행단체연합회'(회장 유상종) 창립법회가 11월30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15개 재가신행단체 소속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보광원조실 화산스님을 비롯 유상종 대불회 회장, 前 거사림정법회장 양인석박사와 남두희변호사, 권오주 대구구도회장, 강인성 대구경불련회장, 이상번 대불청중앙회장, 박철언 자민련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불자련합창단 창단 발표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이하 불자련) 합창단 창단발표회가 3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광우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 현주스님(불자련 합창단장) 정도스님(동국대 석림회회장) 송재건 조계종전국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평세계를 기원하는 범패의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날 창단 발표회는 '우리도 부처닏같이' 등 17곡이 합창됐다.



울산 경불련 창립 2주년 기념법회

울산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류관희)은 4일 울산 정토사 대웅전에서 창립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진제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의 가르침으로 시대적 난관을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새해 1월 창립

지역대표 24명 발기인회 구성
"청소년 포교·문화재보호 중점"

새싹불자를 기르는 교사불자들의 전국 직능연합체가 마침내 내년 1월 18일 창립된다. 서울·경인 부산 충북 경북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교사불자회 대표 24명은 11월 29일 대전중앙불교회관에서 (가칭)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발기인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18일 금산사(예정)에서 겨울수련회(16~18일)를 겸해 창립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창립준비위원장에 임완숙 서울·경인교사불자회장을 선임하고 각 지역 대표 1~3인씩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창립 전까지 미결성된 대구 대전지역 교사불자회도 창립키로 했다. 또한 회원자격을 전현직 교사(교장 교감 전문직 사무직 포함)로 확대하고 고유사업을 △교사불자들의 인격도야 및 친목도모 △사찰순례를 통한 전통문화 애호활동 △청소년 교화사업 △포교자료 개발 및 간행 △민족정기 함양을 위한 사업 등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회칙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 교사불자모임이 회칙초안의 제3장 8조 "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는 '명예임원'



◇지난 9월19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지역 교사불자회 창립법회.

조항을 들며 "전국교사불자연합회가 조계종 포교원 산하 기구화 되어 자율성을 잃지 않겠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사불자모임의 연합체는 어디까지나 자생적인 조직으로 결성돼야 한다"는 이같은 주장과 관련해서는 "회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된다"는 다수의견이 있어 절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연수국장 법경스님과 고완수 연수과장, 산하단체관리담당 김병주계장이 참석했으며, 전국교사불자회 창립법회에 1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불교 쉽고 재미있게 알려요"

레크리에이션포교회 전용법당 마련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가 전용법당을 마련해 새 각오로 불교놀이문화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대형빌딩에 8평규모의 독립공간을 마련한 同회는 15일 현판식과 송년 및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활발한 포교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향후 계획보고, 후원금 모금 및 레크리에이션 시간으로 진행.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창립된 同회는 지난 85년 7월1일 창립됐다. 그간 △매주 월요일 공개강좌 △20회에 걸친 여름·겨울 불교학교 지도자교육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 과정 교육(연인원 5천여명 배출) △레크리에이션 지도서 출간 △어린이 신앙 확립을 위한 연꽃캠프 △각종법회에 지도자 파견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전용 교육장과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02)738-7860

제주운불회 '법륜' 창간
탐라불교 역사 소개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를 자임하는 제주불교운전기사회(회장 오중수)가 기관지 〈법륜〉 창간호를 냈다.

창간호는 창립1주년의 발자취와 활동사진, 회원기고, 불자관광 안내 체험기 등을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기획으로 다룬 '제주불교의 과거와 오늘'은 제주불교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눈길을 끈다.

이 기획에 따르면 도내 최초의 사찰은 존자암지이며, 고구려시대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유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1백30여개에 달했으나 조선 숙종 28년에 이현상이 제주목사로 부임, 절을 모두 불태운 후 불교가 크게 위축되었다. 현재는 사찰 1백95곳, 불교유치원 3곳, 불교유아원 2곳이 생기는 등 예전 탐라불교의 교세를 회복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우리는선우 '생명사랑캠프'

우리는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청소년불자에게 부처님의 생명존중 정신을 본받고 계승하여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하는 '선재 생명사랑 캠프'를 내년 1월 3~5일 2박3일간 청주 지혜방생원에서 연다. 同회는 이에 앞서 27일 오후3시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예비소집을 갖는다. 중·고생 8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5만원(교재·기념품 지급). (02)278-8672

청주실업인회 송년법회

청주불교실업인회(회장 김현배)는 9일 오후 청주시내 석정회관에서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가졌다.

97년 활동을 결산한 이날 법회에서 同회는 내년 1월에 신입회장단을 구성하고 실업인회 전용회관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불자 경제난 극복발원

한국산업은행불교회(회장 이형관·기술개발지원팀 부부장)는 6일 오후 본점 32층 강당에서 구룡사 주지 정우스님을 법주로 창립9주년 기념 및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하룡이)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이날 법회에서 금융인불자들은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발원했다.

서울 경기 교정인임원모임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오희창)는 지난 11월 27일 조계사 부근의 한 식당에서 서울·경기지역 교정인불자 임원진모임을 갖고 한 해 활동을 결산했다.

송년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모임에서 임원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소자불자에 대한 지원이 약해질 것에 대비, 불교교화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東大 동문회 장학금 전달

동국대불교학생회동문회(회장 김광득·장기신용은행 일산지점장)는 6일 오후 정각원에서 송년법회 및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이회용 군승단장과 박경준교수(동대 불교학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3명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

하불동 기초예절 강의

하이텔불교동호회(회장 김주서)는 14일 오후 2시 인천 보각선원에서 인천·부천지역 모임 송년법회를 갖는다.

주지 보천스님이 법문이 끝난 뒤 불교에 대한 의문이나 사찰기초예절 등을 지도한다. (032)887-1174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우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토요일
10:20-11:10
15:30-16:20
19:10-20:00
매주 일요일
20:20-21:1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잘했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이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벗고 나섰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놔보세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진답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법회안내

통도사 부산포교원 (051)816-2241
※송년법회 12월14일오후6시
※재야와종 타종법회 '2월31일 일경주석굴암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부산불교거사림회 법회 매월 둘째·마지막주 화요일 오후7시


◇주지 심산스님

파주 도솔암 (0348)942-7703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10분
산신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10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산신재 대년 3월16일(음) 참아정진
산신재 대년 9월16일(음) 참아정진


◇주지 성조스님

보리원 (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가족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1시

구암사 (02)877-2378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반야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금광사 (062)375-3191
정기법회 매월18일(양)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수첩

연기설 · 번뇌론 쉽게 강의

동산반야회 교리강좌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체계있게 학습해 인간존엄의 참의미를 자각해보자.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4일부터 98년 2월22일까지 동산법당에서 '불교교리 강좌'를 갖는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의 정의·특징·분류 △삼보·삼과설 △연기설 △사성제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강의 △수계의식 등을 무진장(前 조계종 포교원장)스님이 강의한다. (02)732-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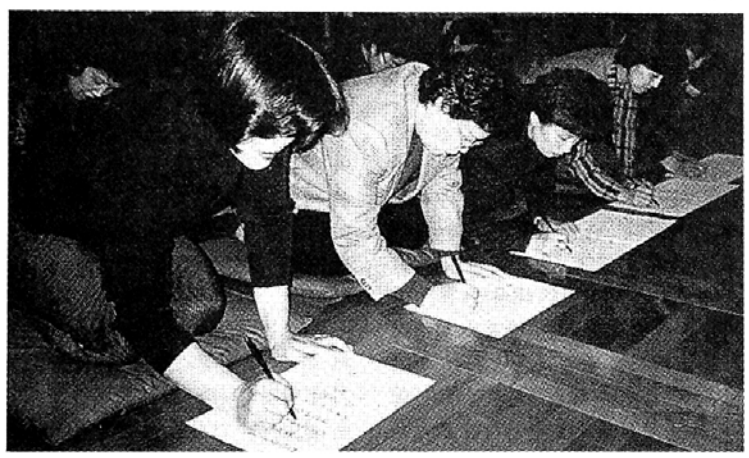
"사경공덕은 무량하다"

능인선원 10·11일 사경대회

경전의 법문을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손수 쓰면서 그 의미를 실천하자는 뜻이 담긴 사경(寫經).

서울 포이동 능인선원(원장 지광)은 10·11일 양일간 대법당에서 '사경대회'를 실시한다.

능인대불의 복장 장엄을 위해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반야심경〉을 사경한다. 경의 문자들은 한지 한자가 우주법계의 형상을 드러내고 근기에 따라 법을 펼쳐 중생을 이익되게 하니 사경 공덕은 예로부터 무량하다 하였다. 그 자체가 기도, 염불, 참선인 사경을 통해 소원성취를 발원해 보자. (02)577-5800


◇사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과 몸에 가득 채우는 성스러운 행위. 능인선원(원장 지광스님)은 10, 11일 양일간 사경대회를 개최한다.

'성불로 가는 길' 설법

육주사 선지식 초청법회

육주사(주지 현엽)는 14일부터 98년 1월4일까지 대광명전에서 '선지식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성도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법회는 △14일 회암스님(녹야원 주지) △21일 법광스님(통영 약수암 암주) △28일 지안스님(양산 통도사 승가대 교수) △98년 1월4일 성립스님(김해 청량사 주지) 등의 순으로 '불자로서 지녀야 할 수행자세'에 대해 법문한다.

(02)971-0042

자기성찰 '출가여행'

선재수련단 대학생 30일 출가

중앙불교교육원 선재수련단(지도법사 유지선)은 23일부터 98년 1월22일까지 대학생들을 위한 30일 출가여행을 떠난다.

이번 수련회는 '자아실현으로 가는 자기성찰의 여행', '모두와 하나됨으로 가는 여행'이란 주제로 깨달음과 나눔의 장, 자기변화를 위한 용맹정진, 호연지기를 키우는 산행, 고통받는 이들과의 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02)581-4077

보살의 마음쓰는 법

삼일선원 대중법회

탄허불교문화재단 부설 삼일선원(이사장 전창렬)은 11일 오전 10시 삼광스님(바른생활포교원장)을 초청, '보살의 마음쓰는 법'을 주제로 대중법회를 연다.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이루고자 하는 보살. 보살은 자기 자신은 구제되지 못하더라도 이웃을 먼저 구제하고 자신은 나중에 해탈하고자 한다. 이것이 보살의 갸륵한 원(願)이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나보다 어려운 이를 돌보기 힘든 시절 '보살의 마음쓰는 법'을 통해 훈훈한 연말연시를 준비해보자. (02)237-4438

"텅빈 마음으로 돌아가자"

영상통신강원 '초발심…' 특강

초발심시변성정각(初發心時便成正覺). 초발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또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의 힘을 키울 귀한 강의가 열린다. 바로 한국불교 영상통신강원(원장 각성스님)의 〈초발심자경문〉 특강.

지눌스님의 〈계초심학인문〉,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야운스님의 〈자경문〉을 합하여 처음 출가한 이들의 지침서가 되었던 〈초발심자경문〉. 이제는 출가 재가 구분없이 초발심을 낸 이들이라면 누구나 새겨야 할 경책의 문구가 된 〈초발심자경문〉을 각성스님의 깊이 있는 강의로 만나게 된다. 12월 8~24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저녁, 부산 서면 화엄회관 법당에 오면 처음 발심할 때의 힘찬 용맹심을 되찾게 될 것이다. 접수마감은 8일까지. (051)809-8945~6

게 시 판

♣ 인사

동국대 △법과대학장 연기영(법학과) △박물관장 이기동(사학과)

♣ 강좌

△**전통한지·불화**=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스님)은 불화 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화강좌는 10만원. 전통 한지공예는 3만5천원. 3개월과정이며 각각 매주 월요일 오후2시에 강의한다. (053)784-3669

△**초등생 방학특강**=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29일 초등학생들을 위한 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특강에는 '색종이 교실'을 비롯 '바둑교실' '동화구연' '아동체조교실' '노래교실' '신문활용교실' 등이 마련된다. (02)852-0525

△**영어·수학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중학생들을 위한 영어·수학 강좌를 개설한다. 회비는 1개월에 3만원. (02)421-6077

△**주부영어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영어기초부터 회화까지 습득하는 주부영어교실을 연다. 3개월간 주2회수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어교실은 교육비가 5만5천원이며 10일까지 접수마감이다. (02)985-0161

♣ 모집

△**실상사 학인**=실상사 화엄학림(학장 연관스님)은 제4기 학인을 모집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년 2월21일까지. (0671)34-3860

△**정법대학 신입생**=조계종 정법대학(총재 월운스님)은 국내·외 포교사과, 유아학과, 불교음악과, 승가학과 등 4개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불자이면 제한이 없으며 단 승가과는 출가 입산이 가능한 자에 한함. (02)474-0554

△**해동불교대 학인**=해동불교대학(학장 이두스님)·범음대학(학장 대은스님)에서는 16일까지 제25기 불교의식 학인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3개월이며 모집인원은 30명. (02)741-0495

△**편집 자원봉사자**=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월간 회보 '영산회상'에서 편집일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32-2333

△**김장후원자**=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13일까지 김장 2포기와 기타 물품을 나눠 줄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02)458-1664

△**김장담기 후원자**=마산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홍스님)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세대등 1백80여세대에 후원하는 프로그램 '제4회 김장담궈드리기'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품은 현금이나 배추 무우 고추등 김장재료이다. (0551) 31-8017

△**여직원**=한국사회교육연구회(회장 박완일)는 여직원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 PC사용 가능한 자. (02)379-1251

♣ 법회

△**철야정진**=대불련총동문회(이사장 명호근)는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계동 대승사에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 회향은 28일 오전2시. (02)747-5589

♣ 이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전배)은 사무실을 강남구 삼성동 112-2호 전수회관 건물로 이전했다. (02)566-6313

♣ 개원

△**조동종 마산포교원**(원장 보성)은 6일 본원법당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0551)23-9407

나의 수행일기



강희병 〈무량수한의원장·칭정회장〉

매일 6시간씩 '참선 삼매'

'영원한 대자유인' 읽고 '염념상속법' 수행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찾고자 의문을 갖고 부처님의 정법을 갈구했던 나는 96년 여름 한 권의 책을 만났다. 〈영원한 대자유인〉(강정진著, 경서원刊).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36년간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어떤 법문보다도, 여지껏 읽었던 그 무슨 책보다도 불교수행의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부처님의 정법이 요약된 것이었다.

첫째, 중생과 부처는 성품은 같으나 속성(屬性)이 다르다. 즉 중생의 속성은 무기(無記; 번뇌가 일어나지 않을 때의 멍한 상태)와 번뇌(煩惱)이며 부처의 속성은 영겁불망(永劫不忘)과 영원불매(永遠不昧)로 대칭시켜 밝혔으며 속성을 바꾸는 것으로 성불(成佛)을 정의하여 수행의 시작과 목표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는 중생의 속성인 무기와 번뇌를 평정(平定)하는 행위를 수행(修行)이라 정의하고, 수행의 정의를 모르고 수행에 임하면 차라리 불법을 만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둘째, 수행자는 수행단계에 따라 수행방법을 달리해야 하는데, 관법(觀法)→염법(念法)→의심법(疑心法)으로 일관되게 하여야만 성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수행방법은 수행단계에 따라 달리하는 것임을 밝혀 성불에 이르는 과정의 실제를 제시할 뿐만아니라 수행방법에 따라 깨침의 종류가 달라짐을 밝혀 깨침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너무도 일목요연하게 불법에 대하여 서술한 것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주저없이 책 뒤편에 적힌 청정선원으로 가서 회원이 되었고 그날로 수행을 시작했다. 즉, 96년 8월 중순부터 염념상속법(念念相續法)으로 수행을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하루에 2~3시간 수행을 하다가 차츰 수행시간을 늘려 9월 하순부터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수행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였고 그 뒤로 지금껏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 4시에 일어나 하는 수행의 맛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묘미를 알 수 없다. 번뇌는 물론 무기를 평정하는 공부를 하다보니 그토록 많던 잠도 줄어들고 하루에 4~5시간 수면을 취해도 낮에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고 맑아졌다. 육체적으로는 더욱 건강해져 얼굴빛도 밝아졌으며 97년 7월에는 부처님의 육계(肉髻)에 해당하는 부분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분이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이 육계는 수행의 결정체인데, 부처님과 조사에게서나 볼수 있다는 이것이 내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부처님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었다. 수행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수행의 진척상태를 느낄수 있었고 그 재미때문에 단순하기 그지 없는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수행은 출가한 스님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세속인들은 할 수 없다고 속단하고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이 법을 만나기 전에 여러가지 수행의 길을 모색했지만 수행은 이어지지 않았고 그러다보니 부처님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었다. 그 원인은 그 수행법과 인연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 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수행 수준에 따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수행의 방법을 알려주는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다행히 나에게 알맞은 수행방법이나 수행자세를 제시해주고, 공부를 점검해 주며 공부가 어려운 고비에 이르렀을 때에 쉽게 넘게 해주는 선지식을 만난 것이다. 비록 세속에 살면서 세속일도 훌륭히 해내고 수행도 해야하는 어려운 처지이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정진력으로 성불의 그날까지 쉼없는 수행을 하리라 다짐해본다.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문학지 겨울호마다 불교소재 詩 '풍성'

"佛香의 詩語 언가슴 녹인다"

파산한 경제로 겨울이 더 춥다 그러나, 어쩌면 한편의 詩는 잔잔한 감동으로 마음의 한파를 막아주리라

경제 한파! 감원! 갑작스런 맹추위… 잔뜩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겨울을 맞았다. 최근 속속 발간된 문학계간지 겨울호들은 유난히 불교소재 시를 많이 싣고 있다. 불향이 잔잔히 배어있는 시들을 찾아 읽으며 꽁꽁 얼어붙은 심신을 녹여보면 어떨까.

〈현대문학〉 〈시와 산문〉 〈문예중앙〉 〈시와 시학〉 등의 문학지에는 화엄사·회암사지·감은사지 등절을 소재로 한 시들이 풍년을 이루고 있다.

'초여름 비 그치고/자재암 향내 따라 걸으며/바람에게 묻는다//삶은 죽음 밖에서 이루어지거늘/언제나 그 문 열리겠는가//바람은 내리는 폭포나 올려보란다/감은 눈까풀을 간질이며//'

〈문학동네〉 겨울호에 실린 김종훈 시인의 '소요산에서 소요(逍遙)하다'는 산행길에서 느낀 삶의 의미를 그리고 있다.

이외에도 최동호 시인의 '모래그림 만다라-달마는 왜 동쪽으로 왔는가'를 비롯 인도 푸나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재연스님의 '다시 찾는 보드가야' 등도 눈길을 끄는 시다.

'구례 화엄사 원통전 앞/석탑을 머리에 인 네 마리 사자/앞에서 본 두 마리는 입 크게 벌려 웃고/…/즐거운 자와 괴로운 자의 명암은/화엄의 세상에도 존재한다고 몸소/시범을 보여주는 불당 앞 네 사자들/…'

〈현대문학〉에 실린 '그대에게 가는 길·8'. 이 시에서 임영조 시인은 화엄사 원통전 앞의 사자상을 통해 임제선사까지 아우르는 불교적 깊이를 보이고 있다. 박세현 시인의 '화엄사 편지'와 〈시와 산문〉지에 소개된 송유미 시인의 '화엄사 가는 길'은 구도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문예중앙〉은 '감은사를 추억하다' '천수대비가' 등으로 제19회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받은 권혁응 시인의 시를 선보이고 있다. 임영조 시인의 '나의 방', 김우연 시인의 물고기를 해탈한 조주선사로 비유한 '뇌운리' 등도 눈길을 끈다.

〈시와 시학〉은 제2회 '시와시학·작품상'을 수상한 정희성 시인의 '경기도 양주군 회암사엔/절 없이 절터만 남아있다'는 '詩를 찾아서'와 황금찬 김성옥 시인의 '인수봉', '흔적으로-감은사의 터' 등을 실었다.

오세영 홍신선 시인의 '사랑의 의무' '철원行' 등이 실린 〈동서문학〉에는 불법승의 일본식 발음이 '뽓포소'라는 것에 착안한 김광림 시인의 '佛法僧(불법승)소리'가 수록됐다.

이밖에 이형기 백무산 백연숙 시인의 신작시가 담긴 〈창작과 비평〉, 김혜순 안도현 시인의 시가 실린 〈한국문학〉, 신경림 시인의 최근작을 소개한 〈당대비평〉지 등도 잔잔한 감동으로 독자곁에 다가온다.

강지연 기자

불심시심 〈110〉

어느 것인들 선 아닌가

地墜皆生水 (지착개생수)	땅 파면 모두 물 솟고
雲收盡碧天 (운수진벽천)	구름 걷히면 다 푸른 하늘
江山雲水地 (강산운수지)	강과 산, 구름 물 있는 곳
何物不渠禪 (하물불거선)	어느 것인들 선 아닌 것 있는가.

묵암(默庵·1717~1790)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이름은 최눌이고, 자는 이식(耳食)이고 묵암은 호이다. 대여섯살 때부터 글씨가 써 있는 종이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벽에 다 붙여 놓고는 내 장차 배워서 알리라 하였다 하니, 숙세에서부터의 인습된 영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겠다.

14세에 징광사(澄光寺)로 출가하였다가 18세에 만리(萬里)대사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풍암(楓巖)대사에게서 경전의 가르침을 받고, 이어서 여러 대덕에게 두루 참여하여 내외의 경전이나 격외의 선지를 두루 깨우쳤다. 27세에 다시 풍암대사에게로 돌아왔을 때에는 선과 교의 두 문을 모두 통하여 앞 사람들이 미처 펴내지 못했던 것을 발명함이 많으니 사람들이 감탄하였다 한다.

대사의 시는 선기를 노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그대로 선기가 함축되어 있다. 앞의 시는 선객에게 주는(贈禪客) 시이다. 여기서도 천하 만물 어느 것인들 선이 아니겠느냐는 대 진리를 말하면서도 있는 자연 사물의 실상이 그대로 선이라는 담담한 논리에 불과하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구조란 우선 하늘과 땅을 떠나서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이 하늘과 땅을 서두에서 전제하고 시작한다. 그럴때 땅에는 무엇이 있는가. 땅을 파면 어디에나 물이 솟는 것이 일반적 진리이다. 무한 공간의 절대적 상층은 하늘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하늘보다는 구름을 흔하게 본다. 그러기에 구름이 바로 하늘인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세속적 삶의 일상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름이 걷혀야 하늘임을 안다. 우리 속인들은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물이나 하늘을 이해하려면, 그 가리워짐이나 감추어져 있는 구름이나 땅을 파헤치지 아니하고서는 볼 수가 없다. 선의 깨우침이란 어쩌면 이 가리워짐을 걷어내는 수련이 아닌가.

어느 때는 이러한 진리의 당체인 물이나 하늘을 찾고서도 너무나 평범하기에 진리인 줄을 모르고 가벼이 여겨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당체이다. 이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작업이 수선의 작업이고, 걷어낸 결과가 바로 선이다. 이 시는 이러한 선의 실상을 주변 사물에서 쉽게 이해시키려 한 스님의 담담한 자세를 보게 된다.

이중찬 〈동국대 교수〉

大韓民國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保存會

山大齋 試演法

일시 : 1997년 12월 3일 (음력 11월4일) 수요일 장소 : 봉원사



◇내년 3월 28일부터 외국인들에게 공연되는 영산재. 이를 위해 3일 관광공사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가졌다.

봉원사 영산재 내년 상설 공연

3월부터…발우공양 외국관광객 체험기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불교의식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를 관람하고 발우공양을 직접 경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봉원사(주지 대운)는 3일 한국관광공사 여행업체 기자 등을 초청, 영산재 시연회와 발우공양을 갖고 내년 3월28일부터 영산재를 상설화 한다고 밝혔다.

매주 2회 토(오후5:30), 일(오전11:30)요일에 봉행될 영산재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비·법고·바라춤·회심곡 등을 50분간 공연하며 발우공양은 약식화해 외국인들에게 체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한·영·일문으로 된 홍보책자 발간, 영산재를 널리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람료는 보시금 차원에서 2만원으로 결정됐다.

영산재보존회장 대운스님은 "외국인들에게 영산재와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은 한국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라며 "최종 결정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설화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안내자 없고 늘어놓기식 진열

성보전시관 제기능 못한다"

이태호교수 지적

박물관 관람객들은 단순한 나열식 전시보다 인형을 활용해 옛 모습을 재현하는 입체적 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전시실을 설명해줄 안내자를 필요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가 11월29일 개최한 '박물관과 교육' 세미나에서 이태호교수(전남대 미술교육학과)가 발표한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교수가 국립전주박물관 관람객(2백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전시실은 민속실(31%), 선사고고실(17%), 미륵사지실(16%)순. 미륵사지실의 경우 미륵사지를 축소복원한 모형을 비롯 발굴현장사진과 복원도, 타 유물과의 비교 등 다양한 영상 보조자료의 활용이 눈에 띈다. 반면 역사자료·서화실(7%), 불교·금속실(6%)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유물의 성격상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작품만 늘어놓은 평면적인 진열방식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현재 문을 열었거나 건립중인 성보전시관도 참고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보전시관은 유물을 마치 백화점 물건처럼 진열해 놓거나 아예 전시관 자체를 자물쇠로 채워 놓고 있다. 전문인력이 없는 곳도 허다하다. 대학박물관 가운데 가장 성보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동국대박물관 전시실은 조명이 어둡고 너무 비좁아 한정된 수만의 성보를 관람할 수밖에 없다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성보전시관도 법당재현은 물론 해당사찰의 복원모형, 사리장치의 봉안을 담은 사진, 부처님 수인과 의미를 설명하는 판넬 등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전시행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 발우공양이나 다도, 좌선 등 스님의 생활을 재현해 놓은 사찰생활실을 마련,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추진해 볼만하다. 또 성보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시키고 전시행위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람객을 위한 전문 안내자는 필수.

한상길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성보전시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들에 의한 박물관 건립과 유물선정, 전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마곡사·동화사 합창단 창단

조계종 마곡사(주지 철웅)와 동화사(주지 무공)가 각각 합창단을 창단했다.

동화사 봉황합창단(단장 오정스님)은 1일 동화사 봉일대불전에서 1천여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첫 음성공양법회를 가져 호평을 받았다. 김만범씨가 지휘를 맡고 있는 동화사 봉황합창단은 노래에 소질을 있는 동화사 여자신도 6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 9일 공주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공주시민을 위한 대법회에서 첫 음악발표회를 가진 마곡사합창단(단장 이 묘행심)은 3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휘는 '삼귀의'를 작곡한 최영철씨가 맡고 있다.



광주불교 합창단 북동포돕기 공연 성황

북한동포 돕기 '97광주불교합창예술제가 11월 30일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예술제는 사암연합합창단 향림사 화엄사 증심사 한마음선원 선덕사 등 6개 합창단과 정율스님 한마음선원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해 '반야심경' '빈손' 등 아름다운 찬불가로 겨울 한파를 따사롭게 녹여주었다. 이번 예술제의 수익금은 귀순자모임인 남북지장회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돕기에 쓰여진다.

"자연속에 투영된 인간내면 찾기"

이상범시집 '별' 출간



인간의 따스한 내면을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 펼쳐보이는 시인 이상범(62)거사. 끊임없이 정신의 자유를 갈망하고 치열한 내적고민을 희망의 시작(詩作)으로 연결시켜 온 이상범시인이 시인생 35년을 결산하는 대표시집 〈별〉(동학사 刊)을 발간했다.

갈등과 화해속에서 더 높은 정신의 경지를 추구하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수난의 역사속에서 시련받는 민족의 삶, 또는 고달픈 민중들의 아픔과 슬픔을 1백20여편의 시속에 눈부신 서정으로 펼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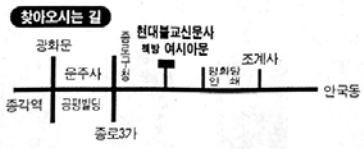
'날들면 유순한 짐승/엎디어 코 고는 바다/새도록 귓전에 앉아./…/해지자 먹물같은/장삼을 걸친 채/우주의 한 모퉁이를 허물며/짐승처럼 울었다'(청람색 바다 中) 등은 자연에 대한 내적통찰을 표현했다.

"징역 살 듯 살아온 생애,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모두 그나름의 별이었으면 싶다. 새록새록 꿈을 꾸며 가슴마다 알알이 박히는 별이었으면 싶다. 그리하여 끝내는 하늘에 박히는 별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이상범시인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은유적으로 풀어보이고 있다. 〈은〉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좋은 책 할인 판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그 동안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책만을 엄선하여
'할인 판매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만물이 제자리로 향하는
이 깊은 가을, 여시아문에서
'참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한가로운 도인의 길 김달진역주/세계사/8,000 → 5,000원
태고집 설서 편/ 〃 / 8,000 → 5,000원
선이란 무엇인가 장순용 엮음/ 〃 / 10,000 → 6,000원
대승기신론 마명/ 〃 / 8,000 → 5,000원
한산시 김달진 역주/ 〃 / 10,000 → 6,000원
동양의 지혜와 선 심재룡/ 〃 / 12,000 → 6,000원
노자 그 불교적 이해 감산대사/ 〃 / 10,000 → 6,000원
자아의 책 박철화 옮김/ 〃 / 4,000 → 2,000원
부처님이 올 수 없는 땅 심재룡/ 〃/ 4,000 → 2,000원
한 그루의 우주 나무와 신화 김열규/ 〃 / 4,000 → 2,000원
보살은 누구인가 목우/ 〃 / 4,500 → 2,000원
산거일기 김달진/ 〃 / 3,500 → 2,000원
한·중 불교 문화 교류사 황유복 외/ 까치/ 15,000 → 8,000원
초서자전 권집부/ 까치/ 30,000 → 15,000원
중국 불교 사상사 키무라 키요타카/ 민족사/ 4,000 → 3,000원

밀교의 역사와 문화 요리토미 모토히로 외/ 〃 / 5,500 → 3,000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사토 미츠오/ 〃 / 4,200 → 3,000원
원효의 인식과 논리 신현숙/ 〃 / 3,500 → 2,000원
불교의 현대적 조명 교수불자연합회/〃/ 5,500 → 3,000원
인도 불교의 역사 히라카와 아키라/〃/ 6,000 → 3,000원
인도 불교 사상사 에드워드 콘즈/ 〃 / 5,500 → 3,000원
중국 불교 上 K.S 케네쓰 첸/ 〃 / 5,000 → 3,000원
묘법연화경 광우/ 〃 / 8,000 → 5,000원
북한의 절과 불교 정태혁 외/ 〃 / 5,000 → 3,000원
법구경 에피소드 정태혁/ 〃/ 4,500 → 3,000원
논어와 선 한토 다이가 외/ 〃 / 4,500 → 3,000원
푸른 산빛을 깨치고 진보삼/ 〃 / 4,500 → 3,000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히로사치야/ 〃 / 3,300 → 2,500원
소승 대승 히로사치야/ 〃 / 4,300 → 3,000원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놀란플리니 제이콥슨/ 〃 / 3,500 → 2,500원
환상의 타임머신 손영성/ 〃 / 3,000 → 2,000원
금강경 김지견/ 〃 / 4,500 → 3,000원
중화의 지혜 중국민중사상연구회/ 〃/ 5,500 → 3,000원
선정쌍수의 전개 한보광/ 〃 / 5,000 → 3,000원
붓다와 다르마 B.R. 암베드카르/ 〃 / 5,500 → 3,000원
인식과 초월 핫토리 마사아키 외/ 〃 / 4,300 → 2,500원
딴뜨라 불교 입문 S.B. 다스굽따/ 〃 / 4,000 → 2,500원
중국 중세불교 사상 비판 임계유/〃/ 4,500 → 2,500원
대승불교의 사상 우에다 요시부미/〃/ 3,500 → 2,000원
천태 법화의 사상 타무라 시로우 외/〃/ 4,000 → 2,500원
일본 불교사 이영자 옮김/ 〃/ 5,000 → 3,000원
화엄경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불교시대사/6,500 → 3,900원
대승기신론 이야기 카마타 시게오/ 〃/ 4,300 → 2,500원
불교학개론 강의실 1, 2 장휘옥/ 〃 / 4,500 → 2,7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조오현/ 〃 / 4,500 → 2,700원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김정휴/ 〃 / 4,800 → 3,000원
미륵상생경 외 경전연구모임회/ 〃 / 2,500 → 1,500원
아미타경 외 〃 / 〃 / 2,500 → 1,500원
옥야경, 선생경 외 〃 / 〃 / 2,500 → 1,500원
유마경 〃 / 〃 / 2,500 → 1,500원
금강경, 승만경 〃 / 〃 / 2,500 → 1,500원
지장본원경 외 〃 / 〃 / 2,500 → 1,500원
본원행원품, 관세음보문품 외 〃/〃/2,500 → 1,500원
법구경, 사십이장경 〃 / 〃 / 2,500 → 1,500원
조상공덕경, 조탑공덕경 외 〃 / 〃/ 2,500 → 1,500원
부모은중경 외 〃 / 〃 / 2,500 → 1,500원
선문선답 조오현/ 〃 / 5,000 → 3,000원
행복한 마음 김정섭/ 김영사/ 5,900 → 4,000원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짤막한 율문의 큰 깨달음"

석지현스님 '선시감상사전' 펴내

한·중·일 선시 1500편 총정리
선불교 사상과 흐름도 조망
엮은이 감상실어 이해 쉽도록



◇석지현스님

'번갯불 속에 앉아
사람을 능히 살리고 죽이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이 몽둥이가
허공의 뼈다귀를 부숴 버리네.'

한국 선시의 전성기를 구가한 청허휴정선사(淸虛休靜, 1520~1604)의 이 선시는 직관적 선의 세계를 강인한 기상으로 꿰뚫어 읊어냈다.

불립문자를 표방한 선(禪)은 언어 사용을 극도로 절제했지만 깨달음의 경지를, 또는 선의 세계를 짤막한 율문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선시(禪詩)는 언어 속의 설명적인 요소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깨달음의 묘미를 함축하고 있어 동양 시사(詩史)의 중요한 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정신세계를 표현한 선시를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란 쉽지않다.

민족사에서 전2권으로 출간된 〈선시감상사전〉은 이러한 선시속에 내재돼 있는 깨달음의 향기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시인 석지현스님이 4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펴낸 이 책에는 한국, 중국, 일본 선승들과 시인들의 깨달음의 노래 1500편이 총 망라되어 있다.

제1권에는 중국의 선사와 시인 169명 260편의 선시와 일본의 선사 30명 174편의 선시가 담겨있다. 제2권은 한국편으로 107명 997편의 선시를 결집해 놓았다. 각 작품의 배열은 국가별, 연대별, 작가별로 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작가보다는 작품성위주로 했다. 특히 한국에 강한 비중을 두어 한국선승들의 작품을 많이 실었다. 그리고 시 한편한편마다 엮은이의 감상을 실어 원시(原詩)를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놓았다.

번역은 원시를 최대한 살리는 선에서 직역과 의역을 겸했으며 저자, 시제목, 번역시, 원시, 날말풀이, 시의 형식과 출전, 감상 순으로 편집하여 독자들이 읽기에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작자소개와 찾아보기를 붙여 작품의 배경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각 개인의 작품과 해당사항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시를 빌어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한 신수와 육조 혜능의 개오시(開悟詩), 깨달음의 희열을 참지못해 단 하룻밤만에 완성했다는 영가현각선사의 〈증도가〉를 비롯 한국선시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 백운경한 스님에서부터 퇴옹당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분량의 선시들은 선불교의 역사적 흐름과 사상까지도 꿰뚫어 볼수 있게 한다.

특히 책머리의 '선시해설'에서 선시란 무엇인가, 선시의 역사, 시풍, 선시의 종류 등을 통해 선시에 대한 개괄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어 이 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지현스님은 "한국선시는 은둔적 체념적이며 서정성이 강하고 자연과의 교감력이 뛰어나고 단순하고 소박한 맛이 있는 반면 시의 흐름이 획일적(임제풍 일변조)이다"고 설명한다. 또 "중국선시는 규모가 크고 호방하여 구사력이 뛰어나고 훈시적인 면이 강하며 종류적 도가적인 색채가 짙고, 일본선시는 섬세하고 예리하지만 시정의 변화가 떨어지고 노골적으로 성적인 희열을 표출하며 시의 흐름이 다양하다"고 평하고 있다.

'선이면서 선이 없는 것이 시요, 시이면서 시가 없는 것이 선이다(詩而無詩禪儼然, 禪而無禪便是詩)'라는 뜻을 곱씹으면서 선시(禪詩)속의 심심미묘 무상법문이 〈선시감상사전〉을 통한다면 한층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영원한 죽음과 윤회 | 최덕희 글·김광성 그림

윤회사상의 핵심 만화로 보기



〈영원한 죽음과 윤회〉는 만화의 형식을 빌어 자칫 지루해지거나 난해할 수 있는 윤회이론을 재미있게 구성하고 있다.

이 책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면면히 이어내려오는 윤회사상의 흐름과 줄기를 추적한다. 붓다가 출현하기 전인 기원전 5~6세기경의 윤회설의 성립과 종교적 믿음의 차원으로 정립된 불교 윤회사상 등을 비롯 동양과 서양의 연구과정, 접근방식을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쉽게 풀어 썼다. 무의식을 연구한 프로이트와 융이 등장하기도 하는 이 책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재미있지만 진지한 대중교양만화다.

〈웅진출판 6천5백원〉

와제외책

작은이야기 1·2 | 정채봉·류시화 엮음

간결한 내용 가슴에 남는 감동



〈작은 이야기〉는 동화작가 정채봉과 시인 류시화가 감동적인 우리주변의 이야기들을 두권으로 엮은 것이다. 어느 가난한 학부모가 자식을 물심양면으로 가르쳐준 선생님께 껌 한개를 선물로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진 이야기,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으려는 나환자를 양아들로 받아들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느 부자(父子)이야기, 갑작스레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짧고 간결하지만 오래도록 남을 감동이 담겨있다. 이 책을 통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변치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의 가깝고도 아주 작은 행복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샘터사 각권 6천5백원〉

출판가 소식

'무신론과 유신론' 개정판

도서출판 대원정사는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총서 제4권 〈무신론과 유신론〉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절대위기와 부활' 부분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바람직한 종교의 방향을 모색했다.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두드러지게 구별되고 있는 양대 종교의 정 반대 입장이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설득력있게 말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시대의 종교의 방향을 역설하고, 초판때 빠져있던 역사와 사회속에서의 종교 위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구정가 판매 한달 연장

책방 여시아문이 지난 11월 시작한 '구정가 도서 특별 판매전'이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달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행사에는 불교입문서, 인문교양서, 경전류 등이 구정가 그대로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02)737-0695

"말씀 따로 생활 따로라면…"

용타스님 명상록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말초적 흥미위주의 인스턴트식 책들이 범람하는 요즘, 마음을 주제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명상 형식으로 풀어낸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대원정사 刊)는 연말을 맞아 더욱 어수선한 우리의 마음자리를 되돌아보게한다.

이 책에 담긴 많은 이야기들은 17년 동안 '동사섭 법회'라는 이름의 수련회를 진행해 온 용타스님(미국 캘리포니아 삼보사 주지)이 현장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궐쳐낸 것이다. 동사섭법회의 큰 주제가 바로 마음 알기, 마음 다루기, 마음 나누기이다. 마음 알기는 자신의 마음에 깨어있기, 마음 다루기는 크게 유쾌와 불유쾌로 구분되는 마음을 잘 다룸으로써 불유쾌를 유쾌로 유쾌를 보다 고요한 초월정서로 나아가게 하는 것. 마음나누기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효과적으로 마음이 교류될 수 있도록 잘 나누어 보자는 것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 십이연기, 육바라밀에 입각해 마음의 작용인 마음 알기, 마음 다루기, 마음 나누기의 방법들을 생활속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의 행복도를 높이고 보다 윤택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한다.

용타스님은 세상의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인도 마음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화의 삶을 당연하다는 듯 반복하고 있다면서 "경전을 통해서, 법사나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의 내용을 머리에 지니고 있지만 말씀따로, 생활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념불교, 관념종교를 엄격히 지양하고, 활불교(活佛敎)운동, 활종교(活宗敎)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스님은 우리들에게 순간 순간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책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

달마대사의 건강비법

건강서 2권 '눈길'

현미경에 비친 인체…



〈달마대사의 건강비법〉(전통문화연구회 刊)과 〈현미경에 비친 인체의 신비〉(토방 刊)등 인체의 신비와 원리를 이용한 건강관련서 두권이 출간됐다.

〈달마대사의 건강비법〉은 달마대사가 지은 〈역근경(易筋經)〉 〈세수경(洗髓經)〉, 주권이 지은 〈활인심방(活人心方)〉 등 3종을 김동주씨(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가 편역한 것. 이 책은 자연과 인체의 원리를 이용한 정신수양과 근골강화 등 전통적인 건강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3책의 원문을 수록했다.

류정훈씨(번역가)가 쓴 〈현미경에 비친 인체의 신비〉는 인체의 신비를 알기 쉽게 밝히고, 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의학 상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 우리 생명의 근원인 호흡법을 체계적으로 풀이해 놓아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3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림	행 원
4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5	금강경강의	부 비	불 광
6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7	수행으로 가는 길	이 제 열	대원정사
8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9	불교사상의 이해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불 지 사
10	참선교육	수선회편집부	수선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최신간

붓다들이 벌이는 영혼의 축제

월계수 꽃의 냄새를 맡았는가

오쇼 라즈니쉬의 이규선사 강의 · 이경옥 옮김



아름답고 슬픈 감성의 소유자,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구도자 이규선사!
오쇼 라즈니쉬의 눈과 마음으로 그의 시를 듣는다.

눈물 · 웃음 · 침묵의 스승,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
그는 일본의 별난 선사 이규(一休)의 시 가운데 주옥같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규의 시들은 진하고 깊은 인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사랑의 빛으로 함께 어우러져 펄펄 살아 숨쉬는 대양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이규는 별난 선사?!
1394년, 고고마스(後小松) 천황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술과 고기, 여색을 즐기는 등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하며 일체의 가식과 위신을 버리고 체율마저 넘어가고자 하였다. 깨달음에 대한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당시 타락하고 있던 일본의 선승들을 가차없이 질타하고 매도와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신국판 / 520면 / 값10,000원

법구경 上·下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값6,500원

금강경

벼락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432면 / 값7,000원

탄트라비전 I II III IV

내 영혼이 눈 뜬 최초의 창문!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신국판 / 전4권

부처님의 유언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공파스님 역해
신국판 / 400면 / 값7,000원

판차탄트라

감로수와도 같은
다섯 토막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현명하게 바꾸어 준다!
판디트 비쉬누 사르마 지음 / 서수인 옮김
신국판 / 440면 / 값7,0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 남전을 아십니까?

마조 MAJO
조주 JOSHU
임제 RINZAI
남전 NANSEN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책장을 여는 순간, 명쾌하고 진한 감동이 메마르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 단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의천스님 고려속장경 高麗敎藏이 바른 표기”

김영태교수 퇴임기념 강연회서 주장

‘지장스님=김교각=신라왕자’ 도 사실무근

“대각국사 의천(義天 · 1055~1101) 스님이 삼장(三藏) 주석서인 장소(章疏)만을 수집-간행한 〈속장경〉은 〈고려교장 · 高麗敎藏〉으로 명명해야 옳다”

지난 5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열린 ‘정년퇴임 기념강연회’에서 김영태교수는 〈고려속장경 · 高麗續藏經〉으로 알려진 의천스님의 전적을 〈고려교장〉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장스님과 동일인이며 신라왕자로 알려진 김교각은 중국이 왜곡시킨 불교사이며, 고구려 안원왕의 연호로 알려진 ‘연가(延嘉)’는 장수왕의 연호라고 주장해 주목되고 있다.

김교수는 ‘대각국사의 〈고려교장〉’ 제목의 강연에서 “〈고려속장경〉 · 의천의 〈속장〉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라며 “스님의 현존 저술 〈신편제종교장총록〉 〈대각국사문집〉에서 ‘속장경’ ‘속장’이라는 말을 찾아 볼수가 없고 ‘교장’이라 쓰고 있음을 보게된다”고 밝혔다.

‘교장’이란 여러 경교(經敎)와 종학(宗學)의 주석 저술인 장소(章疏)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총서로 묶은 전적을 지칭하는 말. 김교수는 “‘속장’이란 어디까지나 교장의 불전적 성격이나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묶음으로 형성된 불전의 총서를 가리킨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의천스님의 총서를 ‘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며 ‘교장’이 고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교장〉이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0월 박상국 문화재연구소 실장도 ‘의천의 〈신편제종교총록〉편찬과 간행’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의천스님은 〈교장〉을 집성-간행하기 위해 20여년간 ‘장소’를 수집하고 흥왕사 교장도감을 설치해 삼장(三藏) 주석서 1010종 4740권을 담은 교장을 간행했다.

또한 김교수는 ‘당(唐) 구화산의 신라 지장선사’에서 “지장선사와 김교각은 역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으며 696년에 태어난 신라 성덕왕의 맏아들 김수충(金守忠)이 김교각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지장선사의 행적이 남아있는 문헌중 현존 최고서(最古書)인 〈구화산화성사기 · 九華山華成寺記〉에서 ‘신라왕자김씨근속(新羅王子金氏近屬)’이라는 8자의 사료에서는 신라의 왕족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김교수는 “성덕왕이 왕위에 오른 것이 702년이며 이때 성덕왕의 나이는 10대 초반”이라며 “김교각이 성덕왕의 아들 김수충이라면 성덕왕이 10세도 되지 않았을 때 태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장과 김교각이 동일 인물이라는 기록은 1983년에 쓰여진 〈구화산지〉에 처음으로 나오고 있어 사료 근거로 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김교수는 국보 119호 금동여래입상의 명문에 나온 ‘연가(延嘉)’ 연호가 사용된 시기는 종래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고구려 안원왕(531~545) 대가 아니고 장수왕(413~419)의 연호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연가의 의미를 풀이하면 ‘선왕의 훌륭한 가덕(嘉德)을 길이 이어 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장수왕이 왕위에 오를 때, 부왕 광개토대왕의 위업을 겸허한 자세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에서 나온 연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증욱 기자

인터뷰

불교사학 새지평 연 **김영태** 교수

“한국불교 고전연구에 여생회향”



“교수직이란 제도권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정년퇴임하면 제도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연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동안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한국불교 고전 번역-연구에 매진할 작정입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동국대를 정년퇴임하는 왕봉(旺峰) 김영태교수(65)는 정년퇴임 후에도 〈삼국유사〉 〈균여전〉 등 불교 고전과 불교 금석문을 새롭게 해석하며 한국불교사를 계속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1965년 동국대와 인연을 맺은 김교수는 불교대학 학장, 불교문화연구원 소장, 불교학회 회장을 두루 역임했다. 김교수는 그동안 34권의 저술과 2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삼국유사 연구를 통한 불교사학 연구는 한국불교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불교 고전이 잘못 번역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김교수는 “후학들은 항상 고증과 주석에 철저한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는 학자가 되어 주길 바란다”며 후학들의 학문 자세를 당부했다.

김영태교수는 이번 퇴임강연회에 이어 19일 동국대 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퇴임식에는 동료, 후학들의 150여편의 논문이 수록된 〈한국불교사 논집〉(불지사 刊)의 봉정식도 함께 열린다.

호주불교 발전 가능성 한눈에



부다넷 사이버 기행

부다넷

최근 급성장한 호주 불교계를 조망할 수 있는 ‘부다넷’사이트는 파나바로스님이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전세계인에게 호주불교를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호주에서 진행되는 불교관련 세미나와 명상센터, 행사, 불법강좌 등 기본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불교 온라인 잡지인 〈부다진(Buddhazine)〉, 명상의 기법과 원리 등을 설명하는 ‘명상’, 〈법구경〉 남방불교 · 대승불교 · 선불교 · 명상 등 다양한 불교사상을 기록한 자료들이 제공된다.

또 다마카 스님이 편집한 불교관련 용어집인 〈달마데이터〉, 호주불교계의 소식지인 〈프리 북(Free Book)〉, 불교의 전파경로 · 각종 불교교단 · 불교 종주국과 불교문화들을 기록한 ‘불교의 세계’ 등이 있다.

부다넷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이용자 컴퓨터로 로딩(가져오기) 할 수 있으며, ‘대화방’ ‘전자우편’을 통해 추가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http://impluse.hawkesbury.uws.edu.au/BuddhaNet/budnetp.htm

양국불교 문화비교 ‘원형찾기’

동국대-용곡대 ‘한일전통문화…’ 학술회의

동국대(총장 송석구)와 일본 용곡대(학장 기타바타)가 10일 용곡대에서 한 · 일불교의 문화와 사상 등을 비교-연구하는 제1회 ‘한일전통문화 비교-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불교의 계율 · 유식 · 화엄 · 토착신앙 등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보는 소중한 자리였다.

송석구 총장은 ‘한국불교의 화(和)사상’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현대의 사회 풍조는 권력의 절대성 물질의 실체성 자기의 고정불변성을 고집하는 데서 일어난 현상”이라며 “중생이 집착만 떨쳐버리면 그대로 청정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오형근박사(前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유식사상과 그 문화’에서 “중국 유식학을 수용한 한국불교는 중국의 배타적인 유식학과는 달리 ‘원융(圓融) 유식학’으로 발전시켰고, 그 결실을 일본에 전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오박사에 따르면 유식학을 처음 수용한 신라 원측스님(圓測 · 613~696)이 삼론종 · 법상종계 유식학을 두루 공부했기 때문에 원융적 유식학으로 발전했다는 것. 또 “신라승이 3차례에 걸쳐 일본에 유식학을 전해주었다”며 “세 번째 전래자 지봉지영의 법제자 현방 대(代)에서 일본 유식학이 꽃을 피웠다”고 지적했다.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부)도 ‘한국불교 계율사상의 변천’에서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은 자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 남의 죄를 풀어줄 수 없다는 이타적 보살도와 계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도솔천에 왕생할 수 없다는 자리적 수행”이라며 “이것은 일본의 초기 불교와 달리 계행과 지혜가 겸비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올해 1월부터 동국대와 용곡대가 공동 추진하는 ‘한일불교문화 비교-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렸다. 99년까지 3년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한 · 일 불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정토 · 화엄 · 유식 등의 원형을 찾고 문화 · 예술 등을 비교해 세 차례 학술회의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학술단신

15일 원효학회 토론회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가 ‘원효사상을 어떻게 세계에 알릴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15~20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성배교수(동국대 석좌)가 ‘원효학, 어디까지 왔나’ 김용표교수(동국대)가 ‘불경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조성택교수(뉴욕주립대)가 ‘원효사상 해석 방법론’ 전현교수(시카고대학)가 ‘기독교와의 만남’ 이명섭교수(성균관대)가 ‘서양철학과의 만남’ 등을 발표한다.

(02)260-3835

원전 연구과정 개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이 원전전문학림 동계 학기를 개강한다.

이번 강좌에는 지관스님이 ‘조선시대 고승비문’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을 강독하며 ‘구사론’(이종철) ‘수습차제(修習次第)’(허일범) 등의 ▲불교원전연구과정이 마련된다. 또 범어, 한문, 팔리어, 티벳어 등 ▲불교어학 연수과정도 개설된다.

각 과정 수강기간은 22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0주간. (02)765-9602

국제소식

“자비사상은 사회윤리 핵심”

안옥선박사, 성철선사상硏 강좌서 밝혀



불교 윤리의 핵심인 ‘자비’. 자비의 개념을 사회윤리에 적극 도입할 때 이상적인 사회윤리관을 확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옥선박사(전남대 철학과 강사)는 성철선사상 연구원이 마련한 제5회 백련불교아카데미 강좌에서 ‘불교의 윤리와 페미니즘의 보살핌의 윤리’를 발표하고 “불교 윤리는 자비의 대상, 과정,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데 비해, 페미니즘에서 나온 보살핌의 윤리는 보살핌의 대상과 과정에 몰입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이나 행동에 집착하지 않는 자비는 따라서 결과에 대해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반면 보살핌은 타자와 보살핌 자체에의 몰입이 요구되기에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된다는 것.

따라서 “연기설과 윤회설이 수용된 자비의 윤리는 공간적 · 시간적으로 자비의 대상을 무한히 확대시키고 있어, 보살핌의 윤리가 갖는 편협성을 극복해 줄 것”이라고 밝힌 안옥선박사는 “자비의 윤리관이 자신, 타인 등 모든 대상에게 투영될 때 이상적 사회윤리관이 완성되고 인간관계도 원만히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불교는 나의 삶에 해답을 준다”

佛배우 잔 모로 티벳불교 심취

프랑스 원로 여배우 잔 모로(70)가 요즘 티벳불교에 빠져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누벨옵세르바퇴르〉 최근호에 따르면 모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화제인 〈삶과 죽음에 관한 티벳 서(書)〉 저자 소기알 린포체를 만나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것.

모로는 “94년 린포체의 책을 읽은 뒤 그와 만나고 싶었다”며 “낙원에서 쫓겨난 영혼의 유랑자인 서양인에게 불교는 하나의 해답”이라고 말했다. 불교에 심취한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해 모로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날 그날 설법에 따라 살고 있다”고 말했다.

모로는 ‘연인들’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등의 영화로 국내 올드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 여배우.

등산객들 티벳 접경 루트 회피

중국정부 소수민족 억압 ‘시위’

에베레스트 등산객들이 고의로 티벳 접경 루트를 회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티벳 등 소수민족을 억압해온 중국 정부에 등산객들이 ‘보이콧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길은 보통 네팔의 남부 루트와 티벳의 북부 루트가 주로 사용되어 왔고, 외국 등산객들은 이 경로를 이동하며 통행료, 셀파 임금, 숙식 등 대략 7천5백만원(미화 64,000달러) 정도를 소비한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등산객의 ‘보이콧 운동’이 확대될 경우 중국은 티벳 접경지역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가 상당량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수행자를 위한 여시아문의 책

여시아문 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마음 맑히는 책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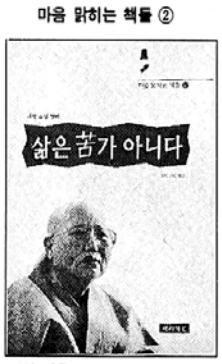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 / 큰스님 / 법어 / 모음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 값 6,000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 스님 / 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자를 위한 경전 공부①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금강경 대강좌

적연 이제열 법사가 풀이한
금강경 대강좌

선(禪)적인 해석이나 뜻풀이에 그쳐
모든 불자들이
온전히 제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금강경.
그 금강경이 이제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금강 반야의 세계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
우리 앞에 다가선다.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독특한 해석으로 명쾌한 수행방법론을 제시!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32

육조의 의발 ①

*혜명상좌가 자신을 좇아 대유령에 이른 것을 보고, 육조는 의발을 돌 위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맡길테니 갖고 가거라." 혜명이 다가가 집어들었는데, 옷은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혜명은 두려움에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진리를 구하러 왔지, 옷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께서는 깨달음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육조가 말했다. "선(善)을 생각않고 악(惡)을 생각않을 때 바로 그때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명상좌는 크게 깨닫고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그가 울며 예를 올리면서 물었다. "조금 전의 비밀의 말씀, 비밀의 뜻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자신의 면목을 되돌이켜 본다면 비밀은 바로 너에게 있다" 혜명은 말했다. "제가 황매산(黃梅山)에서 무리와 더불어 있을 때는 자신의 면목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그 비밀의 입구에 대한 가르침을 입고 보니 흡사 물을 마셔 차고 뜨거움을 알듯 사태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행자시야말로 제 스승이십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모신 셈이 된다. 그것을 잘 지켜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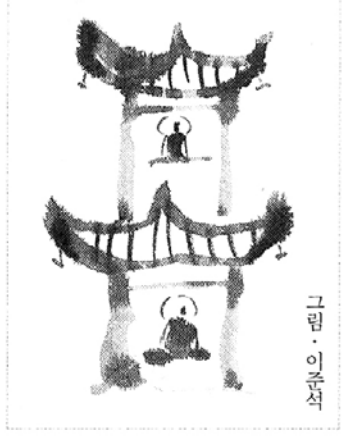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나 혜개가 말한다. "육조의 이 일은 몰려서 한 일이고, 지나친 노파심의 결과이다. 이를테면 리즈 과일의 껍질을 벗기고 씨를 발라내어 네 입에 넣어주는 격이니, 너는 그저 한 입에 삼킬 일이다."

*송하여 가로되, "말로도 그릴 수 없고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네. 찬탄도 미칠 수 없으니 괜한 수고는 관두시게. 본래면목은 갈무리할 데가 없으니 우주가 무너져도 그것은 썩지 않으리."

不思善惡:

六祖, 因明上座 趁至大庾嶺, 祖見明至, 卽擲衣鉢於石上云, 此衣表信, 可力爭耶. 任君將去. 明遂擧之, 如山不動, 踟躕悚慄. 明曰, 我來求法, 非爲衣也. 願行者開示. 祖云, 不思善不思惡, 正與麼時, 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 明當下大悟. 遍體汗流. 泣淚作禮問曰, 上來密語密意外, 還更有意旨否. 祖曰, 我今爲汝說者, 卽非密也. 汝若返照自己面目, 密却在汝邊. 明云, 某甲雖在黃梅隨衆,實未省自己面目, 今蒙指授入處, 如人飮水冷暖自知. 今行者卽是某甲師也. 祖云, 汝若如是,則吾與汝同師黃梅, 善自護持.

無門曰, 六祖可謂, 是事出急家. 老婆心切, 譬如新荔支. 剝了殼去了核. 送在儞口裏. 只要儞嚥一嚥.

頌曰, 描不成兮畵不就. 贊不及兮休生受. 本來面目沒處藏, 世界壞時渠不朽.

善惡 떠나 네마음 어디 있는가

"본래 면목은 말이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선에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 역사가 없다. 선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학자들의 시도에 가로놓인 걸림돌이 이것이다. 선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초월을 지향하는 신비주의적 전통들은 대체로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비판적 역사학은 "연대와 사건을 확정지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도의 역사를 기술하기는 불가능하고 불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경전들의 저작년대와 작자를 보라. 명백한 후기 저술인 대승의 경전들도 그 성립시기를 세존의 전법기간에 비정하고 있고, 중국에서 지어졌을지도 모르는 후기대승의 작품, 〈대승기신론〉은 초기의 현자 아슈바고샤(馬鳴)의 이름을 달고 있다. 불교학과 불교사의 전통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이 얼마만한 장애인지는 겪어본 사람들만이 안다.

그런데 불교의 근본정신은 이런 작업을 비웃거나 한심하게 여긴다. 진리는 쓰여진 기록이나 역사 속에 있지 않다. 연대를 비정하고 작자를 밝히며 개념과 사상의 발생적 기원이나 발전적 연관을 따지는 것이 불교의 근본진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 그럴지도 모른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의 눈을 비껴가기 십상이다.

장자 천도(天道)편에는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 제환공(齊桓公)이 당상(堂上)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바퀴를 깎고 있던 장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대체 무얼 읽고 계십니까?" 제환공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성인이 남기신 글이다." "그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죽고 없지." "그렇다면 읽고 계신 것은 옛 사람의 찌꺼기가 아닙니까?" 예상 못한 할난조에 환공이 버럭 화를 냈다. 장인은 이렇게 해명했다. "저는 수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의 굴대구멍을 깎을 때 너무 많이 깎으면 헐겁고, 적게 깎으면 빡빡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의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마음에 있을 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자식은 배울 수가 없어, 나이 칠십이 되도록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할 수 없는 것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후께서 읽고 계신 것은 그 나머지 찌꺼기일 뿐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42〉



◇현정 作 '가장 자연스런 호흡'

실상 꿰뚫는 부처님의 10가지 지혜

중생은 헛된 재산·학식 등에 의존

어떤 장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내심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야말로 용기있는 사람으로서 힘이 셀 뿐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여러번 죽을 고비를 맞이 했을 때에도 아무런 동요가 없을 만큼 태연했고 지금도 세상의 무엇이 찾아오건 겁이 나는 일이 없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부처님이 계신 제따와나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마치시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선정에 잠겨 있었다. 장수는 어색한 심정으로 한쪽편에 앉아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장수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우루루 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수는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수는 갑작스런 소리에 놀란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주위를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놀라서 일어난 것은 자신 뿐이었다.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아무 소리도 못들었다는 듯이 얼굴하나 돌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장수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장수의 이러한 마음을 다 가셨는지 다음처럼 타이르셨다.

"장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승자는 자신이 자신을 이긴 자며 가장 으뜸가는 힘은 자신을 굴복시키는 힘이오. 장수는 비록 전쟁터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으나 하잘것 없는 그릇 깨지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소. 그것은 그대의 내면에 번뇌가 있기 때문이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자만이 진정한 힘과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오."

부처님의 이같은 말씀을 들은 장수는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능력의 소유자는 부처님이며 어느 것이 참된 두려움 없는 마음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중생들과는 다른 열가지의 참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첫째, 처비처지력(處非處智力)으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과 걷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이다. 둘째, 업이숙지력(業異熟智力)으로 중생들이 짓고 있는 모든 행위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어떻게 전개되며 어떠한 과보를 초래하게 되는 가를 바로 아는 지혜의 힘이다. 셋째, 정려해탈등지등지력(靜慮解脫等持等智力)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집중하는 선(禪)을 수행할 때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계와 단계를 잘 아는 지혜의 힘이다. 넷째, 근상하지력(根上下智力)으로 중생의 성품과 차원의 높고 낮음을 잘 알고 수행을 하여 얻게 될 경지가 어디까지 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이다. 다섯째, 종종승해지력(種種勝解智力)으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소원과 바깥 대상에 대하여 일으키는 견해들을 밝게 아는 지혜의 힘이다. 여섯째는 종종계지력(種種界智力)으로 중생들 각자마다 다른 성격과 의식들을 다 아는 지혜의 힘이다. 일곱째, 변취행지력(遍趣行智力)으로 중생이 나고 죽는 과정과 장소 그리고 행위에 따른 인과응보의 법칙을 환히 아는 지혜의 힘이다. 여덟째, 숙주수념지력(宿主隨念智力)으로 전생의 온갖 일을 기억해 내어 현재에 해야 할 일을 잘 판단하는 지혜의 힘이다.

아홉째, 사생지력(死生智力)으로 중생이 죽을 때와 태어날 때를 알며 내세에 받게될 선과 악의 과보와 완성을 아는 지혜의 힘이다. 열번째는 누진지력(漏盡智力)으로 자신의 번뇌가 다하여 다시는 나고 죽음이 없음을 바르게 알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다른 이들의 번뇌도 끊기는 것을 분명히 보는 지혜의 힘이다. 부처님을 가리켜 일체승자(一切勝者)며 일체지자(一切知者)라 부른다. 이는 내면의 번뇌를 초극하여 제법의 실상을 환히 아는 지혜를 체득하고 중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장수처럼 자신의 육체와 욕망에 의존하여 재산과 명예, 학식 또는 무력 따위로 힘을 삼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상하고 헛된 것으로 진정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진정한 것이 있다면 수행에서 얻어진 깨달음의 힘 부처님의 열가지 힘만이 있을 뿐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0

불교와 수학

35

할과 번뜩임

김 용 운

선문답에서 '할(喝)'이 자주 등장한다. 만화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제자의 물음에 대해 답이 궁해지면 스승이 '할(喝)' 한 마디로 얼버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한 수도승이 임제 화상에게 "스승님은 불법의 큰 이치를 누구에게 이어 받았습니까?"하고 물었다. 임제의 스승은 만벽(萬檗)이다. 제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임제 자신도 그렇게 답할 수도 있었지만 임제는 "나는 세 번 그것을 묻고 세 번 두드려 맞았다"고 답했다. 이때 그 제자는 그 뜻을 다시 물으려 했다. 그러자 임제는 '할(喝)'하고 "허공에 못질하지 말라"고 했다. 처공(處空)은 임제의 진여원성(眞如圓成), 즉 완전한 세계이다. 그 세계를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한(무한정)의 세계이며 관념화하는 것은 마치 쇠못을 허공에 박는 일과도 같다. 이때 임제가 제자에게 전하고자 한 바는 너도 '이 과정을 네 스스로 온몸으로 터득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할(喝)' 한 마디로 표현했다. 대오(大悟)의 길은 남에게 지시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 그러나 제자는 논리로써 이해하려 머리를 움직였다. 그것을 알아차린 임제는 즉시 '할(喝)'을 던진다.

수학의 여러 대천재들이 대발명을 할 때의 계기는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뉴턴은 농장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 우연히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또 아인슈타인은 햇살이 구름 사이에서 산너머로 가는 것을 보고 상대성 원리의 중요한 힌트를 얻었다는 이야기 등 어떤 분야일지라도 학문적인 진리와 법칙을 얻는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것과 유사한 경험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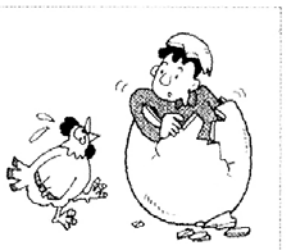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할 임제, '고함'으로 논리초월 관념타파

번뜩임 뉴턴, '떨어진 사과' 본순간 대법칙 발견

필자 자신도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하나의 개념과 그에 관한 정리를 수립한 적이 있었다. 그에 관련되는 거의 모든 자료들을 몇 번이나 검토하고 이들의 공통되는 법칙을 찾으려 몇 개월 동안 고민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무심코 땅 위에 그려진 타원형의 모양을 보고 있을 때 개미 한 마리가 그 초점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간 애매했던 여러 성질이 마치 두 개의 초점이 겹치는 것처럼 하나로 표시되는 것으로 느껴졌다.

대과학자는 이러한 체험을 여러번 경험한다. 20세기의 최대의 수학자 포앙카레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오래도록 한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면 어느새 그 문제에 관련되는 일이 무의식의 밑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비록 뇌의 표면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은 늘 생각하고 있다.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어느새 그 속에서 병아리가 스스로 크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문제가 스스로 정리되어 간다. 어느 순간 암탉의 사소한 움직임으로 병아리는 알에서 깨어난다. 이 순간 암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스승의 '할(喝)'이며 뉴턴에 있어서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계기가 대뇌에 섬광과 같은 번뜩임을 가져온다. 이 과정은 도저히 말(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지다. 신비적이라고 할까? 의식되지 않은 또 하나의 내 세계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쉬운 문제일지라도 스스로 풀어라"고 말한다. 스스로 푼 한 문제가 남이 가르쳐 준 10문제 보다 학습 효과가 훨씬 크다. 해답을 구하는데 고생하지 않으면 힌트, 또는 '할(喝)'을 얻을 기회가 없다. 과학자(수학자)로서 성공한 사람은 연구하는 대상(문제)을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람이다.

스승은 '할(喝)'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오래도록 안고 있는 문제가 무의식 속에 정착되어 스스로 하나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가고 마지막 과정에서 '할(喝)'의 의미를 갖는다. 임제는 3번이나 얻어맞고서야 대오(大悟)를 얻었다. 처음과 두 번째의 '할(喝)'은 기(機)를 얻지 못했지만 3번째에는 대오(大悟)를 얻었다. 아무리 맞아도 무의식 속에 선기(禪機)가 충분히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큰스님. 일타큰스님의 법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Ⅰ.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Ⅱ.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Ⅲ. 베풀며 살자 / Ⅳ.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Ⅴ.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Ⅵ. 화두 드는 법 / Ⅶ.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큰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 B6 / 3,500원
- 祈禱(기도) — 일타스님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일타스님 주변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1~5 —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 無碍辯을 담은 책 — 신국판 / 각권 6,000원
- 감로법문 —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생솟는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582~6612 팩스 : (02) 586~9078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담금질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요"

산문밖의 전설 유기匠 김선익씨

4대째 가업…아들도 대잇기

'안성맞춤'이란 말은 안성지방의 마춤유기가 우수했던 데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안성이 유기 생산지의 대명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렇지만 꼭 안성이 유기의 본고장인 것은 아니다.

경북 봉화읍 삼계리 내성유기공방의 김선익(63)씨는 안성 유기도 사실은 봉화유기에서 기술을 배워 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의 믿음은 2백여년을 유기업으로 지켜온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하다. 그는 4대째 유기업을 이으며 봉화유기가 가장 우수하다는 자긍타령을 들어 왔다.

그의 하루는 '오늘은 무엇을 몇개나 만들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시작된다. 안채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공방에 들어가 화덕에 불을 붙이면서 그의 손은 바빠진다. 40년을 넘도록 해 온 일이지만 매일매일이 새 일일 수 밖에 없다. 만들어야 할 제품의 본을 매일매일 새로 떠야 하고 날씨에 따라 일의 완급과 망치질의 강약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신념이 날마다 새롭기에 그의 작업은 날마다 새로울 수 밖에 없다. 2백여종의 제품을 주문 받아 만드는 그에게 어제와 같은 오늘은 하루도 없었다.

불 붙은 화덕에서 쇳물이 녹는 동안 번기(퓸쓸 거푸집)를 만드는 김씨의 솜씨는 능숙을 넘어선지 오래다. 40년 세월의 두께가 헛것이 아님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의 손놀림은 유명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 아닌게 아니라 그가 갯흙과 쇳물, 가질칼, 그라인더 그리고 집게들을 지휘하며 반짝이는 놋그릇을 만들어 내는 과정은 엄숙하기까지 하다.

"그릇하나를 만드는데만도 수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어디에서도 마음을 흐트리면 일이 되지 않아요. 쇳물을 끓이는데도 합금의 비율을 어기면 안됩니다. 좋은 유기는 구리 72%에 주석 28%의 비율을 잘 맞춰 내는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비율이 들어맞은 쇳물이 끓는동안 그는 그릇의 본을 뜬다. 암 수로 나뉘지는 틀에 갯흙을 다져 넣으며 만들 그릇의 윤형을 만드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다. 인천 앞바다에서 채취해다 쓰는 갯흙을 꼼꼼히 다져 넣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흙의 습도가 알맞아야 한다. 너무 습하거나 마르면 쇳물이 제대로 부어져 응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운 갯흙으로 만든 본이 완성되면 그으름질을 하는데 이 과정에 든 김씨의 표정은 '무심(無心)의 도인' 같다. 암틀과 숫틀을 뒤집어 놓고 기름에 붙인 불을 이리저리 쏘여 갯흙이 적당히 응고되게 하는데는 세월이 가르쳐준 솜씨말고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그으름질이 잘 돼야 쇳물이 일순간에 흘러들어 그릇의 모양이되고 결이 고와지는 것이다. 물론 쇳물을 붓기전에 쇳물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한다. 흙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릇에 구멍이 나거나 티가 생긴다. 쇳물을 부어 넣는 속도의 조절도 중요한 노하우다. 너무 빨리 부어도 안되고 너무 천천히 부어도 안된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속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다.

본을 뜨고 쇳물을 붓는 과정까지를 부질이라고 한다. 이 부질의 공정은 철저한 중도(中道)다. 김씨가 40년간 유기를 만들며 배운 것이 바로 이 중도의 도다.

"일거리가 많다고 서둘러도 안되고 적다고 늑장을 부려서도 안됩니다.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는 그 물건만을 위해 쓰여질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잘 지키는게 좋은 물건 만드는 조건입니다. 모든 과정이 중도(中道)에서 마무리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불의 세기도 그렇고 흙을 다지는 것도 그렇고 그으름질도 그렇고 쇳물을 붓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중도는 부질에서 이어지는 가질에서 더욱 엄격해진다. 가질이란 주물틀에서 떼어낸 제품을 담금질한 후 표면을 깍아내고 광을 내는 과정이다. 보통의 쇠는 1천도가 넘는 불에 달구었다가 찬물에 급냉시키는 담금질을 하면 더 단단해지지만 유기는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진다. 김씨는 여기서도 유기의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흔히들 큰 시련을 겪고나면 더 큰 사람이 된다고 말하잖습니까. 유기야말로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지는 품위를 지니고 있지요. 그렇다고 강해지기를 포기한 부드러움은 아닙니다. 본래의 강도는 유지하면서 유려한 멋을 발하는 것이 담금질 된 유기가 인간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정성을"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날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

세월이 가르쳐준 솜씨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갯흙·쇳물·가질칼을 다룬다



◇40년간 유기만을 만들며 살아온 김선익씨가 '무심의 경지'에서 그으름질을 하고 있다.

주물틀에서 금방 나온 유기는 아직 유기라할 수 없다. 담금질의 시련을 통해 스스로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칼로 표면을 깍아내는 마감작업과 광내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유기가 된다.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 하나가 탄생했을때의 기분은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김씨는 어쩌면 그 표현 못할 기분때문에 평생을 유기장으로 살아 왔는지도 모른다. 특히 사찰에서 쓰일 불구를 만들때는 부석사 무량수전의 부처님을 생각하며 정성에 정성을 더한다. 그렇게 정성들여 만든 제품이 부처님께 올릴 공양물을 담게 된다는 것이 가슴 뿌듯한 일이기 때문이다. 94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을 받고 난 뒤부터는 자신의 제품 뒤에 반드시 이름을 새겨 넣는다.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4대째 이어오는 가업에 대한 긍지심을 그렇게 표현 하는 것이다.

김씨는 요즘 더욱 신난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한 아들 형순씨(27)가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그 고마운 아들에게 어떻게 기술을 전하겠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너무 급하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게 제 솜씨 익어가는대로 가르쳐야죠."

임연태 기자



◇ 담금질을 한 후 가질을 기다리는 유기제품들. 시련 겪으면 큰사람 되듯 유기는 담금질을 하면 할수록 유려한 멋을 발한다.



◇주물틀에 갯흙을 다지며 본을 뜨는 장면.



◇암수로 된 주물틀에 쇳물 붓기.



◇주물된 유기들을 틀에서 떼어내는 장면.



◇완성된 식기세트.



◇완성된 촛대와 불상의 광내기 작업.

취재수첩

옛날엔 생활용품…요즘은 제기·장식품으로

유기란 재료의 성분과 비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동을 기본으로 하는 비철금속과의 합금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놋으로 만든 제품이 유기제품이다. 기원전 3천년경에 서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유럽과 아시아대륙을 거쳐 우리나라에 전해진 청동기 시대가 바로 유기의 시원이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는 청동문화가 고도로 발달했었다. 즉 삼국시대의 '신라동(新羅銅)'은 중국에서도 알아 주었고 이를 재료로 한 불상과 종등 불교 성물도 오늘에까지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있는데 봉덕사 대종(에밀레 종)과 금동미륵반가상등이 다 청동제품이다. 고려시대에는 동과 주석을 합금한 유기제품이 대량 생산되어 식기로도 쓰였다.

유기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3가지로 대별된다. 불에 녹인 쇳물을 일정한 형태의 틀에 부어 만드는 주물기법과 78%의 구리와 28%의 주석을 합금해 메질(망치질)을 계속해 얇게 만들어가며 형태를 잡는 방짜기법이 일반적이다. 또 전남 순천지방에서 발달한 궁그름 옥성기법은 반방짜라고도 하는데 주물기법과 방짜기법을 합친 제작방법이다.

놋쇠는 우리나라에서 선호한 특이한 금속이다. 학자들은 그 은은한 빛과 쓸수록 친숙해지는 품위가 우리의 민족성에 부합했던 탓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놋식기는 물론 대야 양푼이 재털이 등 생활용구로 뿐만 아니라 제기와 불기(佛器)로도 흔하게 사용됐던 유기제품은 전국의 유기공장에서 만들어 졌었다. 그러나 일제말기 전쟁에 쓰기위해 일제가 놋제품을 살살히 공출받아 가면서 유기공장도 속속 문을 닫았고 해방후부터 스테인레스 제품이 유행하면서 유기의 사용은 극히 줄어들었다.

오랜 역사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의 민족성을 담았다는 이유 때문일까. 다시 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옛부터 징이나 꽹과리같은 농악기에는 유기만 쓰였지만 요즘은 장식품으로 유기제품을 찾기도 하고 제기나 반상기 세트로도 찾는다. 특히 사찰에서 쓰는 불구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유기제품이다. 불단에 올리는 다기나 촛대 과반 종경은 유기제품이 제격으로 호평받고 있다.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기. 우리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유기제품들이 오늘에 다시 인기를 얻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대대로 유기업을 이어온 김선익씨의 내성유기공방(0573-73-4836)에서 신세대 유기장이 아버지의 솜씨를 이어가려는게 우연이 아니듯이 말이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안녕품(安寧品) ①

我生已安 아생이안
不惱於怨 불온어원
衆人有怨 중인유원
我行無怨 아행무원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원한 있던 일에 성내지 않는다
사람마다 원 맺힌 일 있건만
내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不病於病 불병어병
衆人有病 중인유병
我行無病 아행무병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병고로 여기던 일 이젠 병이 아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병 있건만
내게는 아무런 병고가 없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不慼於憂 불척어우
衆人有憂 중인유우
我行無憂 아행무우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근심하던 일 이젠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마다 근심걱정 있건만
내게는 아무런 근심이 없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淸淨無爲 청정무위
以樂爲食 이락위식
如光音天 여광음천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맑고 깨끗하여 마음에 함이 없다
기쁨으로 양식을 삼을 뿐이라
저 광음천의 삶과 같도다

我生已安 아생이안
澹泊無事 담박무사
弊薪國火 미신국화
安能燒我 안능소아

내 삶은 이미 편안하여서
마음이 맑아져 일이 없다
온 나라가 섶불로 가득한들
어찌 나를 태울 수 있을 소냐

勝則生怨 승즉생원
負則自鄙 부즉자비
去勝負心 거승부심
無爭自安 무쟁자안

이기려하면 원한이 생기고
지면 스스로 비굴해진다
이기고 지는 마음 버리고나면
다툼이 없으매 스스로 편안하다

熱無過婬 열무과음
毒無過怒 독무과노
苦無過身 고무과신
樂無過滅 낙무과멸

음욕보다 더한 불은 없고
노여움보다 더한 독은 없으며
이 육신 지닌것보다 더한 괴롬없고
적멸보다 더한 즐거움 없다

無樂小樂 무락소락
小辯小慧 소변소혜
觀求大者 관구대자
乃獲大安 내획대안

조그만 즐거움 즐기지 않으며
옅은 지혜 말재주 즐기지 않고
살피고 살펴 큰 법 구하면
크게 쉬는 경지에 이르게된다

我爲世尊 아위세존
長解無憂 장해무우
正度三有 정도삼유
獨降衆魔 독항중마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면
헤탈이뤄 아예 걱정할 일없으니
바로 욕계·색계·무색계 제도하고
홀로 온갖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見聖人快 견성인쾌
得依附快 득의부쾌
得離愚人 득리우인
爲善獨快 위선독쾌

거룩한 이 만나보는것 즐겁고
귀의할 곳 생기니 더욱 즐겁다
어리석은 이들과 섞이지 않으니
바른 길 걸음에 홀로 흔쾌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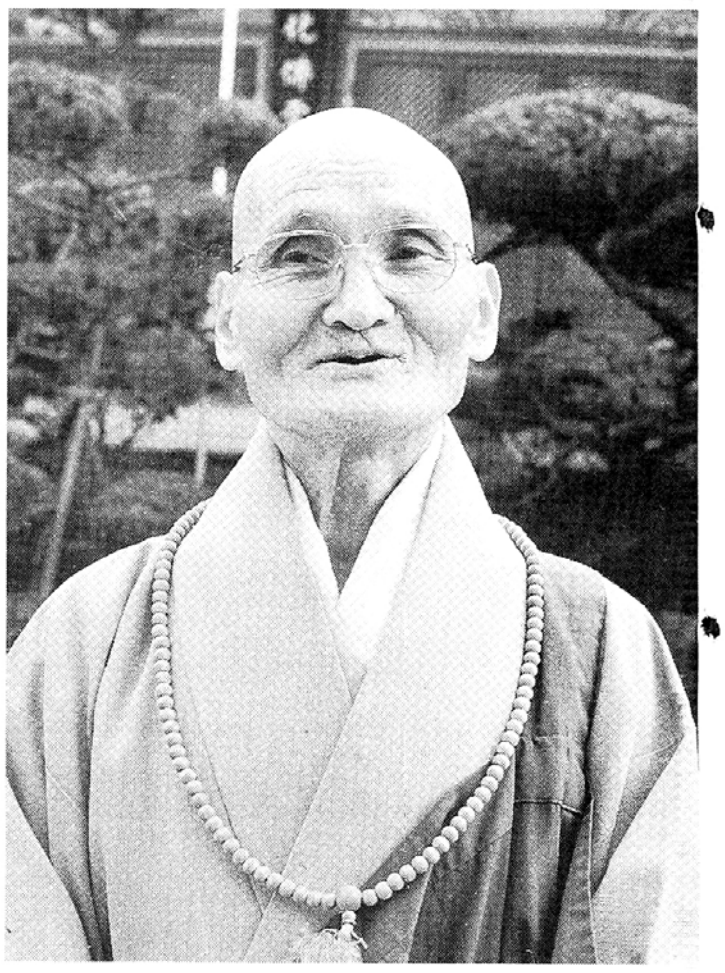
"이기고 지는 마음 버리고 나면 다툼이 없어지니 스스로 편안"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간절한 믿음 없으면

보안스님 〈부산 감로사 주석〉



약력
- 1921년 生
- 1946년 밀양 표충사에서 출가
- 자운스님으로부터 전법
- 봉암사 상원사 도리사 등 전국 선방서 수행
- 1974~現 부산 감로사 주석

앵무새처럼 남의 좋은 말 그럴싸하게 옮겨 놓는다고 깨달음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것도 그렇고, 그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5살 때 그러니까 출가하기 바로 전 우연한 기회에 6·25사변으로 인각사 불상을 피난시켰던 부처골에서 산에 드리운 부처님을 뵙는 값진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다만 도달치 못한 '깨달음'은 아직 내겐 여전히 저 피안입니다. 46년 밀양 표충사에서 출가해 이날 이때까지 중노릇을 하고 있지만 '깨달음'에 대해 청하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70여년의 세월에도 아직 '깨달음'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없이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것은 설법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때로 대중들은 출가사문에게 "스님은 누구의 법을 이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의미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를 닮지 않았고, 그는 나를 닮지 않았네"라는 약산스님의 말씀처럼 법을 잇는다는 말은 무의미 하거든요. 깨달음은 결코 이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는 대회스님을 시봉하고 자운스님께 법을 받았지만 스승은 깨달음을 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제자의 깨달음을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따라서 깨달음엔 본질적으로 스승이 없습니다. 때문에 누구의 법을 이었다는 말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제자냐가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는 겁니다. 가끔 깨달음을 모방하는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그럴싸하게 옮겨놓으면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구하는 행위가 앵무새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미 깨달음은 물 건너간 것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좋아하는 요즘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범답안을 요구하겠지만 깨달음엔 결코 모범답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하는 진실한 자세만은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님들이 산문에 들어 와 맨 처음 배우는 것이 보조스님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입니다. 거기에는 '법문을 들을 때는 얼음위를 걷는 것과 같이 반드시 눈과 귀를 기우려 현의(玄意)를 들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스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 귀의해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은 간절해야 합니다. 달마를 찾아간 혜가는 진리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팔을 잘라 바치고 설법을 청했다는 것은 선가(禪家)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없고서는 결코 진리의 문에 들어 설 수 없습니다.

"禪은 평상심에 충실하는 것 밥 먹을때나 일 할때나 오직 그 일에 집중하세요"

부처님 당시 다문제일로 칭송이 자자했던 아란존자는 설법을 듣는 자세 또한 남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때 아난존자는 심한 등창에 걸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수술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아뢰고 아난존자의 수술을 위해 설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시작했고, 칼로 살을 째고 뼈를 깎아내는 데도 아난존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에 심취해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생각을 집중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설법을 들을 때도 이와같이 간절한 생각이 없으면 법사의 설법은 그야말로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되고 맙니다. 설법을 듣든, 참선을 하든, 염불을 하든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 삶의 바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다지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큰스님을 떠나 전국 선방에서 '깨달음' 참구에 힘썼습니다. 40여년의 세월이 됐습니다.

도리사 선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방의 규율은 절집안 어느 곳보다 엄합니다. 앉는 자리조차 규율이 있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절집 서열에 따라 방의 어간에서부터 좌우 아랫목으로 자리를 정해서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랫목인 하판은 신참 수좌가, 윗목 상판은 선배스님들이 앉습니다.

산중의 선방은 커서 아랫목은 절절 끓고 윗목은 냉기가 돌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하판은 졸음이 올뿐만 아니라 뜨겁기 조차 해서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법랍이 일천한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아랫목 신세를 질 수 밖에 없었는데 방석 하나를 깔고 앉아서 졸음과 뜨거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인 참선의 진가를 알고 나서부터는 겨울 석달동안 가부좌를 틀고, 점심공양도 잊은 채 좌선삼

주간불교 1997년 11월 25일 화요일

인터뷰

건강식품 3종 출시
시연스님, '원기대보탕' 등



◇대구여래한방병원장 시연스님

대구 여래한방병원 원장이며 최근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특허로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연스님이 이번에 또 다른 건강식품 3종류를 상품화시켜 시판하고 있다.

이번에 시판하는 건강식품은 '원기대보탕'과 '보혈청신탕', '한방식초'.

스님은 "'원기대보탕'은 중국 고대 신선도의 수행자들이 원기를 도우기 위해 먹었던 것으로, 계피 갈근 구기자 대추 등 30여가지 한약재를 써서 만든다"면서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방식초'에 대해서 스님은 "검은 쌀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버섯 검정깨 감 누릅껍질 등 40여가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면서 "정력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약을 복용하면 대변색이 누렇게 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혈청신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혈압으로 인한 질병이나 신경통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지요."

스님은 이번에 개발 판매하는 3종의 건강식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면서 건강식품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한방병원 설립에 쓸 계획이라고 한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들어 이웃을 위한 자비실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스님은 말한다.

신상품·신경영 화제

원기대보탕(元氣大補湯)

중국에서 고대로부터 신선도(神仙道)의 수행자들이 원기(元氣)를 도우기 위해서 30여가지의 한약재를 써서 만든 「원기대보탕」은 몸의 원기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있다 . 이번에 시연스님이 비전된 명약의 처방을 얻어 약을 만들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일이다.

내용량 : 60봉지(2個月分)
용 법 : 1일1봉지(아침식후30분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한방식초 (韓方食醋)

검은쌀(黑米)밥에 농주(農酒)를 붓고 상황 버섯, 검정깨…등 40여가의 한방약재를 넣어 발효시켜 만든 「한방식초」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비전된 신비의 명약으로 정력을 증진시켜 노화를 억제함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한 난치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다. 약을 복용하면 누른 대변이 나오는 것이 치료효과를 확인 시켜주는 현상이다.

내용량 : 1.8ℓ (약0.6되)
음용법 : 1일2스푼(공복시 복용)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

보혈청신탕(補血淸神湯)

우리나라에서 이름난성씨의 증가에서 대대로 비전된 명약인 「보혈청신탕」은 보혈강장(補血强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을 맑게하여 정신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내용량 : 4.2ℓ(약2되)
음용법 : 1일 1봉지복용(공복시복용)

▣ 가 격 : 30만원(2개월분)

- 특이한 자연향료 냄새와 엄선된 우리농산물(약초)로 정성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 시험준비생, 참선수행자, 노약자, 건강 한 사람도 꼭 필요한 명약입니다.

▣ 입금구좌 : 우체국 704148-0019991
卍 여래한방병원
▣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큰스님 수행한담

진리의 문 열수 없어요"



◇보안스님이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사진으로 35년전 낙동강 방생법회에서 일타스님 도우스님 보경스님과 함께 했다.

팔만대장경 요체는 '心'입니다
마음자리만 옳게 놓으면
만법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매에 빠져 있기를 밥 먹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영덩이가 짓무르고 상처가 생겨 피고름이 방석에 달라붙는 웃지 못할 일로 스님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나를 선정삼매에 들게 했던 화두는 "착의끽반아(着衣喫飯阿)/시방뇨타사(屎放尿拖死)/시로상행(屍路上行) 시심마(是甚麼)

행자시절 대중스님들의 아침공양 준비를 위해 후원에서 등분서주하고 있는 나에게 은사스님께서 느닷없이 "너는 무엇을 위해 밥을 먹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저 새벽이면 일어나 예불하고 법당내의 청소, 밥 짓고, 경전 읽는 등의 생활을 반복할 뿐 이런 저런 생각할 겨를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 출가하는 사람의 몫이려니 여겼거든요. 이렇게 출가자의 공부자리를 놓고 살았던 나에게 스님의 그 한마디는 철퇴가 되어 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런 연유로 들게 된 화두를 참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석달, 일년을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밝혔다시피 '옷 입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싸고 죽은 송장을 끌고 길을 가는 이것이 무엇일고?' 라는 화두의 한문 풀이만을 여러분에게 해 드릴 수 있을 뿐, 깨달음을 묻는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간경을 하든, 염불을 하든, 진언을 일심으로 하든, 참선을 하든 자기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견성성불하는데는 참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禪)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상심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졸리면 자고, 배 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마음에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상대(相對)되는 대상이 없어 보살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 고플때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 마시는 것만 생각하며, 일을 할 때는 일만하고, 가르칠 때는 가르치기만 하며, 책을 읽을 때는 오직 책 읽는 일에만 신경을 쓰세요. 매 순간을 자신이 하는 일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여 일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법을 물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그에게 묻기를 "밥 먹었는가?" 그가 "먹었습니다" 하니, 선사께서는 "그럼, 발우를 씻으러 가게나"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발우를 씻으러 가라"는 조주선사의 말씀을 듣고 곧장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스님이 깨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밥 그릇을 씻으셨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선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을 내어 생각을 일으킨다면 마치 나무로 달을 치는 것 같이 어렵지만, 일체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세수할 때 코를 만지는 것 만큼이나 쉽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생각을 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움직여 생각을 내게 되면 크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선공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밥을 먹는 것입니까? '밥을 왜 먹는가'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뚜렷한 방향과 해야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밥을 먹는 것이 가정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진정 효자라 할 만하고 가정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충신이요, 인류를 위해 밥을 먹는다면 영웅일 것입니다.

또 일체의 모든 중생을 위해 밥을 먹는다면 그는 보살입니다. 사홍서원에 '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중생은 그 수가 한량 없지만 반드시 제도하여 열반의 증과를 얻게 하려는 서원)'라 하듯 일체 중생을 위해 밥을 먹을 때 진정한 불제자가 되고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경 봉암사에서 살 때 였습니다. 성철스님, 우봉스님은 물론 혜암스님, 도견스님, 도우스님 등 많은 수좌들이 같이 있었을 때였는데 나는 선방에서 공부하는 틈틈히 공양주 소임을 자청했습니다. 그 소임이 얼마나 힘들던지 때때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용맹정진하고 있는 다른 수좌들을 볼때 그 마음이 더 일어났습니다. 수좌들 공양 수발하고 나무 패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된지 출행랑을 치는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이름을 대면 다 아실만한 분도 계시구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껄껄 웃으실 겁니다.

그러나 본분의 도를 알고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一切唯心造)'라고 말합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죠. 또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고도 하는데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만치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다 봐야 할터인데 누가 그 많은 경전을 다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불교는 모르고 마는 겁니까.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의 요체는 마음 '심(心)'자 한 자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돌돌 뭉치면 심(心)자 한 자 위에 서 있어서 이 한 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自初至終)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자기의 본성, 즉 자성(自性)을 볼 수 있습니다. 견성(見性)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지런히 화두를 참구하여 잠이 푹 들어서도 크게 살아나고 크게 깨쳐서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현행원품〉에 '나의 뜻은 저 허공이 다할 망정 다함이 없으니 끊임없이 수행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용맹정진은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반된 처지에 있더라도 침해와 투쟁을 버리고 서로 돕고 살다보면 이웃과 내가 하나이며,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중생과 본질에 있어서 한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과 불은 상극된 물체이지만 물과 불을 함께 조화롭게 이용하는데서 우리 생활의 기반이 서게 됩니다.

동생동사(同生同死)·동고동락(同苦同樂)의 대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힘을 상호협조에 쏟는다면 생사고해에서 해탈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적 분명히 하면 삶의 방향 뚜렷해요
효자도 보살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정리=도필선 기자

나와 경전 33

아쌀라야나경



전 재 성
한국팔리성전협회장

〈아쌀라야나경〉을 읽은 것은 스리랑카 팔리불교대학 교수시절, 불교사회철학과 교재로써 팔리어로 된 경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였다.

이 경전은 팔리장경 중부의 93번째 경전으로 제1결집에서 성립된 초기 경전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생생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아쌀라야나경〉에서는 당시 사회의 지배계급인 500명 바라문들과 부처님과의 계급평등에 대한 대토론이 벌어진다. 이 대토론에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설득과 자비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쌀라야나경〉에 따르면, 지배적인 상층계급인 성직자계급은 베다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직자야말로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성직자들이야말로 밝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어둡다. 성직자들이야말로 청정하고 성직자가 아닌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성직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적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자이고 하나님이 만든 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500명의 바라문들에게 아주 논리적인 명쾌한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계급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월경, 임신, 출산, 수유를 갖는 인간적인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는 휴머니즘적인 평등사상을 전개하여 절대신의 창조설을 부인한다.

둘째, 계급이라는 것이 신이 만든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도변경까지 들어와 있던 희랍 사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희랍사회는 인도사회와는 달리 두계급 밖에 없는데, 귀족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귀족이 되기도 한다는 계급변동에 의한 평등사상을 전개시켜 바라문들의 고정관념을 타파시킨다.

셋째, 다음과 같은 반문 즉 '성직자만이 이 나라에서 원한을 품지않고 화내지 않고 자비스런 마음을 지닐 수 있는데,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는 그렇지 못한가?'를 통해서 모든 계급은 도덕적으로 기회균등하며 인간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우며 그러한 무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평등사상을 전개시켜 성직자계급의 우월론을 타파시켰다.

넷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값비싼 전단나무로 불을 밝히는 것과 천민들이 더러운 돼지먹이통나무로 불을 지피는 것은 그 밝기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여 인간은 누구든지 깨달음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불성론적인 평등사상을 전개시킴으로써 바라문만이 밝고 청정하다는 정부정(淨不淨)의 사상을 논박했다.

다섯째, '성직자계급의 아들과 귀족계급의 딸이 결혼하여 나온 자식이 성직자계급인가 귀족계급인가?'라고 반문하여 계급이 유전형질에 따라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생물학적 평등사상을 전개하여 사회적인 계급상속의 부당함을 고발했다.

여섯째, 종교적 지식의 획득은 도덕적인 기반위에서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며 사회적인 평가의 일차적인 대상은 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식의 독점에 의한 계급사회의 취약성을 폭로함으로써 바라문이 주장하는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고 모든 인간의 도덕적인 평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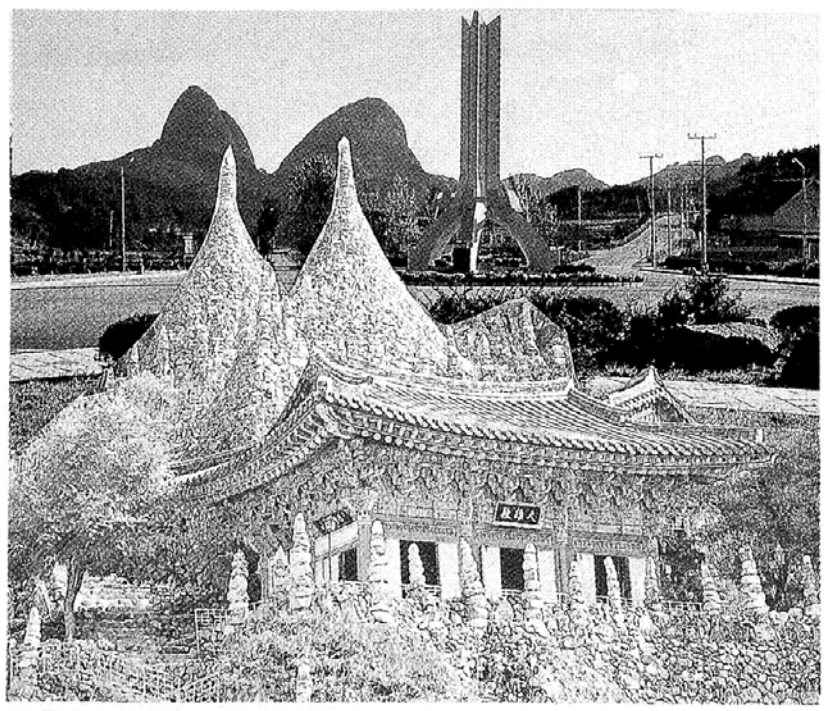
아마도 인류역사상 인간의 평등에 관해서 이렇게 간략하고 자명하고 깊이있는 사상을 설명한 어떤 성자도 철학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심오한 인간에 대한 연기법적인 접근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떠한 강이든 바다에 이르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듯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따르면 모든 계급이 소멸하여 다만 완성자의 아들로 불리운다.

〈아쌀라야나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든지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가장 높은 계급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밝혀주는 경전이다.

인간애 바탕 바라문 계급우월론 타파
평등사상의 본질 연기법 통해 깨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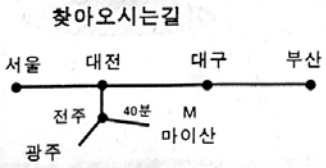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제 7 차
충효사 서울수련회 모집안내

불법의 진리를 깨닫고, 충효사상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눔의 장은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 드립니다.

1.모집내용

차수	구 분	대 상	모집인원	회 비	날짜(기간)
1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12~12.15
2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19~12.22
3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25~12.28
4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31~98.1.3
5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1. 9~ 1.12
6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1.15~ 1.18
7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2. 5~ 2. 8
8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2.13~ 2.16

2.수련내용
①묵언 ②염불진언 ③강 의 ④마음나누기
3.접수요령 : 전화접수(선착순에 한함)
4.교 통 편
철도 호남선 서대전 다음역 두제역 하차(2분거리)
5. 지 참 물 : 세면도구, 츄리닝 한벌, 회비
6. 연 락 처 : 042)841-4101

파련중앙수련원
파련중앙경제연구소
파 련 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 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죽음' 명상하면 집착 끊어지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③

초펠스님 번역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

스승을 찾고난 후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의미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이다.

인간의 몸얻기 힘듦을 알게됨: 우리는 매일 쓸데없는 일이나 말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알게 된다면 좋은 일이나 수행에 힘쓸 것이고 마음이 매우 기쁠 것이다.

지옥에 태어나거나 아귀·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은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또 오래사는 신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기쁨에 집착하기 때문에 수행을 행하기란 매우 힘들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땅, 부처님이 계셨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백치로 태어나거나 악견을 지나게 되면 수행하기가 힘들다.

> 인간의 귀한 몸 지니고
> 재산모으기에 낭비하면
> 보석나라에 가서
> 빈손으로 돌아옴과 같다

지금 우리는 삼악도와 천상등 8가지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다음생에도 인간의 몸 얻고려면: 다음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고 싶으면 계정혜 삼학에 의지하여 금생에 계율을 잘 지키고 보시·인욕해야 한다. 천상에 있는 신들은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귀한 몸을 지니고서 돈이나 재산을 모으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보석을 찾기위해 보석나라에 가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처럼 아까운 일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한 찰나의 순간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의미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금생에 귀한 몸을 받았지만 언제 다시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만약 자주 얻을 수 있다면 금생에 의미있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 하면 되겠지만 다시 얻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다시 귀한 몸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데 따라서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삼선취에 태어나려면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 보시를 하면서도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축생으로 태어나며,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태어나듯, 귀중한 몸을 얻은 것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다.

우리는 다음에 또 귀중한 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탐욕에 집착하여 죄를 짓는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 바르게 행동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므로 귀한 몸 얻을 수 있는 원인을 만들지도 못하며 얼때 또한 얻기를 희망할 수 없는 것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만으로 삼악취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행동없이 귀의하는 것만으로는 삼선취에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할때 오래살고 건강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조심하여 틀림없이 해야만 한다.

옛날에 한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토하게 되었는데, 그 음식이 아깝다고 목을 막았다. 이런 조그만 음식도 아깝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겁동안에 얻기 힘든 귀한 몸을 얻고도 의미없는 일만 하고 있다면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악행보다 선행을 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삼선취에서 삼악도로 태어나기는 매우 쉽다. 반대로 삼악도에서 삼선취로 태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가르침이 있을때 태어났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지역에 있으므로, 이렇게 어렵고 귀한 몸 얻었을때 열심히 수행해야만 한다. 여기서 잘못하면 내생 그 내생의 일들이 모두 잘못될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죽지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하며, 남은 수명이 얼마간 간에 밤낮없이 열심히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다시 삼악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깨달음의 길인 보석을 자기 손으로 얻을 수 있을때 얻지 않고 다시 지옥에 태어나는 원인을 만들면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차 한잔 마시는 순간에도 복덕을 쌓을 수 있는 인간의 몸 얻었으니 금생에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염라대왕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죽어 불지옥에 태어나는 고통을 항상 명상하면 초발심이 생기며 자만심도 없어진다.

다음 생을 위해 해야할 일

수행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번 생에 입는 것, 먹는 것, 명예에만 집착하게 된다. 여행을 떠나려면 그곳에 가기위해 먼저 준비를 하듯 죽음을 깊게 생각하면 다음 생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죽게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은 죽지않는다는 생각으로 인해 수행도 다음에 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이다. 수행을 하면서도 완전하게 못하고 있는 것은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수행을 하려면 이번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는 가난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칭찬하면 좋아하고 칭찬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등의 사바세계 8가지 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집착을 버릴수 없다.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없다. 집착을 인간의 시체처럼 버리면 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생긴다. 옛날에 하늘처럼 위대한 스승들이 위대하게 된 것도 집착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기도나 염불을 하는 그런 수행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완전한 가르침을 배우려면 죽음과 무상에 대하여 명상해야 한다.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이번 생의 집착을 위한 수행이 되고 만다. 집착중에서 명예를 버리기가 가장 힘들다. 왜냐하면 삼보에 공양을 올리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남이 좀 보아줬으면 하는 희망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다. 깨달음의 길을 찾으면서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앞의 불구덩이는 못보고 멀리있는 나무의 열매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할때 쉽게 피곤해지고 정진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탐진치 삼독이 생긴다.

재산과 왕의 권력도 죽음에 이르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죽을때 지니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죽음의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서야 한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바른 수행을 할 것이라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번 생에 정확하게 수행하게 된다. 하사(下士) 중사(中士) 상사(上士)의 길을 차례로 배우게 되는 것은 다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욕장에 보면 화장실안에 해골의 그림을 그려놓아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기 위한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여 생기는 힘은 명상과 결집 등을 부술 수 있는 망치와 같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하는 힘이 생긴다. 수행을 열심히 했던 이들은 "이제는 죽어도 겁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삼악도의 고통: 윤회하여 태어나는 곳은 삼선취와 삼악도밖에 없다. 이 두곳을 자기 마음대로 갈수 없다. 만약 마음대로 갈 수 있다면 누가 삼악도에 가려고 하겠는가. 지금 자신을 살펴보면 당연히 악업을 많이 짓고 있으므로 삼악도에 날 수밖에 없다. 오늘밤 편안하게 잠을 자다가 주위가 불로 가득찬 곳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지옥에 태어나는 고통들을 명상하게 되면 초발심이 생기며, 슬픔으로 인하여 자만심도 없어지게 된다. 삼악도에는 지옥, 아귀, 축생의 세 가지가 있다. 불지옥의 불은 사바세계보다 7배나 더 뜨겁다. 이보다 조금 나은 지옥에 나게 되면 하루에 백번죽고 백번 태어난다.

아귀의 고통은 뜨겁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괴곤하고 두려워하는 6가지가 있다. 자신의 재물에 집착하면 아귀로 태어난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개와같다'고 하면 화를 내는데 죽어서 정말 개로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삼악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명상해야만 열심히 수행할 수 있다.

좋은 길을 찾는 방법

가르침을 믿는 환전한 문: 삼악도의 고통이 무섭다는 것을 믿게되면 그 고통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삼보밖에 없다는 믿음이 생긴다. 이 두가지가 자신이 귀의해야하는 원인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나 신, 용왕에게 귀의하고 외도들은 쉬바나 브라흐마 등에게 귀의한다. 그러나 용왕, 브라흐마 등도 윤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삼보뿐이다. 대승불교를 믿고 있다면서 자신의 일이 잘되지 않을때 신장이나 무당 또는 산신에게 기원하는 것은 삼보를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은 불자가 아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다 없애고 일체 지혜를 다 갖추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구할 수가 있다.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부처님과, 약과 같이 고통을 치료할 수 있게 하는 정법과, 간호사처럼 길을 도와주는 승가 도반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삼보뿐이다.

인과를 믿자: 삼보에 귀의한 후 그 가르침을 열심히 따라하지 않으면 삼보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 삼악도를 벗어나는데 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정법이다. 정법의 의미는 인과에 대하여 믿는 것이다. 인과법을 지키지 않으면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행의 준비는 인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매운씨의 열매는 맵고 단씨의 열매는 단것처럼 원인을 만들때 조심해야만 한다. 열매가 열리고 나면 손을 방법이 없다. 조그만 죄도 큰 과보를 받고 조그만 덕행도 큰 과보를 얻을수 있듯 어떤 종류의 결과는 발생하면 증폭한다.

악업과 선업: 정법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다. 10가지 악행에는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마음으로 짓는 3가지가 있다.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는 것만으로도 선업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조금 짓더라도 참회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참회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리를 다친 것과 다친 다리를 고치고 난 후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몸 얻기 힘들다는 것, 죽음, 삼악도의 고통, 어떻게 귀의하는가, 업등에 대하여 알았으니까 다음 생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하사의 길을 깨우치게 된다. 그것을 깨우치면 중사의 길로 가야 한다.

> 의지할 대상은 삼보뿐
> 대승불교 믿는다며
> 산신 등에 기도하면
> 삼보 신뢰 않는 비불자

"오늘 죽지 않는다고 수행 미루면 안돼"
"인간몸 얻기 힘드니 인과믿고 선업쌓자"

生光石은 자연입니다.
生光石은 원석 그대로 입니다.
生光石은 자연이 베푼
마지막 축복입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와서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자연에서 살지 못하고
독성을 내뿜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에게 소 젖보다 어머니 젖이 좋듯
사람에게는 자연의 정기가 좋습니다.
生光石은 강원도 영월에서 채광된
가공되지 않은 신비의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의 파장 生光石, -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켜줍니다.

● 헬스톤 100

100% 生光石으로 만든
⊙ 헬스톤 100으로 시공된 집은

건강 가족 모두에게 건강을 드립니다.
·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촉진 · 체질개선
· 미용효과 · 전자파로부터 보호

환경 상큼한 실내공기와 쾌적한 생활 환경을 드립니다.
· 시멘트 독성제거 · 실내 공기정화
· 결로 방지 · 곤열 방지

위생 철결한 생활위생을 보장합니다.
· 곰팡이 서식방지 · 냉기 방지
· 해충 퇴치 · 피부질환 방지및 치료

경비 헬스톤 100의 시공, 경비를 도울려 드립니다.
· 고온의 체감온도 · 우수한 열전도율
· 축열 효과 · 난방비 절약

● 생광석 108염주

◆ 생광석 108염주로 부처님 명호를 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1.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기도 원을 부처님께서 잘들어 주실것이며
2.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송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잘 헤쳐 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3. 늘 지니고 다니시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실 것이며
4. 내 마음의 심성을 밝혀 선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곳이 곧 부처님 계신 법당이며
5. 생활속에서 작은 복을 짓는 것이
부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 생광석 108염주를 늘 몸에 지니시면.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지십니다.

● 베게(학생, 사무직근로자, 노인, 예술가, 운전자)
1.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상쾌하다.
2. 뇌의 혈액순환과, 대사작용을 촉진시켜 잠을 푹 잘 수 있다.
3. 불쾌한 머리 냄새를 없게 한다.
4. 상처가 잘 아물고 머리결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한다.
5. 고개가 부드럽고 유연해진다.

● 방석(한곳에 오래 앉아 있는 분, 주부, 자가운전자)
1. 세포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을 돕는다.
2. 혈설기관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3. 불쾌한 냄새등을 없이 한다.
4. 복통이나 불편한 부위에 올려 놓으면 좋은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놓고 앉으면 차내의 담배냄새등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차내 공기를 맑고 쾌적하게 하며, 장시간 운전하여도 피로감이 거의 없다.
6. 여름에 오랫동안 한곳에 앉아 근무를 해도 히프의 땀띠나 사타구니의 축축함이 없고 쾌적하다.
7. 장기간 사용하면 치질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8. 방석(특)을 3개 연결하면 건강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

그외에 냄새제거, 수족관 환경유지, 피부미용, 행운의 건강석, 난초·화초재배용 生光石이 있습니다.

● 韓國 生光石 허리벨트

한국 생광석 허리 벨트는, 사람의 체로 운동 과정인, 9.36 마이크론의 체로 활성 에너지를, 실 생활 온도에서, 효과적인 방사를 하는, 생광석 제품으로, 허리 부위의 체로를 활성화 하고,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허리결림, 허리 통증등과 생리통 등에 큰 도움을 주며, 허리 보호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미리 미리 보호하십시오.
허리가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들께 권합니다. ◆
1.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 장애에 의한, 허리 결림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
2. 아랫배가 차고,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3. 앉거나, 선 채로 장시간을 지내야 하는 분
4. 출산 후의 여성, 생리통이 있는 여성
5. 허리를 보호해야 할, 50대 이상의 남·여
6. 허리가 비만하고 허리가 유연하지 못한 분
7. 허리를 다치기 쉬운 스포츠 맨, 또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
8. 무거운 짐을 자주 들거나,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가정주부 또는 선생님
9. 허리를 고정한 채로 오래 있어야 하는 운전 기사, 낚시광 등등
10.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허리, 허리는 나를 사람답게 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대들보입니다.

KSC 한국생광석주식회사

TEL 서울: (02) 737-0695
대구: (053) 422-6661~2
창원·마산: (0551) 63-7296
진주: (0591) 53-5494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어라"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10〉

인간소외현상과 수처작주(隨處作主)

제도·조직·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 특히 청소년들은 가정·학교·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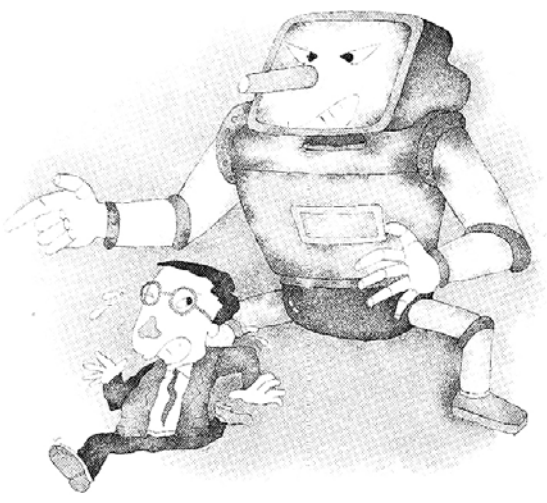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고도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역기능의 하나인 인간성 상실, 인간성 매몰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인간화 경향 중 문제되는 것이 인간소외(人間疎外) 현상이다.

인간소외에 대한 개념 규정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간소외 현상이란 인간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조직, 기계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화폐 제도는 분명히 인간 행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화폐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배를 받게 되는 인간이 화폐의 노예가 되어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단절을 가져오며 반목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돈의 노예가 된 인간은 심지어 돈 때문에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는다.

산업사회는 기술집약적인 사회라고 한다. 각종 기계의 발달은 인간에게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개인이 모든 기술에 익숙할 수 없다. 제품을 만드는 한 과정에서 한 가지 기술에만 숙련되어 있다. 즉 생산과정 흐름의 한 부분에만 관여하며 기계의 움직임에 따라 기계가 요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대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조직에 있어서도 인간은 소외되어 있다. 한 조직체에는 위계적 질서가 있으며 이 위계적 질서는 꽉 짜여져 있다. 이러한 질서정연한 조직체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분명히 소외되어 있다.

소외된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 무의미감, 무능감, 고독감, 자기소원감(自己疏遠感) 등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 소외된 인간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라나는 청소년은 소외의 경험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보다 끈끈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인간으로 길러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현재 가정에서 소외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소외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 하나는 과보호성 때문에 나타나는 소외현상이다. 핵가족제도 하에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고 무능감, 무력감, 무의미성에 빠지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특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열쇠소년(key boy), 열쇠소녀(key girl)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소외되고 있다. 다량교육 획일교육 아래 청소년들은 교사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문제를 교사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사와 인간적인 따뜻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다량 교육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나타나는 소외현상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의 시험제도에 의하여 소외되고 있다. 그 공부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오직 점수 따기에만 골몰한다. 불필요한 지식인 줄 알면서도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입학시험제도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학생들은 분명히 시험제도의 노예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회에서의 소외현상은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시사회는 익명(匿名)의 사회이다. 대문 밖을 한 발자국 나오면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소년들이 어떤 행동을 하여도 이를 제지하거나 충고하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성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청소년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청소년을 사회의 후보자로 보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이다.

청소년을 사회의 후보자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은 내일을 이끌어 갈 준비기에 있으며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성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성인의 종속적 실체이다.

이에 반하여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의 일원이며 청소년은 성인의 종속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독립적 실체인 것이다. 즉 청소년은 그들 나름대로 성인과 다른 지적 호기심, 예술적 취향, 정서, 도덕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 실체를 지닌다고 본다.

"청소년을 성인의 종속체로 보지말고 주체성을 갖고 자유자재하도록 교육"

이러한 두 가지 관점 중 대부분의 성인들은 청소년들을 성인의 종속적 실체로 봄으로써 청소년을 소외시키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목적감, 방향감을 상실하고 무의미감 무능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정체감(自我正體感) 상실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동, 청소년, 장년, 노인 모두가 소외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인간소외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불교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수처작주(隨處作主)의 가르침이다. 즉 〈임제록(臨濟錄)〉에 있는 임제의현(臨濟義玄)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일구(一句)이다.

우리 나라 선학사전에는 "어느 곳에서나 주체가 된다면 선곳이 다 참되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의 사물에 사로잡히지 않고 청정하면 깨달음 그 자체라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한 나카무라(中村元)의 〈불교어 대사전〉에 따르면 수처작주란 "어떤 경우에 처하여도 항상 자기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어떤 것에게도 불잡히는 바가 되지 않아 항상 자유자재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소외 현상이란 결국 개인의 주체성을 다른 그 무엇에 빼앗겨 주인의식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있던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자아존중감(天上天下唯我獨尊)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주인의식,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주인의식, 국가에서는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이 무목적감, 무방향감, 무능력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성(自我正體性)을 확립할 수 있다.

자아정체성 확립은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불법(佛法)에 의하여 가능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생활불교용어



재(齋)

마음을 맑게하는 불교만의 의식
49재 · 우란분재 · 영산재 등 총칭

'재(齋)'는 '제(祭)'와 발음도 비슷하고 의식형태도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기 위한 의식이고, 제는 죽은 이를 위해 혼백이나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들이는 의식이다. 따라서 '재'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특수의식이다.

'재'의 어원은 범어 '우파바사타(upavasatha)'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의미는 본래 '승려의 식사'를 일컫는 말이었다. 이것이 승려에게 식사를 공양하는 의식, 또는 그와같은 의식을 중심으로 한 법회를 뜻하는 것으로 전용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을 '재'라고 하며, 성대한 불공(佛供)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재'로는 49재, 우란분재(盂蘭盆齋), 영산재(靈山齋), 예수재(預修齋) 등이 있다.

또 '재'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삼가며 맑게 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계(戒)와 통한다.

사람이 마음을 가지런히 하거나 맑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계율이기 때문이다. 계에는 살생 · 도둑 · 음행 · 거짓말 · 술을 금지하는 오계(五戒)와 여기에다 꽃다발을 쓰거나 몸에 향을 바르거나 노래하고 춤추는 곳에 가서 구경하지 말 것, 높고 넓고 크게 잘 꾸민 평상이나 좌석에 앉지 않을 것, 때가 아닌 때에 음식을 먹지 말 것 등을 포함한 팔계(八戒)가 있다. 팔계를 '팔재계'라고도 한다.

8재계는 출가스님들에게는 가능하지만 재가신도에게는 지키기가 힘들다. 따라서 한달에 며칠을 재일(齋日)로 정해 절에 가거나 집에서라도 팔재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생겼으니, 매달 초 8일, 14일, 15일(보름), 24일, 29일, 30일 등 6재일이다.

※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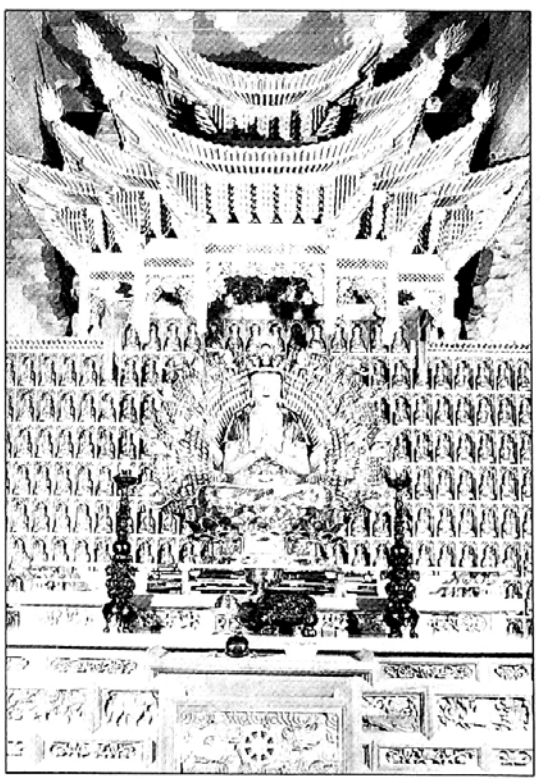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생활속의 모든 정보!
불·자·정·보 에서 만나세요.

함께 나누는
불·자·정·보

불자정보 광고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됩니다.
광고문의 전 화 (02) 732-1522(直)
FAX (02) 737-0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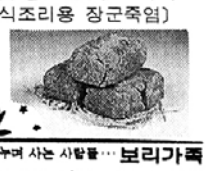
관 건 강 관

◆ 한 방 암 정 보 ◆
02)700-6366

◆ 그린파워녹즙기 ◆
길동 02)470-3102

◆ 대 보 생 식 ◆
잠실 183-10 02)427-9162~3

승가 전통의 손맛…
온돌방 전통메주
〔음식조리용 장군죽염〕



마음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보리가족**
02)3141-1011/011-786-0817
▶ 재래콩 메주에 음식조리용 죽염으로 담근 죽염 된장. 간장은 영양가와 약성이 풍부한 무공해식품이 될 것입니다.
- 온돌방 전통메주 소두1말(斗) 5개 값 39,000원
- 음식조리용 죽염 특별포장 5Kg(1) 값 35,000원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시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 원 합장
0415)63-0749 / 011)453-8611

전문시술원 張 三 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회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0593)34-1115~6
012)598-1015

관 강 좌 관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 (166회) ●
교재 4권 1117쪽 녹음
기초부터 격국 · 용신까지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 많문이 드입니다.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 대불교신문
강 룡 지 사
0391)43-5599

신 생 아 작 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울로서기 힘든 시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월 4회 실시- 매주 수요일 오전10시~12까지)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 생 활 역 학 ◆
개인지도
- 초보자 쉽게 지도(3개월)
- 철학원 하실 분 꼭 상담바람
※감정비법 있음
02)242-6188
금 륜 정 사
덕 치 합장

명상 개인지도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선(禪)**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氣明綾峉 地水火風
02)897-7731
016)340-4459

관 구인 · 구직 관

◆수양·공부·기도 모집◆
청 학 사
0595)83-2933

◆ 운전기사 구함 ◆
- 봉고 : 1종보통 면허소지자
0335)33-7747
용인 동도사 주지 합장

사찰운전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 : 50대
-운전자격 : 1종대형
0351)41-1152

사업에 동참하실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저는 진실하게 살고있는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로서 채산성이 확실하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무역업, 제조업:특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이윤추구와 아울러 어려운 사람을 돕고, 불사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달성하기에는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여 인간적이고 진실하게 사업에 동참하실 재력있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찾아 뵙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 02)548-8822 (09:30~17:00)
호출 : 012)875-4657(주 · 야)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동 두 천
0351)867-4132

관 불교용품 관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금강경 10폭 병풍 법보시 ◆
천일기도 원력으로 이룬 금강경 병풍(경덕 108작품) 꼭 소장하고 싶으신 인연있는 불자님을 모십니다.
02)845-0760

◆ 보련각서점 ◆
견지동 02)733-9537

◆ 예 진 솥 ◆
견지동 02)736-5160

◆ 견지불교사 ◆
불교서적 · 어린이용품 전문점
견지동 02)739-3032

◆ 大 福 田 ◆
佛 敎 用 品
견지동 02)737-0969

◆ 여 래 사 ◆
견지동 02)730-6939

◆ 太成佛敎社 ◆
불교 · 단청 · 개금
견지동 02)732-7375

◆ 아전전통칠기공방 ◆
목발우 · 제기 · 다기잔 · 소반 · 주방생활용품
옻칠공예 지정문화재 수리 가능인 작품
▶전화 : 494-0520
※삐삐 전화주문 가능

관 불교 미술 관

부처님조성 · 석탑 · 석물 · 석비 · 부도 · 불사건축 · 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이니라 어려운 현장 직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상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佛心 **여래미술원**
* 탱화 * 개금
경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敎美術院
金魚 李 鍾 春
* 불화 조성 전문
13,15,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 (화실)
011-737-6581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물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목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탁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관 사 찰 안 내 관

전국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하실 분이나 운영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사찰안내(토굴)
◇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고성산 밑
◇ 법당 1, 방 2, 거실 2, 주방, 욕실, 기름보일러
◇ 건물등기가 : 매가 2천 5백만원
◆ 불상 · 탱화 있음
0334)72-9505
0331)255-4315

전국 사찰부지 · 포교당
양도하실분, 매입 운영하실분 연락주시면 성심연결!
02)486-2343
019)234-0417
신안개발 성 운 합장

사찰안내
◇ 위 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210번지 (서천읍에서 차로 5분거리, 도로인접, 신세수리)
◇ 사찰명 : 지장암
- 법당 7~8명, 요사채 2칸, 방3칸,
- 입실부엌,목욕탕
◇ 가 격 : 약 5천만원
0459)953-7938

포 교 당 안 내
◇ 위 치 : 구의동 대로변 (동부경찰서 버스정류장)
◇ 평 수 : 약 20평 (3층건물 2층)
◇ 가 격 : 보증금 1,000만원 · 월45만원
◆ 시설비 : 보신 후 절충
전 화 02)447-8487
휴대폰 017)273-511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 대 지 : 240평 ◇ 건 평 : 35평
◇ 구 조 : 황토 너와집
◇ 전 경 : 한가한 농촌 산밑,정남향,「별장지」
◇ 가 격 : 건물 및 대지 2억 (건물만 1억 1천) ※가격절충가능
0342)702-7793
0338)74-2491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영천 고경부근
◇ 평 수 : 임야 1만평중
- 대지 400평, 법당 20평,
- 산신각 3평, 용왕각 4평
- 석불 입상불 (5m) 요사채 40평
◇ 가 격 : 절충가능
◆ 황수탕 약수 유명
011)819-0803
012)483-1798

사찰 · 포교당 안내
◇ 위 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 평 수 : 임야 - 800평
전 - 112평
답 - 700평
◇ 건 물 : 대웅전 - 10평
산신각 - 3평
용왕각 - 3평
요사채(2동) - 40평
창 고(2동) - 20평
◆ 가격절충 가능
0634)33-9861
062)224-6696
(광주북동불교백화점)

사찰 안내
◇ 위 치 : 서울 중랑구 면목4동
- 4층건물 2층 30평
- 방2개, 주방, 법당1
- 보증금(시설비 포함) 2,700만원 월50만원
※ 가격절충가능
0344)64-4827
017)263-6908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서초역 100미터
◇ 현재 2년째 운영중
◇ 투자비 1/3만 받고
◇ 시설 양도(60평)
02)583-0014

사찰 및 부지
◇ 위 치 : 경남 진주시
◇ 부 지 : 약 2,000평(정보작업완료)
◇ 요 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법 당 : 평토작업 완료
◇ 기 타 : 약 1,000평 작설차 나무 식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 특 징 : 공원에서 제외된 산속요지의 엣사찰터(건축등 허가 됨)
016)589-0560

사찰양도안내
◆위 치 : 전남 해남
◆부 지 : 1,600평 등기 필
◆법 당 : 9평 및 산신각 용왕당
◆요 사 : 창고포함 총5동 큰방 5칸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양도가액 : 1억3천만원
◆특 징 : 수려한 산세와 물 조화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즉시 법회 가능함.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하여 드립니다.
양도외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단, 스님 외 일반인 상담이나 매매 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불교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동 국 불 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
(24시간 호출중)
서 울 본 사 :02)3705-4447
※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내
◇ 평 수 : 399평
- 실사용평수 : 700평
- 임법당, 산신각, 칠성단, 용왕각, 범종각
◇ 가 격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 인가에서 100m 떨어진 곳 수목이 울창하고 바다가 한눈에 보임
012)1585-4204

사찰부지 안내
◇ 사찰부지 : 50,000평
◇매 가 : 2억 5천(도로비용포함)
◇위 치 : 강원도 원주시에서 3)분 거리 아주깊은 산속골짜기 계곡이 좋음
◇ 사찰부지 : 60,000평 ◇매 가 : 2억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깊은 산속)
◇ 사찰부지 : 1,500평
◇매 가 : 4억 5천만
◇위 치 : 오대산 지나 소양강 주위경관이 수려하고 계곡이 있음
※ 사찰 양도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TEL :0371-762-0101
H.P:011-466-1802 / B.P:012-397-6003
(주)천 운 한 상철 합장

개 인 토 굴
◇위치 : 유명산 입구
0356)84-9597
015)205-1506

경북 김천(계곡좋은 유원지)
◇ 종교용지 : 580평
◇ 건 물 : 28평(임법당외 10평,기타10평)
◇ 가 격 : 1억 8천
◆ 스님에 한하여 1억 5천까지 양도가능 (가든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은 많은 조정안됨)
단, 뜻을 같이 한 불자로서 투자한 금액만큼 이곳에 투자하고 일생을 함께 살아가실 분이 계시면 접견후 매각하지 않고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기 바람.
0547)437-4135~6

관 승 복 관

◆ 대 성 승 복 ◆
대표 임 현 호
(단체주문 우대)
견지동 02)739-6287

◆ 가 람 승 복 ◆
견지동 02)739-0080

관 여 행 사 관

◆ 불교성지순례 ◆
(주)성문관광
종로구 청진동
02)722-2233(代)

◆ 스마트여행사 ◆
당산동 02)631-9412

관 장 의 관

- 불교장례대행 -
◆ 대한불교연화회 ◆
불교식 장례를 불자들 손으로~
02)732-9618~9

관 필 방 관

◆ 大興堂筆房 ◆
대표 권 대 일
견지동 02)732-7326

◆ 大新堂筆房 ◆
견지동 02)732-2830

◆ 安國筆房/書籍 ◆
견지동 02)732-4846

◆ 丹 陽 筆 房 ◆
대표 신 태 식
서예도구 일체
공평동
02)720-9991

관 표 구 관

◆ 성 신 표 구 ◆
인사동 02)734-2344

◆ 낙 원 표 구 ◆
인사동 02)734-2972

◆ 명 륜 표 구 ◆
인사동 02)736-1712

◆ 박 당 표 구 ◆
인사동 02)735-5696

◆ 고미당 표 구 ◆
인사동 02)735-2037

◆ 신신표구사 ◆
인사동 02)735-2710

◆ 서 광 표 구 ◆
인사동 02)720-7442

◆ 은실화랑표구 ◆
광명시 02)682-7536

관 화 랑 관

◆ 용정 콜렉션 ◆
중국미술품
02)735-2700

◆ 금 성 화 랑 ◆
인사동 02)733-2462

◆ 가 람 화 랑 ◆
인사동 02)732-6170

◆ 경인미술관 ◆
인사동 02)733-4448

◆ 대호고미술전시관 ◆
답십리 02)212-8777

◆ 예 림 화 랑 ◆
인사동 02)732-3318

◆ 대 림 화 랑 ◆
고서화. 한국화
인사동 02)733-3738

◆ 갤러리 대아 ◆
서 양 화
02)517-2558

◆ 동 원 화 랑 ◆
인사동 02)736-3852

관 학 원 관

◆ 시사일본어사 ◆
- 1집 초, 중급편
- 2집 고급편
- 3집 LIVE편
NHK 일본어
국내독점 라이센스 시사일본어사
02)720-3690

관 기 타 관



대원 문재현 法, 현 정법 華嚴, 참나를 누리는 일상의 노래 도서출판 **법화** T.3317-2460

최초로 번역출간하는 **정법화경**
정진중에 부처님에게 정법확인을 받고 4·5년간 단독번역을 마쳤다. 그간 7년된 축생의 몸을 해탈하여 남아로 태어났고, 60년전 지옥에 빠진 사람도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다.
여러사람의 사업성취도 하였다. 많은 불자로부터 정법화경 인쇄출간의 보시하시는 분은 현실사업과 조상의 천도를 기도발원해 드립니다. 조상천도는 삼악도를 해탈할 때까지 해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원도 100일내지 1,000일까지 축원해 드립니다.
농협 801814-51-031377(김춘길)
대한불교대승연합종 총본원 대정법화경 역경원 원장 법 철 합장
0591-746-7350

도원불교수련원
지암정사(智庵精舍)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 0374-32-7464
FAX: 0374-33-7464

제137차 수련모임
인간완성, 현세해탈, 완전건강
시민참선수련 전문지도
선(禪)은 수십세기의 경험이 축적된 가장 확고한 정신통일법이며 인간완성법(개탈음)입니다. 참선공부는 인간내면을 광화롭게 하고 외면을 아름답게 하며 건강과 경영이 극심한 현대인에게는 최선의 심신건강법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1981년에 부산 대구에 도장을 개설 명상수행과 도가의학을 함께 지도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도장을 개원하게 되어 참선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종교종파를 초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수련초청 / 좌법, 호흡법, 명상식사법, 도인체조, 단식법
◆ 지 도 자 / 이성담(李星潭) 선생
● 장 소 /본회 서울도장
〈강남구 포이동 225-1 영풍B/D 2층〉
한국참선명상협회
도가양생학술원
도장 : 서울:02)575-0130/
부산:051)501-8335~6 / 대구:053)742-9194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땅속에 뿌리박은 저 겨울나무 보세요"

오늘도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도의 길을 걷기 위함이니, 듣고 아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실천해 가면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일 중에 선과 악을 어떻게 대치해 나가며, 이 마음의 도리를 어떻게 용법으로 잘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나 우주도 결국 내가 근본이 되고 나로부터 벌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을 북돋울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군더더기 하나 붙을 자리가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을 찾는 데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없고 들고 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조급한 마음에 역경보다는 순경을, 다시 말해서 내 안위와 물질세계에만 애착을 두어 주인공을 찾다보니 잘 되지 않습니다. 스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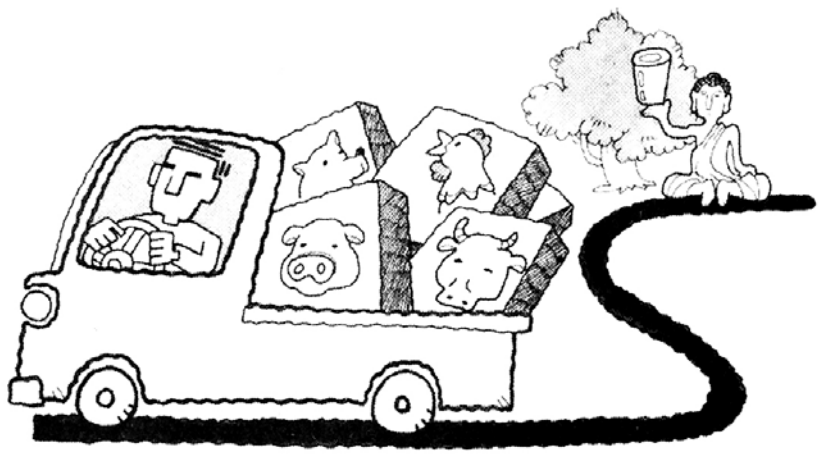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헌

자기보배 자기가 쓰지 못하면 바깥으로 끄달리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책 · TV 보면 느낌이 와요

문 책이나 텔레비전 같은 걸 보고 있노라면 거기에 나오는 말이나 감정에 대해 제게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 느낀다는 것은 막이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참자기와 자기가 상봉할 수 있는 그 막이 조금 얇아졌다는 뜻이죠.

가끔 마음이 불안합니다

문 저는 가끔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해결하고 싶은데 스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십니까?

답 하하하, 댁의 마음이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도 알고 있을 겁니다. 불안한 것도 불안하지 않는 것도 그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관하시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역경보다 순경에 애착을…

문 저는 마음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심자입니다. 열심히 주인공을 찾고자 했습니다만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허공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에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기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툭 틔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

답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통해야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이 한데에 떨어지지 않고 법이 됩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혼합이 돼서 들아가는 지금이 시대가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차례차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악과 선 가운데 악도 내버리고 선도 내버리고 이렇게 지금 나가는 길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다 보면 악도 보이고 선도 보이고, 선도 행하게 되고 악도 행하게 되는 것을 통틀어 여기다 놓고 보면 나도 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한 걸 알고 또 믿는 마음에 간절히 그 자리에다 놓고 해 나가신다면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선은 '참 착하구나' 하고 거기 다시 놔야 하고, 악은 흡수해서 굴려서 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가 하나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각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생각에서 일체 만법을 잘 다스리고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훌륭한 대통령 나왔으면…

문 저는 요즘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나 경제가

"보고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바로 법"
"편안하든 편안치 못하든 양면을 다 놓아야"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대선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0 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님, 마음 많이 내주십시오.

답 모든 것은 다 하나로 통합니다. 우리의 근본은 일체 만물만생과도 가설이 돼 있고 일체 제불하고도 바로 직결돼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말이나 몸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함이 없이 하라 이런 소립니다.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서 그렇게 하신다면, 모두를 편안케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 속에서 들고 나는 것이니,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아신다면 심부름꾼, 즉 말하자면 국민을 편안케 이끌 수 있는 우주의 심부름꾼을 주인이 이끌 수 있도록 마음을 깊게, 지극하게 내십시오. 그러면 바깥으로 끄달리지 않고 생활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인데 마음내주세요

문 저는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저 또한 시험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3 법회때 '나를 버려라' 라는 스님의 법문을 듣고는 순간순간을 '내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런 두려움도 없이 편안해졌습니다. 스님께 감사드리고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스님, 마음 많이 내주십시오.

답 마음을 제 삼자에게 네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스스로 내면 다 통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달라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네진다 이런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것저것 다 버리고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마는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그 양면을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되거든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다 했으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없이 사는 거 보셨어요? 본래 자불과 육신은 집을 삼아서 같이 있어요. 나무도 뿌리와 싹이 같이 달려 있죠. 본래 그렇게 돼 있으니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요.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자기의 참기사니까요.

이 몸뚱이는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것을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불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 관한다면 몸과 손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무척이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전화가 왔길래 '네 주인공에다 관해라.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하니까 한마음으로 상대방 주인공과 네 주인공이 둘이 아니니 그렇게 관해라' 하고 일러줬어요. 모습이나 말은 달라도 주인공 자리는 언제나 가설이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간절히 관했나 봅니다. 이젠 외국어도 몇 개 국어를 하면서 공부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관하는 도리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줘서 모두가 편안하고 밝게 사세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너에게도 불이 들어올 것이다. 주인공에 맡기고 열심히 하다보면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하고 관해줄 때 거기까지 뜻이 깊이 통하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워낙 부모 말을 안듣고 속을 썩여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관하는 문구를 적어서 벽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식탁 밑에까지 깔아놨더랍니다. '어디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하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최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고 (149)

머리에 불이 붙었는데 내일에 끄겠다?

"어떤 부자가 부인 넷을 두고 살다가 최후를 맞게 되었다.

첫부인에게 묻기를, '평생동안 먹여주고 입혀주었으니 나를 따라 가겠느냐?' 고 했다. 대답은 거절이었다. 둘째부인에게 물었다.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내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함께 가겠느냐' 고 했다. 대답은 역시 안된다 였다.

셋째부인에게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극진히 사랑했으니 같이 가자' 고 했다. 그랬더니 무덤까지만 따르겠노라고 했다.

넷째부인에게 묻기를 '당신을 남달리 대접한 일은 없지만 나를 따르겠소?' 하였다.

넷째부인은 잘났든 못났든 함께 살았으니 좇아 가겠다고 했다.

첫째는 육신, 둘째는 재물, 셋째는 권속이고 넷째는 업식을 말한다."

몸을 벗어도 업식은 남는다. 눈도 없고 귀도 없지만 몸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온 차원대로의 업식은 남아서 떠돈다. 마치 앞을 못보는 장님처럼 오로지 생전의 습과 인과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고로 생전에 축생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죽어서도 축생의 몸을 받고 생전에 보살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면 보살의 차원대로 살게 된다. 그것은 누가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짓는대로 받는 법칙, 그것일 뿐이다.

육신이 사대로 흩어져 원점으로 되돌아가도 몸이 있었던 인과로 인해 업식은 몸이 있는 줄 안다. 또 악업 선업으로 뭉쳐진 업식은 그림자처럼 따르면서 앞을 가로막고 나서기 때문에 거기에 밟혀서 꼼짝없이 노예처럼 끌려 다닌다.

그러니 불을 만나면 타죽을까 겁내고 물을 만나면 빠져죽을까 겁내는 형국이 마치 육신 있을 때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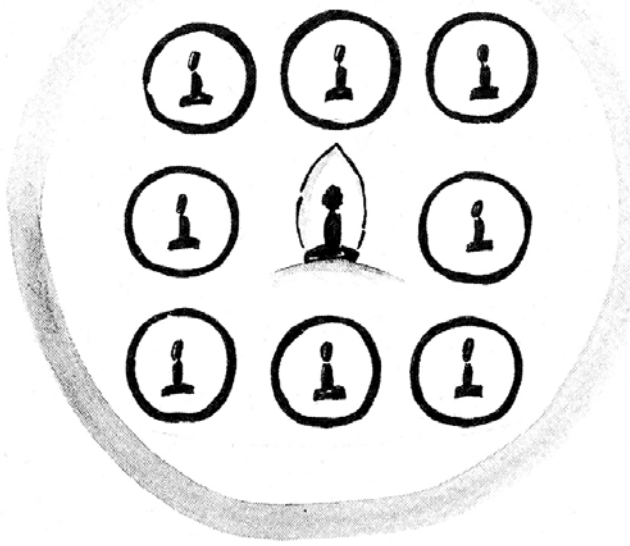
고로 사후의 일이란 물을 것도 없다.

생전에 했던 일을 스스로 일기장에 꼼꼼히 적어 놓은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후의 문제를 결정한다.

나를 돕는 것은 오로지 수행의 힘뿐이다. 첫째부인도 돕지를 못하고 둘째 셋째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옷을 벗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데려갈 수도 없으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쥐고 가지 못하고 들고 가지 못하고 먹고 가지 못한다. 재화도 놓고가고 권력도 놓고가고 명예도 놓고간다. 가족도 버리고 간다. 갖고 나온 것이 없으니 들고 갈 것도 없다. 다만 가지고 왔고 갖고 가는 것은 생전에 시시로, 구구절절로 먹었던 마음뿐이다. 고로 마음도리를 알아야 한다. 몸 떨어지고 나면 그 차원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인즉 육신이 온전할 때 마음을 닦아야 한다. 죽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살아서 극락에 들어야 한다. 살아서 통행증을 얻어야 한다.



오늘 살아있다고 내일도 당연히 살아 있을 줄로 믿는다면 그건 착각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산다. 내게 내일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당연히 내일은 밝아올 것이고 또 그다음 내일도 계속되리라 믿고 산다.

그래서 느긋하다. 오늘 못하면 내일에 하면되지 하는 그런 심정이다. 그러나 오늘 못한 것을 내일엔 어떻게 하나? 누가 그걸 보장해주나? 내가 내일에 할 수 있다면 오늘엔 왜 못하나? 오늘 하면 왜 안되나?

오늘 못한 것은 내일에도 못하기 십상이다. 고로 시간이 없다. 느긋해할 시간이 없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한다. 마음도리를 공부하는 일은 날자 받아놓고 하는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에, 생활의 경계경계마다 해야하는 공부이다.

어차피 갖고 갈 수 없는 것이니 놓고가라.

어차피 들고 갈 수 없으니 지금 놓고가라.

들고 가는 사람은 고(苦)를 받지만 놓고가는 삶에 고는 따르지 않는다. 놓고가는 것은 바로 업식을 녹이는 길이다.

몸 떨어질 때 잔뜩 짊어지고 가야하는 업식을 덜어내는 일이다.

이왕이면 홀가분한 게 좋지 않겠나? 이왕이면 업식의 그림자에 묶여서 가고 올 길을 모르기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눈멀고 귀멀어 헤매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바로 오늘 마음도리를 익히지 않으면 시간은 없다. 당연히 내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느긋함은 금물이다. 그래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급하고 급한 것이다.

협찬 : 안 창 길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세세생생 좌우할 이 한철살림 중요"

☞ 17면에서 계속

거 아들 눈에 자주 띄면서 저절로 입력이 됐던 모양입니다. 나중엔 스스로 문제 해결할 줄 알고 스스로 관하면서 살더라고 하면서 아주 고마워해요. 하지만 그게 어디 내게 고마워 할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 뿌리를 믿었으니 그런 거지, 안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를 활용할 줄 아신다면 훨씬 사는게 편리할텐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해서 쓰지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기 때문에, 자꾸 내가 모자란다는 생각에 남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봐야 하는 등 불편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악도 선도, 행도 불행도, 차원도 다 자기가 한 대로 주어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기가 한 대로니까 남 탓하지 말고 어서어서 벗어나서 좀 시원하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닭으로 살던 습이 쌓이고 쌓여서 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습 때문에.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습성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하라' 고 말합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 소리예요. 법이 되면 한발짝 떼놓지 않고도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발짝 떼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래가 떼어놓은 바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은 직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나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이라고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것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항상 말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 놨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겠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 찰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지금 바로, 과거와 미래의 교차로인 현재 마음먹기에 달렸다 했으니, 지금 한 생각을 잘 하면 구정물이 새 물로 바뀌여져 새 것이 풀려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천을 해 보십시오. 내 몸 속에도 많은 생명들이 있으니 더불어 한마음으로써 진리를 알아야 하고 선과 악에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처님이 계시고 일체제불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철 사는 동안에 하는 공부가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는 도리예요. 우린 지금 교차로인 중세계에서 한철 살다가 몸을 벗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고에서 허덕거리다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도리로 나섰는데 그건 과거로부터 이미 나서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써 번연히 아는 것도 또 그 길을 되걸어야 했더라 이겁니다.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컵으로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사람도 될 수 있고, 군사도 될 수 있고, 컵 속의 물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천차만별로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도 나투어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현행이예요. 부처님은 그 능력을 배출할 뿐, 법신은 법신대로 행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보현신으로 화해서 응신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도 부처님과 더불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고정되게 위축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건 도저히 난

"마음을 태평하고 지혜롭게 쓰면서 '너무 용렬하게 살지말자' 널찍하게 산다면 병도 안걸려요"

지 말고 어서어서 벗어나서 좀 시원하게 살아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닭으로 살던 습이 쌓이고 쌓여서 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습 때문에.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습성을 다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 합니까.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하라' 고 말합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 소리예요. 법이 되면 한발짝 떼놓지 않고도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발짝 떼어놓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래가 떼어놓은 바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은 직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나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이라고 고정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것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항상 말하지만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놓고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 놨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겠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 찰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지금 바로, 과거와 미래의 교차로인 현재 마음먹기에 달렸다 했으니, 지금 한 생각을 잘 하면 구정물이 새 물로 바뀌여져 새 것이 풀려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천을 해 보십시오. 내 몸 속에도 많은 생명들이 있으니 더불어 한마음으로써 진리를 알아야 하고 선과 악에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자기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처님이 계시고 일체제불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 철 사는 동안에 하는 공부가 세세생생을 얻을 수 있는 도리예요. 우린 지금 교차로인 중세계에서 한철 살다가 몸을 벗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고에서 허덕거리다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도리로 나섰는데 그건 과거로부터 이미 나서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서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써 번연히 아는 것도 또 그 길을 되걸어야 했더라 이겁니다.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컵으로 있지만 안 보이는 데서는 이 컵이 사람도 될 수 있고, 군사도 될 수 있고, 컵 속의 물이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천차만별로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도 나투어 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현행이예요. 부처님은 그 능력을 배출할 뿐, 법신은 법신대로 행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보현신으로 화해서 응신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도 부처님과 더불어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면서도 항상 고정되게 위축돼서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이런 건 도저히 난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데 이 속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다 하면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고, 또 이 생명들이 다 할 수 없다면 바로 일체제불에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편을 다 버리면서 흡수하고 흡수하면서 버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자불,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믿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하고, 또 여여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걸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게 되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여튼 이 한철 사는데 뭐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애를 쓰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뭐가 탁 떨어져서 깨졌다 하더라도 '그거 뭐 이 세상에 몸도 깨지고 죽고 하는데 뭐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아.' 이렇게 살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공



그림 · 최주현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대신 살아 주지 못해" "자성불 믿고 맡기면 '나' 완전히 버리게 돼"

부한다고 그래서 닥칠 게 안 닥치는 건 아닙니다. 닥치는 걸 어떻게 능숙하게 대치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저녁거리가 없다 해도 다 살게 되겠지 하고 부지런히 나가서 찾아보면 굶지 않아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지마는 그때엔 이 절이 아주 작고 가난했을 때죠. 어떤 사람이 여기에 뭘 훔치러 왔는데 형편을 보니 나보다 더 가난한 지경이예요. 그래서 쌀 한가마 반인가 있는 걸 몽땅 줬어요. 식구가 여럿에, 살 수가 없다니 산 부처님들 먼저 살려야죠. 주고 나니 사시 마지때 공양 올릴 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올리기 전에 쌀 세 가마니가 들어옵디다. 그게 내가 한 겁니까? 부처님이 계시면 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안 될테니 걱정할 게 뭐 있나요. '내 자불이 있으면 할 거고 없으면 안될 거고 그러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맡기고 하는 거죠.

아픈다리 나아 감사합니다

문 저는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환갑 나이인데 어릴 때 냇가에서 빨래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를 않고 병원에서는 다리를 자르라고 했습니다. 스님 법문을 접하기 삼년 전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스님 말씀대로 열심히 관하고 공부했더니 지금은 다 나아서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 감사한 마음 어떻게 말로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 원리가, 내 자불 주인공에다 맡기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 대뇌로 올라가서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내면속의 생명들이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어떠한 악조건이라도 다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폐가 아프다면 그 폐의 소임을 맡은 직원들이 작용을 해주고 간이 아프다면 간의 직원들이 작용을 해줍니다. 깊이 관하게 되면 사대로 통신이 돼서 대뇌로 가는데 그건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찾고 발견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뿌리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바깥으로 떠돌게 되면 심부름하는 직원에게 심부름을 맡겼다 안 맡겼다 하는 이치와 같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마음을 태평하고 지혜롭게 쓰면서 한철 사는데 너무 용렬하게 살지 말자 하고 그렇게 널찍하게 산다면 병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냥 바득바득 쥐고 놓질 못하기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요. 그러니 모든 일체 만법이 다 이 마음 하나로부터 움직이는구나 하고 마음에서 놓아야 돼요. 뿌리와 싹이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간다면 바로 부처예요. 달리 부처가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님들, 일체제불이 다 한마음에 직결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출가 · 결혼 사이서 고민

문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해오다가 고3때 우연히 불교에 관한 책을 접하게 되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멋있는 길이 출가를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책을 통해 공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 사량심이 너무 많고, 과연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결혼해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마음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공부하는 것은 출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걸 떠나서 공부하는거예요.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지 몸뚱이만 출가한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하고 형제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나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철 살다가는 건 다 마찬가진데 이 마음공부 한 사람들은 생사 윤회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하지만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어요. 생사 윤회를 몽땅 치워버렸거든요.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는 건 어디서 왔으며, 그 자리에서 가는 건 또 어디로 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해보시면 이 공부하는 데는 출가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진실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을 아실겁니다. 하지만 입산을 하게 되면 얽히고 설킨 문제가 적으니 공부하기가 좀 낫죠.

갓난애가 뇌성마비 걸려

문 저의 딸이 생후 7개월만에 뇌성마비를 앓아서 지금껏 사람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공부는 하고 있지만 다시한번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 어느 병원에 뇌성마비로 쓰러진 애가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와서 손주를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하는 걸 일러주고 걱정말라고 했더니 걷지도 못했던 아이가 사흘만에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밥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믿었기에, 둘 아니게 믿었기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물러서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꼭 성불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얕은 물에 뜰려면 적은 배가 되고 깊은 물에 뜰려면 큰 배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세상 살기가 여유롭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어도 우주 공간에도 다 우리들 마음의 근본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멸정처 우주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은하계 생산처에서도 살고 있고, 또는 북두칠성 거기에서도 우리 생사를 논의하고, 또 한마음이라면 달과 별과 해도 둘이 아닌 까닭에 거기에도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나가는 이 진리속에 모두가 결부돼서 돌아가니까 우리 마음이 만약에 티끌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 티끌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아까 적은 배가 되기도 하고 큰 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바로 티끌 하나에도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가 다 들어있고 우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름해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보살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진짜 실천은 함이 없이 하는 거죠. 함이 없이 할 줄 아니까 보살이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은 마음 속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개미하고도 대화를 하고 돌이나 나무하고도 대화를 합니다. 내 몸은 가만히 있는데도, 생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보게도 되고 만나게도 되고 대화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다면은 심심할 게 없죠. 그래서 어딜 가자고 해도 심심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나가기도 하죠. 이것이 모두 삶의 자유니까요.

지장보살님이 문고리를 잡고선 아무리 다 들여보내고 자기가 들어갈려고 해도 그치질 않아서 문고릴 잡고선 영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누가 아픈 것을 계기로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일 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그런 체험으로써 자기 주인공을 믿게 되고,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써 어떠한 거든지 주인공에만 일임한다면 업보성이나 영계성 또 유전성, 인과성, 세균성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생기죠. 부처님이 옆에 계신다 해도 나를 대신해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자기 근본은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겨울 나무는 가지가 앙상하지만 보이지 않게 땅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봄이면 또 새 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도 배우는 겁니다. 근본은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고 사는 것에 겁내지 말고, 굶어 죽을까봐도 겁내지 말고 잘 살지 못할까봐도 겁내지 말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사세요. 우리가 한철에 이 도리를 다 무찌르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을 이렇게 돌아야 하니까요. 때로는 하천 세계에서 짐승의 모습도 갖고,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고정됨이 없는데, 이왕이면 공부해서 상세계의 법신으로서, 보살로서, 부처로서 이렇게 차원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세생생을 끄달리지 않아도 좋고 끝간데 없이 자유롭죠. 그러니 우리 한철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세생생을 좌우하니까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악과 선을 흡수해서 둘 아니게 응용한다면 그것이 평등공법이요, 그 평등공법에서 천차만별로 나가는 갈래갈래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보배가 되니까요.

참선하면 안면 부풀어

문 저는 7개월 전부터 신행요전을 독송하고 참선을 거의 매일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할 때마다 양입술이 바람에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다가 안면 전체로 그런 느낌이 확산되고 위 아랫니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이 뻐근하면서 머리를 양쪽에서 무엇이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몸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지 3개월 되었습니다.

답 참선이란 것은 일 할 때나 서 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그 모두가 다 참선입니다. 좌선만이 참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선이 아닙니다.

지구는 쉴 사이 없이 도는데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참선을 다 했노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참선이 아니지요.

행선 와선 좌선 입선이 함께 다 참선이 되어야 합니다. 참선을 바로 하시려면 나의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에서 그것이 자신의 깊은 내면 한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줄을 알고 다시 굴려서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뚱이 속의 수많은 생명의식들은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하고 있으므로 행주좌와 중에 일체를 내면 정심에 다 굴려 놓는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참 묵선입니다. 그래야 변소에 가는 일까지도 참선이 됩니다.

지금 겪고있는 일도 바로 내면의 자성불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그렇게 앉게 할 수 있어!' 하고 굴려서 놓으세요.

일차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천도재 지내는 꿈꿨어요

문 선원엘 나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달에 두세번씩 꿈에 스님을 뵙고 때로는 모시고 어딜 가기도 하고 천도재를 지내는 꿈도 꾸곤 합니다. 그래서 천도재를 지내라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부도를 맞는 바람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답 꿈에 누구를 보았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자성불이 화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성불이 당신에게 일러주는 것이니 알아서 하세요.

꿈도 현실이고 현실도 꿈과 같은 것이니 오직 자신의 내면 자성불, 즉 주인공이 하는 것으로 믿어 일거수일투족을 몰록 굴려서 놓으세요. 잘 되는 것은 감사하다 하고 놓고,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 아니냐' 하고 굴려서 놓으세요.

제 나무의 제 뿌리를 믿고 의지하세요.

'관' 하는 중 벽력같은 소리가…

문 스님께 삼배 올리면서 또한 불교TV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불교TV를 통해서 새벽, 저녁예불을 모시고 있는데 며칠 전 일입니다. 새벽시간에 좌선을 하면서 주인공 자리를 관하고 있는데 문득 '보되 보는 사람 없고 듣되 듣는 사람 없다' 는 소리 아닌 소리에 마음의 눈이 밝아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전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일법시 시군산이니 이 도리를 알라' 라는 벽력같은 소리에 깜짝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후로 '일법시 시군산' 의 뜻을 알고자 경전을 찾아 보았으나 알수 없었고 주인공 자리에 관했으나 스치는 느낌뿐 아직까지도 뚜렷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밥을 먹어줄 수는 없지요. '일법시 시군산' 이 무어냐고 당신의 자성불 주인공에게 관해 보세요.

생활 자체가 공부의 재료이고 도의 길인줄은 아실 겁니다. 또 당신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주인공만이 함이 없이 자재하니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한구멍 내면자리에 놓고 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찬 박상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독 자 마 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군승단 재정·인사비리 감사제 도입등 대책을

나는 춘천 모부대에 있는 군법당엘 다니고 있다. 집에서 가까워서도 그렇지만 포교의 황금어장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군장병 포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소망에서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법사님들을 믿고 따라왔는데 얼마전 군승단내 불사 및 인사비리의혹 등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신도들이 불사에 사용하라고 모아준 공금을 횡령하다니 부끄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군승단은 해당 법사에 대한 징계조치는 물론 군법당내 재정 감사제도를 정책적으로 실시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법사님들은 이번 일들을 계기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신도들이 신뢰하고 불법에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로서 더욱더 귀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청정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석굴암 보호 유리벽 자비심 차단한 느낌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우리의 손길과 차단된 곳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석굴암이다. 석굴암은 예배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중시해 조성한 곳이지만 마치 진열장의 마네킹처럼 유리로 막혀 있어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다.

박물관에 놓여있는 불·보살상만해도 유리상자 안에 전시돼 있어 천진난만하거나 자비로운 미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경전의 말씀이 멀게만 느껴진다.

문화재는 단순히 사람들과 격리시킨다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사는 집의 경우는 옛날처럼 군불을 때고 사람이 살 때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영구히 보존된다고 한다. 석굴암도 마찬가지다.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때 더욱 생명력을 발휘할 것이다. 완전히 차단하기 보다는 창덕궁과 같이 관람객을 부분제한해 자연스레 문화재 애호정신을 길러 나가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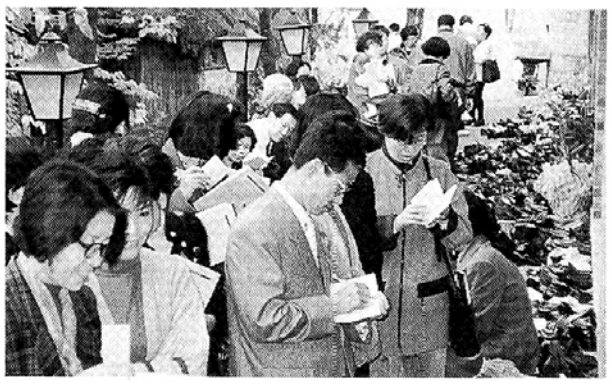
김근삼〈서울 강남구 대치동〉

스님들의 운세광고 교계신문 싣지말자

요즘 모 일간지를 보다보니 정OO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낸 운명, 철학을 봐 준다는 '운세' 광고가 눈에 띄었다. 놀라운 것은 얼마전 신문지상에 바로 이 정OO스님이라는 분을 사기혐의로 찾는다는 광고가 났었다. 혹시라도 불자가 아닌 다른 동료들이 볼까봐 얼른 덮어버리긴 했지만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사주팔자를 봐 주겠다고 광고를 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니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간 수치스럽지 않았다. 불가에서는 그것은 분명 사법이요, 파계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광고게재를 중단해 주길 당부드리며, 광고효과가 커 어쩔 수 없다면 '스님'이라는 명칭을 뺄 것을 제안한다.

박정갑 〈서울 종로구 안국동〉



스님설법에 추위도 잊고…

14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성북동 길상사에서 회주 법정스님의 법회가 있던 날이었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1천여명의 불자들이 법당을 가득 메웠고 상당수가 법당 밖에서 1시간을 넘게 서서 동참했다. 다리도 아프고 쌀쌀한 날씨에 어깨가 절로 움츠려들만도 하건만 수첩에 스님의 법문을 꼼꼼히 적는 모습에서 참불자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보리심〈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불교를 읽고

법회사진 게재 신중하게

현대불교 149호 5면에 어색한 모임사진이 게재됐다. 10월26일 수도방위사령부 충정사에서 열린 호국영령위령대법회의 보도사진이다.

이날 행사는 법화종 종정스님을 비롯 총무원장스님과 수도방위사령관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룬 것으로 보도됐는데 문제는 사진에서 마치 사령관을 중심으로 큰스님들이 앉으신 것처럼 보였다.

나만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행사내용이 법회인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큰스님들께 대한 예우는 불자들 스스로 지켜야 불교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서현〈용전정보 전무이사〉

신행단체 연락처 표기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그 동안 알지 못했던 기존의 신행단체와 신생모임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기사에 연락처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저 기사 읽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성을 띄지 않는 단체, 시설, 모임이라면 연락처까지 표기해 많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더욱 유익하리라 본다.

장동근〈대구시 동구 반야월〉

궁금합니다

다비후 유골 어떻게 처리

문 큰스님들이 입적하시면 다비식을 하고 다비식 후에는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리 외의 유골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최웅림〈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답 육신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님이 열반 하시면 화장(火葬)을 통해 근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일반적으로 화장 후 남은 유골은 습골한 후에 곱게 빻아서 오방(五方)으로 뿌리는 산골을 행합니다. 사리가 나올 경우 사리는 습과하여 사리호에 담은 후 부도를 세워 그 속에 안치합니다. 사찰에 있는 부도전이 그것입니다. 부도 옆에는 스님의 행장을 새긴 공적비를 함께 세워 후인들이 기리도록 합니다.

김경호〈조계종 포교연구실과장〉

대전서 불교방송 들으려면

문 유성 혹은 대전에서 FM 불교방송을 들을 수는 없나요? 〈천리안 ID: TOMTOM2〉

답 현재 불교방송은 서울 외에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4곳에 지방국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교방송을 들으려는 타 지역 불자들의 민원이 높아 불교방송에서는 계속 정부에 지방국 설립 허가요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허가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은 춘천 창원 대전 전주 등 4개 지국과 충주 진주 강릉 울산 제주 등 5개 중계소입니다. 이 설립안이 통과되면 유성·대전 지역에서도 불교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종기〈불교방송 방송상무〉

특별기고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

"대형佛事 다시 생각하자"

얼마전 세계 최대의 청동좌불이 10년 공사끝에 완성되어 설악산 신흥사에서 점안식을 가졌다. 텔레비전으로 본 그 불상은 주위 환경에 어울리지 않게 커 마음이 우울하였다. 총높이가 14.6m로 지금까지의 청동좌불로는 가장 큰 '설악산 봉일대불'은 우리민족 최대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지난 90년에는 높이 33m의 청동미륵불이 법주사에서 조성되었고, 92년에는 높이 17m의 석조 약사여래가 동화사에서, 또 얼마전에는 서울 봉은사에 거대한 석조 미륵불이 조성되었다. 또 앞으로 완성될 대불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

어리석게도 이렇게 서로 다투어 세계 최대의 불상을 무리하게 조성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들 모두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더구나 불상은 너무 커서 예술성을 상실하고 있다.

신흥사에 알아보니 대불완성에 40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만약에 그 돈으로 여러가지 복지사업에 충당하였으면 이 예토를 정토로 만드는데 한몫을 하였다고 칭송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런 통일대불은 한 시대에 하나면 충분하다.

얼마전 신문을 보니 무려 3억원을 들여 서울 성북동의 심우장을 정화한다고 한다. 현재 분위기라도 그대로 살려야 하겠거늘 폭 6m의 진입로를 내고 휴식공간과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이를 만해스님이 굽어 내려다보면 얼마나 통탄하고 분노하실 것인가.

지금 전국토가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건설, 고속 전철부설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고 있다. 금수강산은 이미 옛말이다.

미국작가 어빙의 단편소설 〈립반윙클〉이 떠 오른다. 그는 산에서 낮잠을 자다 깨어보니 이미 20년이 지나 모든 것이 낯선 풍경과 사람들 뿐이어서 몹시 당황한다.

갑자기 나는 과거만을 동경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없는 립반윙클이 되어 버린 것일까.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추악한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고 말 것이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이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최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등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위주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L·E·A·N

불자 세상보기

IMF시대 低소득-高물가-高세금-高실업

오직 살길은 아껴쓰기 나눠쓰기 바꿔쓰기 다시쓰기

경제성장률 3%로 하향조정, 석유관련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율의 인상, 정부예산 삭감 및 공공투자 축소…. IMF 시대 우리 경제의 단면적인 모습이다. 당장 종합금융회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 대기업은 임금의 삭감 및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대량실업과 물가불안, 소득감소 등 경제신탁통치에 따른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공공투자 축소 등 고용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년 실업률은 4~5% 안팎으로 실업자수가 1백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경제연구소는 체감실업자가 1백7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채용도 줄어들어 매년 45만명씩 쏟아지는 신규인력 취업난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1천5백명을 뽑는 아르바이트박람회에 6천여명이 몰린 것은 고용불안의 한 단면이다.

세금 정부와 IMF의 합의에 따라 석유관련 특소세 및 교통세율이 인상된다. IMF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4조5천억원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예금자보호에 투입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세금인상 여파로 관련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인상압력을 받게 됐다. 임금동결과 대량실업에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자칫 저성장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물가 달러환률의 상승으로 휘발유값이 이미 올랐다. 내년에는 휘발유 1리터에 1천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인상과 환율상승은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공산품 가격을 자극,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세금증가도 물가불안의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 물가상승률을 5%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 대우그룹은 3일 임직원 임금의 삭감 또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업대란 속에 임금인상 억제와 물가불안 세금증가로 가계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외국여행이나 유학 등은 더욱 힘들게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소비증가율은 94~96년 평균 11.8%로 국내총생산 성장률(94~96년 평균 8.2%)을 크게 앞질렀다. 버는 것보다 씀씀이가 훨씬 컸다.

IMF 한파를 이겨내는 방법은 씀씀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승용차 대신 지하철로 출퇴근하면 기름값과 세차비,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등을 합쳐 한달에 25만원 가량 절약된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물 전기 난방연료 등의 절약은 물론 불요불급한 지출을 막기 위한 계획적인 소비생활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주문에만 머물지 말고 실업 및 물가대책을 마련,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정성운 기자



◇3일 서울인력은행에서 열린 '아르바이트 채용박람회' 1천5백명을 뽑는 박람회에 학생·퇴직자·주부 등 6천여명이 몰려 고용불안을 실감케 했다.

불교의 눈 과소비는 죄악…절약이 미덕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일차적인 책임소재는 정부와 기업에 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한다. 좌석버스를 안타고 430원 하는 시내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칠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즐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경전이 가르치는 소비생활을 되새기자.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배달음과 양생의 목적으로 먹는다. 이런 사고 속에서는 번뇌가 생기지 않는다."〈일체루경〉

이렇게 들었다

국가경제의 도산으로 부도·감원 태풍이 불면서 각종 스트레스로 건강을(심지어는 목숨까지) 해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문화 특유의 분노증후군'인 '화병(火病)'을 다룬 〈홧병〉(김종우著, 여성신문사刊)이란 책까지 나왔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생기는 '울화병'. 이를 극복하는 불교적 해법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울화병 "분노는 큰 재앙 근본 끊어라"

▨만일 재물을 얻으면 그는 곧 사랑하고 아껴 지켜 보호하고 감추어 둔다. 그러나 그들은 곧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시름하고 슬퍼하고 번민하여 마음에는 곧 어리석음이 생긴다. 〈중아함 고원경〉

▨욕심과 우둔함은 고칠 수 있지만 분노는 큰 재앙이니 슬기로운 자는 속히 버려야 하느니라.〈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분노를 끊으면 편안히 잘 수 있고 분노가 없어지면 걱정이 없다. 분노는 모든 독의 근본이지만 비구는 분노를 없애 편안함을 얻는다. 〈출요경〉

▨분노할 때는 말하지 말라. 대중 속이나 고요한 곳에서나 분노가 불꽃처럼 성한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리라. 〈출요경〉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의 정열을 제어하고 평등한 지혜의 선정으로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 속에 분노가 일지 않는다. 〈출요경〉

▨분노는 마음의 독이 되어 타고난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성냄을 죽일 수 있으면 성현은 그를 칭찬할 것이니, 그의 마음에 걱정은 없다. 〈바사타경〉

▨성내는 자는 그 아비와 모든 형제를 거역하고 해친다. 성내는 자는 이렇게 잔인함이 많으니라.〈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마음에는 세 가지 때(垢)가 있다. 탐하여 구하는 욕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진심(瞋心), 그리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그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에 의한 슬픔과 근심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 〈법화경〉

▨몸을 절제하고 말을 삼가하고, 그 마음을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나니, 도를 행함에는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법구경〉

▨참는 미덕에는 지계·고행도 미치지 못한다. 능히 참음을 행하는 자는 이름하여 대인(大人)이라 한다. 〈유교경〉

▨능히 기갈과 한열과 고락을 참는 것을 세인(世忍)이라고 하며, 능히 계(戒) 시(施) 문(聞) 지혜를 인내하여 믿고, 소견을 바르게 하여 잘못이 없으며, 불법승을 믿고 꾸짖음 구타 악담 흉사 탐진치 등을 능히 다 참고, 참기 어려운 것, 짓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을 출세인(出世忍)이라고 하느니라. 〈찬제바라밀품〉

▨다섯가지 인연이 있어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생긴다. 음욕에 묶이면 음욕으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생기고 성냄과 수면과 들뜸도 또한 그러하며 의혹의 묶음으로 마음에 걱정과 괴로움이 생긴다. 〈중아함 니건경〉

우리경제 '거품지표' 美·日비해 소비흥청

최근 통계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본 미국과 비교해 밝힌 우리 경제의 '거품지표'는 우리도 놀랄만큼 흥청대며 살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승용차 운행거리와 외식비 비중은 일본의 2~2.5배, 에너지소비는 미국의 2배에 달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았다. 주요 거품지표를 살펴본다. (괄호안은 단위, 수치는 한국 일본 미국 순, -는 통계수치 없음)

▲승용차 운행거리(km)=23,300, 12,000, 14,700 ▲1인1일 쓰레기 발생량(kg)=1.3, 1.0, - ▲경승용차 비중(%)=3.9, 22.6, - ▲냉장고 대체주기(년)=7.1, -, 15.0 ▲외식비(1인당 GNP대비 %)=4.9, 4.0, 3.0 ▲1인당 물소비량(리터/국민소득 1천달러)=52.8, 11.6, - ▲물류비용(물류비(%)/매출액)=14.3, 8.8, 7.7 ▲신차 사용기간(년)=4.28, 5.00, - ▲에너지 소비량(톤/GDP1천달러)=0.37, 0.09, 0.15 ▲음식점 수(개/인구1천명)=10.9, 6.8, - ▲점포 수(개/1만명)=197.4, 167.5, -.

세계 기후변화 협약 한국 경제에 악영향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 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가 1일 일본 교토에서 1백60여 가입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10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의 주요의제는 배출규제 대상 가스의 확대 및 배출가스규제 대상국 선정, 배출량 감소 규모이다. 세가지 의제 모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선진국 의도대로 의정서가 체결될 경우 경제난국에 처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규제 대상 가스에 대체 프레온가스를 포함시킬 경우 에어컨 냉장고 냉매로 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국의 배출가스규제 대상국 포함 여부이다. 유럽연합은 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의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개도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의정서 서명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CO2 배출량을 90년 수준에서 동결 또는 많게는 15%까지 줄이자는 배출량 감소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든 석유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노동부 경조금 1만원 '운동'

"공직사회의 경조사 관행 합리화를 위해 실국장급은 3만원, 5급(사무관) 이하는 1만원으로 부조금 기준액을 준수키로 했으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노동부는 최근 산하단체를 포함한 9천7백여명의 직원들에게 이같은 안내문을 인쇄한 봉투를 나눠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사무소에 주민정보센터

5일 문을 연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사무소. 지하 1층과 3, 4층을 정보도서관 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으로 꾸몄다. 정보도서관에는 2만여권의 책을 대출·열람할 수 있으며,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로 인터넷 정보검색도 가능하다. 강서구는 내년에 새로 짓는 관내 3개동 사무소에도 정보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상 사양 눈푸른 신부

"상을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해 일을 했다는 이유로는 무덤에 가는 날까지 어떤 상도 받지 않겠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창립10주년을 맞아 올해 장애우인권상을 제정, 첫 수상자로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관장인 벽안(碧眼)의 천노엘신부(65)를 선정했으나, 천신부는 수상을 사양해 감동을 주고 있다. 천신부는 85년 엠마우스복지관을 설립해 정신지체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지구당 창당대회 금품살포

돈을 주고 청중을 동원한 모정당 지구당 간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2일 지구당 창당대회에 주민을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박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구당 고위간부에게서 1백90만원을 받아 주민 59명에게 2만~3만원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외화 밀반출사범에 '철퇴'

온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나선 가운데 거액의 외화 밀반출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3일 남의 여권을 이용해서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귀금속을 밀반입한 보석상, 금덩이를 몰래 들여온 암달러상 등 사회지도층 부유층 등 15명을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생활정보

휴대폰운전 사고 위험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것은 혈중알콜농도 0.1%(단속기준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포쿠스지는 최신호에서 이같이 전하고 사고확률도 정상운전 때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전보서비스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도 전보를 칠 수 있는 서비스가 2일부터 시작됐다. 이용방법은 PC통신 이용자는 '01410'에 접속하면 되고, 인터넷 이용자는 전자전화 번호부(eds.kornet.nm.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새상품

'뽕잎차 상비천'

당뇨 환자들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건강음료 '뽕잎차 상비천'이 출시됐다.

뽕잎, 실크단백, 둥굴레 등의 추출물로 구성된 이 제품은 주성분인 뽕잎에 고혈압, 콜레스테롤 저하기능과 혈당강하물질(DNJ)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마시기에 좋다.

또 설탕을 비롯 방부제 나트륨 카페인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다이어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된다. 일양약품. 가격은 215ml 1캔 1천원. (02)912-5291



불기 2542년 달력 5일이내 납품가능 합니다

동자승 (大·小)
산사의 향기 (大·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무인년 조견표가 들어 있습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동지 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

동지와 무인년 이야기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성도절 이야기
신국판 64페이지, 정가 1,500원
성도절 법회 법보시로 좋습니다.

동지 법어, 팥죽의 유래, 팥죽과 관련된 풍습, 동지와 불교, 동지에 얽힌 불교 설화, 호랑이 해에 생각하는 호랑이 이야기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동지 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록·내·용

제1부 동지맞이 기원법회
동지 법어/동지 맞이 발원문
제2부 우리의 민속 명절, 동지
팥죽의 유래/팥죽과 관련된 풍습/동지와 농점(農占)/동지의 시절 음식
불교에서 본 동지의 유래/새롭게 보는 동지/선덕여왕과 지귀/팥죽과 나한님
제3부 민속과 불교
문화와 민속 문화/민속 불교/삿됨을 막아주는 색/신성한 색
제4부 아세(亞歲-동지)를 맞아 생각하는 무인년 새해
10간 12지로 나누어 본 무상한 세월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불교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 이야기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및 법회안내 등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4×6배판, 표지포함 52페이지 ※ **법보시 특가/1권당 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738-8682 (야간) 011-265-0923

시론

'감원'은 해법 아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협상타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촉진방안에 따라 정리해고제를 조기시행하거나 '기업의 인수·합병 및 업종전환'을 정리해고를 정당화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과감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정리, 국제수지적자폭의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전반에 걸친 체질개선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직장은 근로자의 생활터전

그러나 IMF의 산업구조조정요구가 있기전에도 경영계에서는 이미 급속한 기술혁신과 격화되는 시장경쟁체제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고용제도를 유연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전제하에 99년 3월까지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정리해고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소 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물론 경직된 고용구조는 노동시장의 원활한 수급을 저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새로운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정리해고제가 시행되지 못하여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유일한 생활터전인 직장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고용관계의 지속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법내재적인 요청이라 하겠다. 특히 근로자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요구된다.

97년 3월 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과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는 "법 제31조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99년 3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상 정리해고의 네가지 요건은 그동안 정리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온 요건들을 그대로 입법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시행을 유예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여 당장 이를 시행한다고 해도,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라질 것이 없으며, 또한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재계는 기업측에 대한 심리적 국면전환용으로써 정리해고제의 조기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고용조정의 애로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제 조항의 유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조정에 따른 노사간의 마찰' 가능성에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들의 생계유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게 될 정리해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무리한 대량해고로 인해 노사간에 큰 마찰이 빚어진다면 오히려 불황타개나 경쟁력 회복은 더 늦어질수도 있다.

경쟁력 회복 걸림돌 될수도

따라서 경영계는 해고회피 노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등에 의하여 근로자측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노동계도 무조건 감원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상황을 직시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정부는 고용조정에 앞서 지금이라도 근로자의 숙련형성과 다기능화를 촉진할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하며 취업알선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자의 재취업 알선대책 등 고용불안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열린마당

경제살리기

충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각계 불자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 사찰에서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 입제를 했는가 하면 신행단체들은 과소비추방운동, 외화모으기 등을 비롯 송년법회를 전면 취소 또는 축소했다. 교계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서울 구룡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신도들을 대상으로 '외화모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일 현재 3천9백달러와 7백33엔을 모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는 이렇게 동참

매일 위기극복 기원
의식주부터 절약 지혜
송년법회 검소하게
포장지·이면지 등 재활용

◆포장지 재활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굳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다고 본다. 청소년은 물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수퍼나 백화점 등에서 산 물건을 넣어 온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깨끗히 씻거나 바르게 펴 다시 가게에 돌려주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현성·청교련 회장〉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에게 장학금 전달: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월부터 추진해 온 장학회를 개관 3주년인 23일 정식발족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난국 때문인지 각종 강좌프로그램에 신청자가 줄고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심산·부산 긍창사회복지관장〉

◆서류봉투 재활용하기: 불교환경교육원에서는 3년전부터 우편발송용 대봉투를 최소 4회 이상 쓸 수 있도록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봉투 겉면에 송·수신자 기재란을 4곳씩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물자절약도 하고 생활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뜻에서였다. 〈법륜·불교환경교육원 이사장〉

◆검소한 식탁문화: 우리 절에서는 식단의 반찬가짓수를 줄이기로 했다. 즉 김치, 김, 야채샐러드, 된장찌개, 미역국 등 5~6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근검절약하기로 했다. 이를 굳이 표현한다면 '검소한 식탁문화 가꾸기'라고 말할 수 있다. 나라경제를 일으키는데 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전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대혜·선산 원각사주지〉

◆위기극복 기도봉행: 조석예불시 국가위기극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수행자라면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한다. 이는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다.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종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해 본다. 간절한 기도는 경제난국을 풀어가는 지혜를 줄 것이다. 〈경우·충주 신흥사주지〉

◆송년법회 취소및 신년하례 축소: 계획했던 송년법회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개 지회 27개 단위산악회(회원1만5천여명) 회장의 대다수 의견이 "어려운 시기에 큰 법회를 여는 것은 국민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취소를 한결같이 요청했다. 〈손현수·전국불교산악인련회장〉

◆생필품 아껴쓰기: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이를 용도에 맞게 철저히 분류해 재활용하고 있다. 복사용지는 이면지를 사용하고 쓰다 남은 종이도 작게 오려 메모지로 이용하고 있다. 또 볼펜도 다 쓴 후 버리지 않고 볼펜심을 교체해 재사용하고 전화도 사무적인 것 이외는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지심·우리는선우 공동대표〉

◆음식줄이기: 가구나 가전제품 옷 등 불필요한 사치품은 안사고 안 입고, 외국여행도 가지 않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에 전념해야 한다. 우리 같은 주부들이 일상 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필품·음식량 줄이기 등을 실천해 나가자.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어 영양 과다인 경우가 많다. 〈엄앵란·불자탤런트〉

◆외국전시 자제: 외화절약 차원에서 내가 회장으로 있는 민족미술협의회 산하 미술가들은 외국에서 하는 전시를 가급적 자제하고 외국에서 쓰고 남은 달러는 한데 모으기로 했다. 연말에 예정됐던 미국방문도 취소했다. 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 정기전도 절약차원에서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꾸었다. 〈강행원·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련 회장〉

◆가정용품 교환: 새 물품은 구입하지 않기로 하고 불필요한 생활용품을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유심히 살펴보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이 많았다. 똑같은 용품들은 한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묵혀버리는 것보다는 이웃과 나눠쓴다면 이웃과의 친목강화는 물론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장영자·경기도 구리시〉

◆자가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고집하는 것은 현대인의 도리가 아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내 경제도 살리고 국가경제도 살리는 첩경이다. 〈함영남·서울 용산구 남영동〉

◆외식등 과소비줄이기: 외식비중이 일본의 2배나 된다고 하니 조금 지나친 감이 든다. 또 의류와 양주에 대한 수입품 선호가 높다고 한다. 말로만 근검절약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미란·서울 서대문구 망원동〉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가정에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중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를 뽑는 것부터 실천하기로 했다. 꽂아둔 전기코드에 전기가 흐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전기가 수돗물처럼 흐르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절대로 전기코드를 꽂아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용옥·서울 관악구 봉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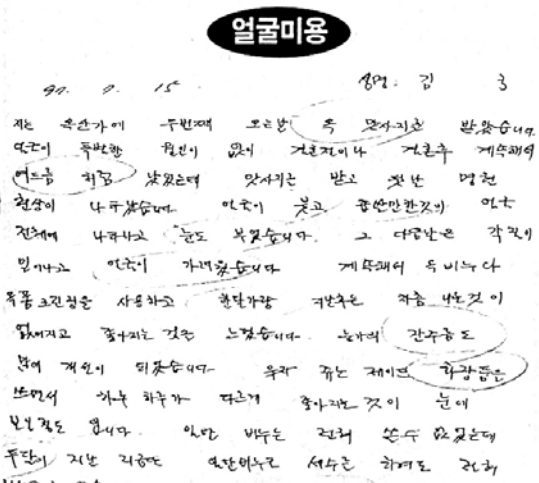
종단·단체 경제위기 극복 「불자실천지침」

조계종
1)외화 환전
2)해외성지순례 및 여행 자제
3)외제사치품 구입 자제
4)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 1일1회 봉행
5)불전에 외국산 농산물과 다과류 안 올리기
6)대중교통 이용
7)남을 위해 봉사
8)불행한 일 당했을 때 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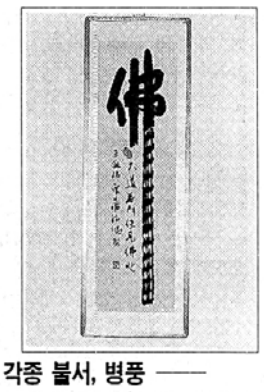
태고종
1)해외여행 및 연수 자제
2)수입농산물 불전에 안 올리기
3)발우공양 정신을 살려 음식쓰레기 줄이기
4)대중교통 이용
5)불필요한 전기·전등 끄기

천태종
1)해외여행 자제
2)신축불사 자제
3)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비 절감
4)자동차 10부제운행 동참 및 에너지 절약
5)저축장려 및 과소비 추방운동 펼치기
6)애국심 고양

동국대
1)매주 금요일 차없는날 실시
2)해외연수 자제
3)98학년도 예산 긴축재정(10%절감)
4)절전, 절수, 재활용생활화 등 절약
5)교환장터 개설, 아껴쓰기 생활화
6)의화저축 및 동전모금
7)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8)해외여행 자제 및 외화절약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얼굴미용

백옥 옥옥옥
팔반 벨니이
염반 트의불
주지 찌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우편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親筆(眞品)
佛子體의 神秘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민심지병 투병환자의 영험적 쾌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시경점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 모집(초심자 환영, 통신도 가능)
● 선착순 한정본(품)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5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①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도량석, 쵯송,상단예불,각단예불,천수경,행선축원,불공시식등
②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③작 법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11월 17일 ~ 12월 16일
■ 개강일시 : 1997년 12월 1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대학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教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종단소식

조계종

불국사·동화사 교구종회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와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는 13일과 14일 각각 교구종회를 개최한다. 이번 종회에서는 9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비롯 각종 종무현안 등이 다뤄진다.

은해사 본말사 주지 간담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3일 심검당에서 본말사주지 간담회를 갖고 △신도조직강화 △경제살리기 위한 근검절약실천 등 중점종책을 결의했다. 은해사는 23일 오후3시 심검당에서 교구예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고종

백련사 쌀 30가마 보시



백련사(주지 운경·사진)는 11월 30일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쌀 30가마를 서대문구청에 전달했다. 성금은 초하루법회가 열린 자리에서 운경스님이 백련사를 방문한 이정규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천태종

전국사찰 동안거 결제

총본산 구인사를 비롯한 전국 각 사찰은 3일 일제히 동안거 결제식을 봉행했다. 구인사에는 2천여명의 불자들이 동안거에 참가했다. 이번 동안거는 내년 1월3일까지 한달간 계속된다.

중앙청년회 보육원 위문

중앙청년회(회장 이문수)는 7일 시흥 송암보육원을 찾아 위문법회를 가졌다.

청년회원 30여명은 원생과 함께 법회를 갖고 위문품을 전달한 후 빨래, 청소, 주변환경 정화작업 등을 함께 했다.

진각종

간부스승·종무원 연수

통리원(원장 성조)은 12·13 이틀간 총인원에서 종무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종단 간부스승과 각 지역 종무원 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교육은 첫날 체육대회에 이어 둘째날 성초 통리원장 등이 종단관과 종단의 미래상 등에 대한 강의와 소양교육, 업무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관음종

진신사리 친견·영산법회

총무원(원장 홍파)은 2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영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홍파스님이 인도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친견시간을 가진 후 종단 스님들의 영산작법과 사물놀이 등의 민속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홍파스님은 인사말에서 "나라가 어려운만큼 모든 불자들이 지혜를 모아 국운이 융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문종

정기종회 총무원장 선출

총무원(원장 혜일)은 15일 오후 1시 총무원사인 보문사 선불장에서 '97정기종회를 연다. 이날 종회에서는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총무원장, 종회의장과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다. 또 97예산결산과 함께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만불전 건립 상량식

총무원(원장 혜일)은 11월30일 보문사내 불교회관 5층에서 만불전 건립 상량식을 봉행했다. 1백여평 규모의 만불전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만불전 건립은 신도들에게 1인 1부처님 모시기를 통해 신심을 고취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일붕선교종

새해 예산 4억 확정

일붕선교종은 3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제10회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 97년 결산을 승인하고 내년도 예산을 4억1천만원으로 확정 편성했다.

또 군포교대책 수립, 승려연수교육, 교구별 상조회 조직 운영 등 내년도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경기도 박물관은 11월29일 회암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개토제를 가졌다. 사진은 개토제를 마친후 관계자들의 시삽장면.

양주 회암사 제모습 찾는다

나옹·무학스님 주석…2백62칸 대가람
郡서 7억원 들여 발굴 2002년 완료

고려말 조선초의 대찰로 지공·나옹·무학 등 고승들이 주석했던 회암사지(사적128호)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양주군청은 경기도박물관에 의뢰, 11월29일 개토제를 올리고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회암사지 발굴조사는 예산 7억3천만원을 들여 총9천4백31평에 대해 2002년까지 6차에 걸쳐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회암사 관련 문헌조사 및 발굴조사와 함께 회암사 주변지역의 불교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도 병행하는 종합적인 학술조사이다.

회암사지는 1984년부터 실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사지정비사업을 벌여 왔으나 사지 전반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건물지의 성격이나 시대에 따른 가람배치의 파악이 미비한 것은 물론 시대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 수습도 거의 없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헌상으로만 전해지던 2백62칸이라는 거대한 회암사의 규모를 파악하고 시대에 따른 가람배치의 변화를 확인하게 된다. 발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고 컴퓨터를 이용, 도면을 정리하는 등 영구적인 자료 축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양주군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암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보고서가 없었다"며 "발굴이 끝난 후 2년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발간, 불교문화연구 및 문화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

백제불교 도래지 법성포

불교성지 조성

마라난타스님 동상건립…잔디광장·편의시설 계획

백제불교의 도래지로 알려진 전남 영광군 법성포 해안이 불교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영광군(군수 김봉열)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일환으로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법성면 진내리 일명 좌우두 언덕 1만여평의 부지에 백제불교 전래자인 마라난타스님의 상을 조성하는등 백제불교전래를 기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군은 이달초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조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98년 6억6천여만원을 투입,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15억2천여만원을 들여 좌대 5m와 불상높이 11m에 이르는 마라난타상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밖에도 3천여평의 잔디광장, 주차장 등을 비롯 각종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가야 포교당 개원

해인사 청소년포교 주력

합천 해인사(주지 보광)는 11월28일 가야포교당 개원봉불식을 봉행했다.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일대 60여평의 대지에 개원된 가야포교당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 위주로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원법회에는 보광 해인사 주지, 경승 포교국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해인사주지 보광스님은 "해인사가 산중에 있는 관계로 각종법회를 개최하기 어려워 그동안 포교활동이 미진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가야포교당을 포교거점으로 삼아 전문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불교지도자 연수

충북포교사지단(지단장 혜광스님)은 법주사와 공동으로 13일 오후 4시부터 14일까지 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에서 충북지역 불교지도자 연수 및 포교사 모임을 개최한다.

연수일정은 충북지단 소속 포교사 및 신행단체장, 각 사찰 신도회장, 재가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환교수의 '올바른 설법과 법회운영론', 포교원 포교국장 성수스님의 '포교사의 역할과 활동방향', 이영일법사의 '수련대회 운영에 관한 포교론' 등의 강의와 분임토의 등으로 진행된다.



◇충주 대원사는 내년 4월까지 철조 아미타불좌상(보물 98호) 보호각을 완공, 현재 충주 시립박물관이 보관중인 아미타불좌상을 이곳에 봉안할 방침이다.

대원사 철불 보호각 기공
목조양식…초파일전 완공

충주 대원사(주지 법광)는 11월30일 대웅전에서 철조 아미타불좌상(보물 98호) 보호각 기공식을 봉행했다.

철불 보호각은 대원사 경내 10.89평의 대지에 1억6천7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목조와가(木造瓦家)양식으로 건립된다. 이날 기공식에서 보호각 건립추진위원장 법광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충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철불좌상은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물론 불교적 신앙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내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보호각을 완공, 철불을 봉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시대의 불상으로 추정되는 철조 아미타불좌상은 충주공고옆 노천에 방치돼 있던 것을 59년 5월 대원사로 이전됐으나 95년 대원사 화재로 보호각이 소실돼 현재 충주시립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마곡사 영산전등 충남지역 14곳 전기불량

목조 문화재 화재위험

보물로 지정돼 있는 마곡사 영산전(800호)·대웅보전(801호)·대광보전(802호) 등 충남도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상당수가 전기시설 불량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도가 최근 도내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9곳을 비롯 도지정 3곳, 문화재자료 2곳 등 14곳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 확인됐다.

마곡사 법당건물들은 옥내 배선 비닐코드와 접지상태가 불량한데다가 누전차단기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신원사(충남 유형문화재 3호)는 전기개폐기와 옥내배선, 비닐코드 배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관계자는 "목조문화재는 한번 화재가 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화재위험이 높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문 시공업체에 의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영상진흥 기금 종교TV 제외 물의

공보처가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에 대출하기로 한 방송영상진흥기금을 불교TV를 포함한 종교TV와 YTN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각 PP사들은 2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공보처에 재심의 통한 2차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공보처는 PP사들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140명 수계
광주사암련, 염주등 보시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명)는 3일 광주교도소에서 하반기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향림사 조실 천운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재소자 1백40명이 5계를 받고 새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연합회측은 광주교도소 재소자불자들에게 경전 1천권, 염주 1천개를 비롯 떡과 과일 등을 보시했다.

탑사 철거지시 철회 촉구

태고종, 진안군 행정남용 규탄 성명도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진안군의 탑사 대웅전, 산신각 철거지시와 관련 11월27일 열린 정기종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권수호차원에서 강력대응키로 했다.

태고종은 결의문에서 "마이산 탑사는 국가가 인정한 전통사찰인데도 철거지시는 불교탄압이며, 부당한 처사일뿐만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탑사에 대한 행정적인 압박을 중단하라고 결정한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철거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산 탑사는 전통사찰 12호로 10년전 진안군의 허가를 받아 법당을 개축했으나, 진안군측이 지난해 5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법당과 부속건물을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혜공)는 3일 진안군의 권력남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탑사에 대한 탑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45㎝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연락주시는 대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사찰경제도 IMF 한파"

보시금 줄어 불사 연기등 긴축
관람료 사찰 내방객 30% 감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IMF 한파가 사찰에도 몰아치고 있다. 보시금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관람료사찰의 경우 많게는 30%가까이 내방객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각 사찰은 경상비 절약, 각종 건축불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신도들과 지역유지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는데, 올해는 마음으로 인사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요사채와 천불전 건립불사도 연기할 계획입니다." 청주관음사 총무 현진스님은 "최근 들어 보시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시금이 줄었다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통도사 범어사 월정사 동해삼화사 등의 사찰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시금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사찰재정 가운데 입장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문화재 사찰도 마찬가지다. 화엄사는 12월 현재 작년대비 입장객수가 30% 가량 줄었다. 경북영일의 ㅂ사는 작년 11월에는 1만명 이상 내방객이 있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8천여명에 그쳐 IMF한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신흥사의 내방객수는 평년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공비침투로 관람객이 급감, 사찰운영에 애를 먹었는데 내년에도 그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심포교당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서울강남구 ㄱ선원의 주지스님은 "IMF 한파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기도 전에 보시금이 이같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내년도는 엄청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걱정했다. 광명시 금강정사도 보시금이 많이 줄어 내핍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라 전체가 경제한파가 몰아치는 판에 사찰에서는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통도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전기 수도 유류 등을 필요한 시간대에만 사용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불사계획도 없다. 대둔사는 스님들의 해외성지순례를 일체 금지하고 신도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했다. 상설수련원 등 예정했던 불사도 무기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서울불광사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신도 수와 보시금에는 별 차이가 없어 이채. 이 사찰의 한 소임자는 "다른 절에 비해 대중동참을 강조하는 신행분위기가 어려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것 같다. 큰 보시금을 내는 신도들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운 · 김주일 기자〉

교계 복지시설 후원비 줄고있다
승가원 · 연꽃마을등 불황여파 운영苦

경제불황여파로 후원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복지시설과 단체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지하스님)의 경우 후원회비가 이달들어 10% 감소했으며 특히 산하 소쩍새마을의 경우 방문자만도 한달에 8백여명에 이르렀으나 11월부터 1백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다보니 후원물품 또한 자연감소하여 지출쪽이 늘어나고 있다고.

또 이달들어 수원등 2개지역에 노인병원을 개원할 예정인 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의 경우 후원회비가 10월대비 30%나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단체의 경우도 이같은 상황은 마찬가지. 교계에서 탄탄한 후원회를 자랑하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와 생명나눔실천회도 후원회비가 50%나 감소하여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이달들어 15%의 후원금이 미납됐다.

통도사앞 고도제한 완화
양산시, 25m까지 건축 허용
통도사 "경관 훼손" 취소요구

경남 양산시가 "통도사앞 5만5천평의 고도제한지구를 내년 2월부터 완화할 방침이다"고 밝혀 전통사찰의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양산시는 11월 27일 지역발전 불균형 심화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겠다며 현재 15m로 제한돼 있는 통도사앞에 25m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5층으로 건설제한됐던 아파트는 10층까지 상가건물은 8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대해 통도사는 10일 양산시에 "전통사찰 보존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지난 90년 시가 통도사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고도제한지구로 선정한 만큼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은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심속행도량 길상사 14일 개원
'열린시민선방' 도 운영

재가불자들을 위한 도심속의 상설 수행도량이 될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주지 청학)가 14일 개원법회를 대대적으로 봉행한다.

창건주 길상화보살을 비롯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에는 보성 송광사 방장스님의 고불문 봉독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치사, 김수환추기경의 축사, 법정(길상사회주)스님의 법문, 초청 장애인들의 창건 발원문 낭독, 화합의 연등 밝히기 순으로 진행된다.

개원식을 시작으로 재가불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수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또한 언제든지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열린 시민선방'이 개원과 동시에 개방된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 직장인 수련회'와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 수련회'를 매월1~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7~9월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도 준비돼 있다.

현재 극락전(5백여명 수용)과 설법전(8백여명 수용), 도서관, 선방, 식당, 종각 등 10여채의 건물을 개 · 보수한 길상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와 경사로, 전용 화장실 등도 갖춰 놓았다.

뉴스 & 뉴스

해군 3함대 법당 추진

해군 3함대 법당이 건평 28평에 아이솔(조립식)법당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스님)는 부산에 위치한 해군3함대 사령부 간이법당 건립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키로 결의했다.

파라미타 기구 개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는 3일 중앙사무국의 기구개편을 단행, 환로 모색에 나섰다.

포교연구실 중심으로 실무집행을 해 왔던 파라미타는 이를 3개 부서로 개편,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한 포교자문위원회, 포교연구실, 실행집행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리의혹 법사 처리 논의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4일 군승단 장실에서 이희용단장 출범 이후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리 의혹이 있는 4명의 군법사에 대한 향후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총무원 호법부에 조사의뢰 접수전 자체 호법위원회의 재검토와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구 사암련 사업확정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회장 종본스님 · 경국사 주지)는 2일 정릉부페에서 송년법회 및 각 정당 불교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성북구사암연합회는 내년도에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 △경로잔치 △불자학생 장학금 지급 △주민걷기대회 개최 △사무실 마련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 일일찻집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北돕기 겨울용품 기증

해인사 강원 학인스님들은 1일 북녘동포 겨울나기를 위한 '웃보내기운동'을 통해 모은 티셔츠, 양말 장갑 등 겨울용품 2백여점을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 기증했다.

네팔에 초등학교 세운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부지 1천8백여평 매입…내년 3월 기공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회장 김재일)가 부처님 탄생지 네팔 카필라성에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를 설립한다. 우리나라 불교단체가 순수한 보시금으로 외국에 학교를 지어 현지 학생을 교육,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월23~4일까지 네팔 현지를 방문해 1천8백평의 학교부지를 매입한 김재일회장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이 가난으로 어린이 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학교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아도움기구가 설립하는 네팔 초등학교는 부지매입비를 포함 총 공사비 4천여만원을 들여 건평 3백평, 7학급 수용 규모로 지어지며 내년 3월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회장은 지난 8월부터 네팔정부와 법인등록을 논의하고 있으며, 네팔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네팔인 교사를 채용해 교육시킬 계획이다. 학교장은 한국인을 파견 3~5년 동안 운영을 맡기로 했으며 이후 네팔 정부에 기증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는 96년부터 모금활동을 벌여 아프리카르완다와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펼쳐왔으며, 네팔 초등학교 설립 재원도 모금으로 마련했다.



◇지난 2일 네팔 카필라성을 방문, 초등학교 부지 매입후 현지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한 한국불교기아도움기구 김재일회장.

전통강원연합 '결성'
초대의장에 종현스님

전국전통강원연합(이하 강원련)은 11월29일 해인사 강원에서 16개 전통강원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초대의장에 종현스님(해인사 강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은 동국대 석림회와 중앙승가대학, 강원련으로 구성 운영된다.

강원련은 이후 이날 △강원간의 학술연구교류 △사찰수행환경 보존활동 △인적 · 소모임교류 △포교 및 봉사활동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종현스님은 "대외적인 일보다는 전통강원의 위상강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기념관 개관준비위 발족
나눔의집, 국민홍보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은 7일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개관준비위' 발족식을 가졌다.

개관준비위(준비위원장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는 3 · 1절 공식 개관을 앞두고 내부전시물과 유물제작, 구입비용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과 기념관 건립 모금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2부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기념관 개관을 위한 '기념관 후원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가수 노영심 한돌 성악가 최현수씨 등이 출연한 이날 음악회는 12일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오전 9시방송)'에서 특별방송한다.

방송이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전화 한통화로 5천원씩 동참할 수 있는 ARS(전화 700-0915)를 개설한다.

목탁소리

상(賞)에 인색한 불교계

이 경 숙 〈취재2부 부장〉

연말에는 각종 상(賞) 소식이 지면을 장식한다.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에서일 것이다.

(사)불국토가 주최하는 제5회 '자랑스런 불자상'에 〈명찰순례〉등의 저자이며 유명한 미술사학자 최완수선생이 선정됐다.

최완수선생은 불상연구의 대가로 여러 사찰의 불상조성에 자문을 맡았으며 특히 선생이 직접 답사해 쓴 〈명찰순례〉는 우리나라 각 고찰의 연혁과 유래 등을 사료를 통한 정통 사학적 입장에서 쉽게 소개한 책이다. 스테디셀러인 〈명찰순례〉는 고찰의 면면들을 잘 알려주는데 일익을 담당해 이번 '자랑스런 불자상'에도 그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훌륭한 활동을 펼친 불자 특히 불교포교를 위해 단단히 한 몫을 한 이들에게 상을 주는 일은 아무리 많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불교계가 이러한 상 주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 않나 되돌아 볼 일이다. 불교의 선(禪)적 세계를 탁월한 영상미로 나타낸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해외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후 국내에서도 화제를 뿌리며 이후 '화엄경' '오세암' 같은 불교영화가 나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제작자인 배용균 감독에게 불교계에서 감사장 하나 주었다는 소식을 과문한 탓인지 듣지 못했다.

1990년 초연된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는 불교연극으로는 드물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으며 연극계 상을 휩쓸고 이후 지금까지도 수차례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인기극이다. 그러나 참으로 힘들고 힘든 '불교연극의 스테디셀러化'를 기록한 작가 이만희씨에게 교계에서 공로패 하나 전달했는가.

훼불에 대한 감시와 항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불교를 위해 일을 한 사람, 특히 문화인들을 격려하고 고무한다면 그것은 또다른 열매를 위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갈수록 첨단 매스컴 사회가 되어가는 현대에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작가는 물론 대중적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화감독, 방송작가, PD, 탤런트, 가수, 배우 등, 불교홍포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이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인색하지 않도록 불교계 특히 종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킬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범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0)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남산 냉골 마애불 '붉은입술'
"화강암 풍화로 변색"

성익환박사 "채색 아니다" 지질학적 연구발표

경주남산 냉골에 있는 마애 관세음보살상의 붉은 입술이 속설로 전해져온 채색이 아니라 석재인 '불국사 화강암'이 염수변질작용에 의해 풍화과정에서 붉은 빛으로 변색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한국석불연구회(회장 이근후·이대병원 신경정신과 박사) 총회에서 '지질학적 입장에서 본 경주남산 냉골의 관세음보살입상'을 주제로 발표한 성익환박사(한국자원연구소 환경지질연구부 책임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석불연구의 지질학, 암석학적 접근으로 시도돼 불교계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성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경주남산의 마애보살상의 붉은 입술은 경주를 중심으로 분포된 '불국사 화강암'내 함유되어 있는 카리장석이 특별히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염수변질작용에 의해 2차광물인 철(Fe) 등과 결합하여, 풍화과정에서 붉은 빛으로 변색됐다는 것. 따라서 1천여년전 신라의 선조들은 카리장석이 농집돼 있는 부분을 입술부위로 정해놓고, 광등신 관세음보살상을 조각해 3차원적인 공간감과 시각을 갖고 조각한 탁월한 솜씨를 지녔다고 성박사는 평했다. 그래서 마애석불은 마치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박사는 최근 부처골 감실 부처님의 입술과 후불벽화(?)가 채색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냉골 마애보살상과 같이, 화강암의 염수변질작용에 의한 변색이 확실시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주 남산이 지질학과 암석학적으로 단일 구조의 암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영린 기자



◇경주남산 냉골의 마애 관세음보살상의 살아있는듯한 붉은입술은 채색이 아니라 석재의 변색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제5회 보리방송문화상 불교TV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의 명찰'. 전국의 90여개가 넘는 사찰을 영상으로 담았다.

btn '한국의 명찰'
BBS '무명을 밝히고'
KBS '팔만 대장경'

대상

제5회 보리방송 문화상

불교발전에 공헌한 방송프로그램에 주는 제5회 보리방송문화상 일반TV 부문에 '팔만대장경'(서울KBS·PD 유동중), 불교방송 부문에 '무명을 밝히고'(불교방송·PD 진영조), 불교TV 부문에 '한국의 명찰'(불교TV·PD 김양·노전규) 등이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9일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보리방송문화상은 '일반TV' '불교방송' '불교TV'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 시상되는데 불교TV 부문은 올해 신설됐다. 각 부문별 우수상은 일반TV 부문에 '몽련 김진민'(전주KBS·PD 이규현), '호남불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불교광주방송·PD 박주원), '지비의 천수천안'(불교TV·PD 김오중) 등.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77)

♦ If he who desires sensual pleasures is successful, he certainly becomes glad-minded, having obtained what a mortal wishes for.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대로 잘 되면, 그는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 But if those sensual pleasures fail the person who desires and wishes (for them), he will suffer pierced by the arrow of pain.

욕망을 이루고자 탐욕이 생긴 사람이 만일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번민한다.

♦ He who avoids sensual pleasures as he would avoid treading upon the head of a snake with his foot, such a one, being thoughtful, will conquer this desire.

뱀의 머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처럼,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애착을 넘어선다.

♦ He who covets extensively such pleasures as these, fields, goods or gold, cows and horses, servants, women, relations,

농토·집터·황금·마소(馬牛)·노비·부녀자·친척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탐내는 사람이 있다면,

♦ Sins will overpower him, dangers will crush him, and pain will follow him as water pours into a broken ship.

죄악이 그를 이기고 위험이 그를 뭉갠다. 또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파손된 배에 물이 새어들듯이.

♦ Therefore let one always be thoughtful, and avoid pleasures; having abandoned them, let him cross the stream, after baling out the ship, and go to the other shore.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바른 생각을 지키고 모든 욕망을 회피해야 한다.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이, 그와 같은 욕망을 버리고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한 사람이 되리.

*tread (v) (짓)밟다
*covet (v) 몹시 바라다, 갈망하다
*pour (v) 흘러나오다, 넘쳐흐르다
*other shore 피안(彼岸)

부처님의 미소 ③·〈끝〉

주부신행담

"기도를 몰라 망설인다면 절을 열심히 하십시오 집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아직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 분들께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을 열심히 하십시오. 절만한 게 없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절을 해 오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과 스스로 놀랄 만큼 변화된 내 모습이 나의 이 주장을 증명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 얘기를 소개하겠다. 이미 밝힌대로 내 믿음의 동반자이자 감시자(?)이기도 한 그 친구는 마흔살이 되어 결혼이라는 걸 했다.

마흔까지 혼자를 고집한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나이에 결혼을 결정하기도 쉬운 일은 아닐 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자손 귀한 집안의 장남이란다. 가문의 역사적 사명과 결혼을 한 셈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애타게 기다리는 2세는 감감 무소식. 한국에서 여자의 몸 받아 나온 사람이라면 그 곤혹스러움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좋다는 병원, 용하다는 의사, 효험이 뛰어나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난감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 얼굴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체념도 잠깐 하면 안심(安心)의 방편이 되는 모양이다. 다행스럽게도 그 친구는 현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큰 동요없이 일상을 꾸려 갔다. 아무튼 친구는 그런 상태에서 나와 함께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1백만배, 하루에 5백배씩 5년. 우리의 기도 주제는 결코 '아들, 딸 낳게 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는 게 아니었다. 그런 '고전'적 기도 주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기도의 한 목적이었다. 또한 그것이 기도의 직접적 동기도 아니었다.

다시 내 얘기로 돌아온다.

'부처님, 오늘도 간절히 5백배를 바치옵니다. 부디 참된 부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림·이준석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3배를 올린 다음 천수경 독송과 함께 5백배를 시작한다.

고귀하신 부처님 발 아래 나의 가장 높은 머리를 바치고 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세기고 나면, 언제나 즐겁고 좋은 일만 바라며 끝없는 갈등과 원망 속에서 이탓 저탓하며 살아온 남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다.

이런 나의 반성이 생짜 거짓은 아니었는지 절을 시작한 다음부터 남편이랑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일삼아 질려대던 고함도 자연스레 미소로 바뀌니, 집안 가득 그윽한 국화향이 풍기는 듯하다. 그래, 매일 5백배의 절이란 국화향을 만들어내는 찬서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어쨌든 지금의 나는 남의 허물을 보아도 쉽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게 되었고 남들이 귀찮아 하는 일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보잘 것 없는 정도임을 잘 안다. 까치발을 해서야 간신히 부처님의 발끝이라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나 할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친구가 108배를 마친 다음 그냥 앉아서 염주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내심 이상하다 여기면서 5백배를 마친 다음 법당을 나와 친구에게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다. 나이 마흔 한 살에 임신을 했다는 게 쑥스러웠던지 한참을 망설이더니 속내를 털어놓았다.

'오, 부처님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 당신의 가피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내 친구는 나보다 1백만배 회향의 날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보다 훨씬 장엄한 1백만배를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아니 기쁜가.

배석자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2리〉

NEW BEST 새로운 기술, 최상의 서비스



날씬한 통화료가 보인다

PCS 016이 통화료를 다이어트 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이 많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위한 PCS 016 스페셜요금 - 10초당 통화료가 9원으로 통화료에 군살을 뺐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니아를 위한 플러스인터넷, 통화량이 적은 고객을 위한 라이트, 통화량이 많은 고객을 위한 프리 200, 300, 400 등 PCS 016은 고객의 통화량에 따라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요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날씬한 맞춤요금 - PCS 016에서만 보입니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가입시 아래 「포교기금 부다피아」 가입처로 신청하시면 고객께는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 통화료의 5%가 통일포교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전국 가입처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전주지사 0591-747-0106
아산 청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양지국 0344-912-2323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PCS 016 맞춤요금제도

●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요금제

상품명	기본료 (1개월)	통화료 (10초당) 평상	할인	심야
스페셜 (저녁 및 주말에 통화량이 많은 고객)	13,000원	38원	9원	9원
라이트 (월 통화량이 평균보다 적은 고객용)	10,000원	35원	26원	18원

● 월 통화량이 많은 고객용 선택 요금제

상품명		프리200	프리300	프리400
무료통화시간		200分	300分	400分
기본료(1개월)		36,000원	45,000원	53,0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8원	17원	15원
	할인	14원	13원	12원
	심야	10원	10원	9원

●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비고
기본료(1개월)		16,500원	
통화료 (10초당)	평 상	19원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할 인	15원	평일 오전 6시 ~ 오전 8시, 오후 9시 ~ 오후 12시, 공휴일 오전 6시 ~ 오후 12시
	심 야	10원	매일 오후 12시 ~ 다음날 오전 6시

● 플러스 인터넷 (월6,000원) : PCS 016을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은 월6,000원의 추가 월정액만 부담하시면 KORNET을 매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50% 할인)

10월 이전 예약가입 고객의 실가입 전환과 예약가입 기간을 97년12월까지 연장합니다

● 11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기본료 면제
• 97년 11월~12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2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면제 • 97년 12월 한달간 200分, 98년 1월 한달간 200分 무료통화 제공 (국제전화, 700서비스, 114안내 등은 유료)
• 97년 12월 ~ 98년 1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11월 가입 고객중 프리200, 300, 400을 선택 또는 변경하신 고객은 98년 3월1일 이후 요금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